

韓國의 對社會主義諸國 經濟進出斗  
統一與件展望

研究責任

金潤煥(檀國大)

尹錫範(延世大)

朴春三(國防大學院)



國土統一院



# 目 次

第 一 部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이 韓半島 統一에 미칠 影響 .....	3
第 1 章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질적 측면에서 본 共產圈 經濟交流·協力の 意義 .....	5
第 2 章 韓國의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	9
第 3 章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이 統一與件  개선에 미칠  영향 .....	30
第 4 章 要約 및 結論 .....	40
第 二 部 南北韓 經濟協力을 통한 統一 接近 .....	43
第 1 章 序 言 .....	45
第 2 章 北韓의 對外 開放化 政策 推移 .....	46
第 3 章 南北經濟會談과 交易實績 .....	59
第 4 章 南北韓 經濟協力 有望 部門 .....	67
第 5 章 北韓의 經濟改革와 開放 可能性 .....	85
第 6 章 南北韓 經濟協力을 위한 接近戰略 .....	96
第 三 部 韓國의 對共產圈 經濟協力 擴大를 통한 統一 接近 .....	101
第 1 章 序 言 .....	103
第 2 章 韓·中 經濟協力 增大 方案 .....	106
第 3 章 韓·蘇 經濟協力 增大 方案 .....	120

第 4 章 韓·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案 .....	136
第 5 章 結 論 .....	160

# 第一部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이 韓半島 統一에 미칠影響

## 〈目 次〉

第 1 章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的 側面에서 본 對 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의 意義.....	5
第 1 節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 .....	5
第 2 節 對社會主義諸國 經濟協力의 意義 .....	7
第 2 章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關聯國의 立場 .....	9
第 1 節 社會主義 諸國의 立場 .....	9
第 2 節 美國과 日本의 立場 .....	24
第 3 章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이 統一與件·改善에 미칠 影響 ..	30
第 1 節 外交的 側面 .....	30
第 2 節 軍事·安保的 側面 .....	34
第 3 節 經濟的 側面 .....	35
第 4 節 南北韓 關係의 側面 .....	38
第 4 章 要約 및 結論 .....	40



# 第 1 章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的 側面에서 본 對共 産圈 經濟交流·協力の 意義

## 第 1 節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그것이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本質的 특수성이 내재한다.

對社會主義 經濟交流·協력이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統一問題에는 어떠한 影響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統一問題가 안고 있는 本質을 먼저 論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韓半島의 분단은 『국토의 분단』, 『정부의 분단』 그리고 『민족의 분단』 이란 3단계 과정을 거쳐 현재의 분단상태로 固着化 되었다고 한다.<sup>1)</sup>

첫 段階인 『국토분단』은 1945년 8월 15일 日帝 식민지로부터의 解放과 더불어 북위 38°선을 경계로 하여 美·蘇 두 점령군이 南과 北을 각각 분할 점령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정부분단』은 1948년 서울과 평양에 서로 다른 두 政府가 각각 들어서면서 政治·社會的 分단으로 심화되었다.

『민족분단』은 1950년 6월 25일 北韓의 무력 남침으로 발발된 3년간의 치열한 戰爭을 겪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韓半島의 분단과정에서 『국토분단』은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전혀 관계없이 強大國들간의 政治,軍事的 이해관계에 의해 초래됨으로써 우

註 1) 李相禹, 統一韓國의 摸索, 1987, pp.1~2

리 民族에게는 사실상 물리적, 공간적 분단의 의미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분단』은 분단의 責任을 외세에만 돌릴 수 없는 것이며 당시 民族 지도계층의 內分과 外勢의 작용이 맞물려 초래한 政治, 社會的 분단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민족분단』은 6·25 전쟁을 통해 民族이 스스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悲劇을 經驗하게 됨으로써 民族이 精神的, 內面的으로 완전한 두 개의 集團으로 갈라져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차 대전 이후 한 民族이 두 개의 國家로 분단된 나라들중에서도 南北韓의 관계가 타 분단국들 보다 더욱 첨예한 對決과 緊張 狀態를 지속해 오고 있는 根本的인 要因도 바로 전쟁으로 인한 民族의 정신적, 내면적 분단과 갈등이 相互 불신의 障壁을 그 만큼 높게 쌓아 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흔히 指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는 地政學的으로 볼 때 海洋으로 進出하려는 大陸의 勢力과 大陸으로 進出하려는 海洋 勢力의 理解가 상충하는 地域임으로 동북아의 情勢 變化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影響을 받는 분쟁지역으로 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韓半島 統一問題는 분단과정의 특수성이나 地政學的 특수성으로 인하여 民族 내부에서의 統一 與件과 國際 環境이 동시에 成熟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本質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은 韓國과 北韓 그리고 주변 4강이라는 6가지 변수들의 相互作用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國際 環境 要素로서의 주변 4강은 南北韓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토와 인구, GNP, 군사력 등 國力面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國家들이므로 이들 중 어느 한 國家라도 韓半島의 統一을 적극적으로 방해하



거나 간섭하게 되면, 統一에 대한 南北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實現하는 데 중요한 障礙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南北한 합의 자체를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外壓으로 作用할 것이다.

## 第 2 節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協力の 意義

韓半島 統一問題의 本質的 特性으로 인하여 統一로 향한 우리의 勞力은 한편으로는 統一의 原則과 方法 및 그 구체적인 節次에 이르기까지 南北간에 合意를 도출해 내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족분단」으로 야기된 民族成員 相互間의 不信과 感情的 양극을 제거함으로써 진솔한 對話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4강을 비롯한 國際社會가 韓半島의 自主的 統一에 최소한 방해를 하지 않거나 積極的으로 協力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할 統一 接近 過程을 단계화해 보면 제1단계는 統一을 위한 內外的 環境을 개선하는 努力 段階이며 제2단계는 南北間에 統一에 대한 原則과 方法, 節次에 대한 具體的인 合意를 도출하고 이를 實現하는 段階일 것이다. 제3단계는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대해 國際社會에서의 보장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段階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努力들은 同時 並行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協力 問題는 統一에 接近하는 모든 段階에서 이를 實現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手段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매우 중요한 意義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統一을 위해 國際環境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敵對關係下에 있던 社會主義 諸國과 關係改善을 이룩하는 일이 일차적인 과제로 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社會主義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으며 體制改革과 開放을 통해 스탈린식 體制를 탈피하고 國際協力을 강화해 나가는 大變革의 時期를 맞고 있다. 따라서 理念을 바탕으로 한 冷戰構造의 틀을 벗어나 經濟的 實利가 外交政策의 優先的 目標로 轉換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大勢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이 60년대 이후 經濟開發 過程을 통해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은 주어진 世界情勢 속에서 이들 國家와 關係를 改善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統一을 위한 外的 環境改善에 매우 效果的인 手段으로 활용할 수 있는 好機를 맞고 있다.

한편 社會主義 국가들과의 經濟交流·協力은 經濟的 實利面에서 우리 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經濟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手段이 되고 있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우리 經濟는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잘 훈련되고 풍부한 勞動力 등을 주어진 條件으로 하고 있어서 생산 원자재의 供給이나 製品의 판매를 海外市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국제수지 흑자 폭의 증대로 貿易摩擦이 심화되는 기존 海外市場의 여건으로 인해 韓國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高度成長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市場의 開拓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다.

## 第 2 章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關聯國의 立場

### 第 1 節 社會主義 諸國의 立場

#### (1). 基本的 立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과거 40여년간 敵對關係가 지속되어 온 社會主義 國家들과 經濟交流 및 協力を 시도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社會主義 國家들의 공통적인 立場과 態度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社會主義 諸國의 공통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는 침체된 經濟를 活性化 시키는 것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社會主義 國家들은 社會的 再生産의 合法性을 내세워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우월성을 맹신하고 이를 主張해 왔다. 즉 社會主義 經濟의 生産關係는 항상 生産力의 발전을 앞지르기 때문에 양자 간의 모순은 배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個人的, 社會的, 集團的 理解關係에 있어서나 相異한 階級과 社會集團間에는 資本主義에서와 같은 심각한 모순이나 敵對的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經濟活動에 있어서도 物質的인 욕구를 자극하는 動機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社會的, 精神的 動機가 本質的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經濟運用에 있어서도 經濟的 管理方式보다는 行政的 管理方式을, 分權的인 관리 방식보다는 中央集權的 관리 방식을, 시장기능보다는 계획기능을 앞세워 왔다.

그러나 소련이 社會主義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확립한 1928년 이후

40여년 경과한 1960년대에 이르러 東歐 社會主義 諸國에서는 그들의 經濟 體制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批判과 反省의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구제국의 經濟改革과 개방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이들 國家에서 推進된 經濟改革의 내용은 항상 理想的 制約과 중주국 소련의 政治·軍事的 影響力으로 인해 폭넓고 깊이있게 進行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 집권 이후 中國의 실용주의 노선이나,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의 「새로운 思考」는 社會主義 各國의 經濟改革과 開放을 보다 광범하고 심도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社會主義 國家들의 改革과 開放의 불가피성은 그들 스스로가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의 經濟發展에 한계를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각국이 직면한 經濟的 어려움은 각국의 자연조건이나 歷史的, 社會的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현상을 보면 첫째, 노동 생산성 둔화 둘째, 技術 발전의 정체 셋째, 産業構造 불균형에 의한 농업, 경공업, 사회간접시설의 취약 넷째, 식량 및 소비재 부족의 심화 다섯째, 재정적자 증대 여섯째, 새로운 투자에 소요되는 資本의 부족과 외채의 增大 등으로 要約이 가능하다. 따라서 社會主義 國家들이 그들의 침체된 經濟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社會主義의 經濟體制의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경제관리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하며 둘째, 취약한 産業 部門을 보강,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資本을 調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중한 軍事費의 支出을 줄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西方諸國으로부터 先進 技術과 資本의 도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식량 및 消費財 공급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노동자들의 불만의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消費財 공급의 增大를 통해 노동자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 길만이

스스로의 政治體制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經濟建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短期的인 방도가 될 것이다.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進出에 대한 그들의 基本立場은 바로 社會主義 國家들이 당면한 經濟問題들과 이를 풀어 나가기 위해 選擇한 방도로서의 改革·開放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社會主義 國家들이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韓國이 經濟開發 過程에서 채택한 國家主導的 經濟開發 計劃과 戰略의 성공 경험이다.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基本으로 하고 있는 社會主義 國家들이 開放과 改革의 과도기에서 市場經濟的 관리방식을 접목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모델 國家로 韓國을 선정했다는 사실은 中國의 경제특구 설치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다.

둘째, 韓國은 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신발, 섬유,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능력 면에서 이들 製品의 供給市場으로서의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셋째, 韓國의 産業發展過程에서 볼 때 향후 산업고도화를 위해서는 斜陽 産業의 對社會主義 移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수송비 등 지리적 여건이 經濟協力에 相互 유리한 條件下에 있다는 점 등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進出에 대한 社會主義 諸國의 基本立場은 순수한 經濟的인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와 북한과의 기존 軍事 및 外交的 유대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進出이나 관계개선에 상당한 制約 要因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과의 經濟交流協力에 있어서 중·소의 경우는 政·經分離의 原則을 내세워 이러한 制約要因에 대처하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 (2) 소련의 입장

韓國의 對蘇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立場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그가 행한 주요 演說文에서 개략적인 意圖를 읽을 수 있다. 물론 그러한 演說文에서 韓國이란 특정 國家를 지칭한 事例는 찾기 어려우나 아시아·태평양 國家들과의 관계나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의지 속에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6년 4월 23일 『亞·太 地域 國家의 共同協力에 관한 소련 정부의 立場』을 밝힌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 .....소련 정부는 政治體制, 사상과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地域 人민들은 생활상 利益의 공통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認定하며 國家들 間에 相互依存性이 增大되어가는 條件下에서 그 國家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問題들을 개별국가나 고립된 國家그룹이 해결하기는 몇 배 더 어렵거나 전혀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는 社會政治制度에 관계없이 地域 國家들의 건설적 노력을 연합할 것이 요구된다” 고 주장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亞·太地域 國民들의 共同利益을 重視하고 둘째, 국제 間 協力強化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으며 셋째,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社會·政治制度에 관계없이 相互 協力할 容의가 있음을 밝힌 점이다.

고르바초프는 同 演說에서 蘇聯의 經濟開發政策 方向에 대해

“.....소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로 되는 시베리아의 극동지역

에 선차적인 注目을 돌리고 있다. ………공업 및 농업기반의 조성, 바이칼-아무르 간선철도의 완공, 풍부한 원유와 가스, 石炭 産地와 기타 動力資源 産地의 開發, 이 地域의 새로운 목재, 원료자원 개발을 위해 國際 分業,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通商, 經濟 및 科學技術 協調 過程에서 소련이 보다 積極的으로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物質的 前提를 객관적으로 조성한다.”

고 피력하였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소련은 社會制度의 차이에 관계없이 아시아 및 태평양 地域 나라들이 평등하고 相互 유익한 기초 위에서 광범위한 協調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세계와 이 地域 나라들의 根本的 利益에 부합되며 平等하고 민주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國際關係를 개선하는데 協調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재차 강조하였다.

소련이 社會·政治制度가 다른 아시아·태평양 國家로 표현한 國家들 중에서 시베리아·극동 개발과 관련하여 經濟協力 關係를 고려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美國, 日本, 韓國 등으로 壓縮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련의 經濟 實態를 개관하면 주요 자원 생산의 감소, 外換事情의 악화와 외채 증대, 식량 및 소비재 부족의 심화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소련은 지금까지의 經濟開發 과정에서 원유, 가스, 석탄 등 주요 原資材를 氣候 條件이 좋은 우랄산맥 以西 및 중앙아시아 以南 地域에 依存하여 왔으나 70년대 이후 소련은 이 地域들에서의 자원 고갈로 인해 점차 생산증가율이 둔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자원 매장 地域은 대부분 氣候條件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시베리아의 極東地域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開發하는 데에는 막대한 資本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그 결과 生産費用이 지나치게 높아 國際競爭力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여건 하에 있다.

특히 1980년대 초 石油波動 이후 世界 石油 生産의 增加로 인한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소련의 자원 생산 감소 추세와 함께 外換收入을 격감시켜 외화부족과 외채증대를 초래하였다. 최근 소련 관영 타스 통신에 의하면 소련은 동구 코메콘 회원국을 비롯한 西方世界에 총 538억불의 외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sup>2)</sup> 소련의 이러한 외채 규모는 1984년부터 1987년 사이에만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蘇聯 經濟는 이와같은 사정으로 인해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인 1987년부터는 식량 및 소비재의 收入을 減少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므로써 최근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련 全域에 소비재 不足現狀이 심각한 狀態에 도달하고 있다.

지난 8월 시베리아 탄광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바로 노동자들에 대한 소비재 供給을 증가시켜 달라는 要求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問題는 蘇聯 政府가 탄광 노동자들의 要求를 받아들여 生必需品 供給을 증대시켜 준다는 約束과 함께 생산물의 일정량을 탄광 기업소가 직접 市場을 통해 販賣할 수 있다는 條件으로 解決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소련 정부가 소비재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탄광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 광산, 공업 부문 등 모든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條件을 要求하게 될 것이므로 問題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소련 경제 전문가들의 見解이다.

그러므로 소련 경제에 있어서 食糧 및 消費財 不足 問題는 고르바초프의 開放과 改革政策 推進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解決하지 않을 수

---

2) 韓國日報. 1989. 10. 13.字 참조



있는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련이 韓國과의 經濟協力을 신속히 擴大해 나갈 것을 希望하는 가장 큰 요인도 短期的으로는 소련의 消費品 生産 및 供給 增大 問題와 직접 聯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6년 4월 고르바초프의 모스크바 연설이나 동년 7월의 블라디보스톡 연설, 1988년 글라스노야르스크 연설 등에서 한결같이 強調하고 있는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國家로서의 役割 問題는 시베리아와 極東地域 開發 問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의 소련 경제는 시베리아·極東地域 開發의 성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地域의 개발은 기후적인 條件이나 노동력 부족, 수송문제 등 기초적인 開發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韓國, 北韓, 日本, 中國 등 주변국가들의 協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과 中國의 경우 노동력을 제외하면 資本이나 技術 蓄積 面에서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協力の 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베리아 開發에 대한 日本企業들의 태도는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련이 選擇할 수 있는 최적의 協力 파트너는 韓國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韓國의 對蘇經濟協力 問題에 대한 소련의 立場은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韓·蘇 經濟協力の 추진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감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3) 中國의 입장

중국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역시 鄧小平 執權 이후 經濟開放化 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은 1979년 中外合資 經營企業法을 발표하고 深圳, 珠海, 汕頭 등 경제특구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韓國의 經濟發展 모델이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 12월 14일 그리스 공산당 기관지 『아브기』의 편집장이 당시 胡耀邦 總書記와 회견했을 때 중국의 개방정책은 유고, 루마니아, 한국 등 3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때 이미 북경의 『중국사회과학원』 내에는 『조선경제연구소』가 부설되어 韓國 經濟 모델이 研究되고 있었다.<sup>3)</sup>

금년 6월 초 天安門 사건 이후 실각한 趙紫陽 前黨總書記의 1987년 10월 중공당 13차 전국 대표자 대회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개방의 결과 11期 3中全會로부터 9년 동안 GNP, 국가재정수입, 도시·농촌 주민의 平均 收入 등이 대체로 2배로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10억 인구의 절대다수가 대체적으로 풍족한 住·食生活을 하고 있으며 시장공급체계 역시 크게 개선되어 基本的으로 과거처럼 심각한 소비품 부족 현상은 많이 改善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經濟問題와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각 분야의 관리와 감독이 상황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經濟事業 중에는 성급하게 서두르는 傾向이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의 총수요가 총공급량을 초과하는 傾向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趙紫陽은 동 보고서에서 “특히 많은 부문에서 각기 그 程度는 다르나 여전히 존재하는 關료주의,

---

3) 中國社會科學分野 研究機關에 관한 紹介는 「中蘇研究」 제5권 3~4호, 1981, p.28.

부패적인 현상에 대해 전당의 동지와 국민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 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는 經濟開放化 이후 식량생산 및 소비재 공급의 증대를 비롯한 전반적인 經濟建設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높은 인플레이와 관료사회의 부패 등 소위 자본주의의 弊害 要所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天安門 流血事態의 원인을 提供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天安門 事件 이후 중국은 내부의 權力構造 개편과 가열된 개방 열기로 나타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計劃經濟의 지나친 수정이나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 등 여러가지 면에서 개방의 폭과 속도를 대폭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經濟開放 이후 外資와 技術導入 등에 관한 권한을 지나치게 省級 이하의 地方政府에 이양하므로써 지방간에는 經濟發展의 격차가 늘어나고 地方政府 相互間에도 무절제한 경쟁이 초래되고 있는 등의 경제 과열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외자 도입으로 외채가 급격히 늘어났음은 물론 資源의 비능률적인 사용이 조장되고 있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開放에 대한 신중론자들은 天安門 사건 이후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協力이 이들에 대한 중국의 依存度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對外的 自主성과 獨自의 地位를 크게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최근 중국의 전반적인 정세로 볼 때, 중국은 지금 改革과

---

4) 정중욱, “韓國의 北方外交와 東北亞 平和”, 1989. 6. 東北亞 平和와 安保에 관한 學術會議 論文 p.11.

開放 및 經濟開發政策을 수행하는 데 단기적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韓·中 貿易은 지난 해의 왕복 32억 달러 규모에서 금년에는 그 증가세가 급격히 鈍化될 것이 豫想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0여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變化의 물결은 脫이데올로기 즉, 實事求是의 몸부림이었으며 이러한 變化는 중국대륙과 基層 인민들 속에 형성된 하나의 大勢로서 누가 政權을 장악하든지간에 되돌릴 수 없는 政治的·經濟的 民主化로 보는 것이 中國問題 專門家들의 보편적 見解이다.<sup>5)</sup>

이는 1987년 10월 25일 중국 공산당 제 13차 全國 代表者 會議 정치 보고서 가운데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黨總書記였던 趙紫陽은

“改革은 중국을 부흥시키는 유일한 出路로서 그것은 인민이 원하는 바이며, 또한 大勢이므로 이를 거역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물론 天安門사건 이후 그는 失脚 狀態에 있으나 이미 10여년간 가속이 붙어 왔던 開放과 改革이 原點으로 되돌아가는 데는 더 큰 희생이 따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韓·中 經濟協力에 대한 중국의 立場은 중국과 북한 간의 外交的 유대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基本的으로는 韓國에 대해 好意的이고 積極的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11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인 胡啓立은 북한측의 동의만 있으면 한국과 直交易을 가질 用意가 있다고 밝혔으며, 1988년 3월에는 田紀雲(부수상)이 韓國과는 앞으로 間接交易뿐만 아니라 直接交易으로도 발전할 수

---

5) 김성훈, “中國의 最近 事態와 韓·中關係 展望”, 學術會議 主題 論文, 1989. 9. p.2.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1988년 11월 中國對外貿易部 國際經濟 合作國 副局長인 初保泰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未修交 狀態에도 불구하고 직교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韓國企業人들의 對中國 投資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sup>6)</sup>

한편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건너편에 있는 山東省을 開放한 裏面에는 장차 韓國과의 貿易發展을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물론 韓國의 對中國 投資를 보다 적극적으로 誘致하고 이를 促進해 나가려는 정책 표명임과 동시에 그 준비로 평가할 수 있다.

天安門 事件 이후 美·日 등 西方國家의 對中國經濟制裁 措置로 인해 최근 中國經濟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天安門 사건 당시 一部 國內外 輿論의 批判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태도는 基本的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신중한 姿勢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중국내부 권력구조의 일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韓·中 關係에 부정적 影響을 배제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국 內部 政治狀況이 앞으로 안정을 回復하게 될 경우 韓·中 經濟協力 與件을 好轉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미·일의 對中國關係가 짧은 기간 내에 好轉되지 못할 경우는 중국의 대 韓經濟協力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經濟發展 단계로 볼 때 한국의 산업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현

---

6) 이상준, “韓·中 交易의 決定要因 變化와 우리의 對應策”, 1989. 8. 北韓 經濟와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學術會議 主題 論文, pp.14 ~15에서 재인용.

재와 같은 높은 임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경우 노동집약산업은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풍부한 중국으로 移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국이 韓·中 經濟協力을 희망하는 또 하나의 要因이 될 수 있다.

1987년 현재 韓·中 交易規模는 往復總 14억 8,600만불이었고 같은 해 중국과 북한 간의 貿易은 왕복 총 5억 2,000만불에 불과하여 韓·中 交易規模가 北·中 交易規模의 약 3배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8년의 韓·中 交易規模는 또다시 前年比 2배 이상으로 신장하여 왕복 총 31억 9,600만불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 3국 간의 경제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를 전망하는 데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 (4) 東歐諸國의 立場

소련이나 중국보다 東歐諸國은 東北亞情勢나 韓半島 統一問題에 직접적인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최근 소련은 이들 國家에 대한 獨自性을 대폭 인정하므로써 헝가리와 폴란드를 필두로 한 東歐國家들의 政治的 民主化 速度는 급속히 加速化되고 있다.

이러한 情勢 變化로 이들 國家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념적 兄弟國家로서의 사슬을 약화시키게 됨으로써 결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國家가 이익이 우선적인 가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은 더욱 성숙되고 있다.

1989년 현재 루마니아, 동독,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유고, 헝가리, 알바니아 등 8개 동구국가와 韓國과의 經濟關係를 보면, 이미 直交易이 이루어지고 있는 헝가리와 유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國家들과도 間接交易이 실시되고 있다.

大韓貿易振興公社 (KOTRA) 資料에 의하면 1988년 현재 東歐諸國과의 交易總額은 총 2억 1,489만불로 우리나라의 對社會主義諸國 交易 總額인 36억 7,162만불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立場에서 본 經濟關係의 비중은 중국이나 소련에 비할 경우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헝가리의 경우 이미 지난 2월에 國交가 樹立되었으며 유고와 폴란드도 빠른 시일 내에 外交關係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外交的 측면은 물론 이들 국가와의 經濟關係 발전이 우리의 統一環境 개선에 미칠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UN의 유럽경제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소련과 東歐圈의 經濟改革과 世界政治環境 改善으로 東·西 貿易은 5년 간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지난해에는 4.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東歐圈은 對西方 輸出好調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經濟成長率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동독, 루마니아 등 東歐 6개국은 지난해 3.5%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여 1987년의 33%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東歐諸國은 최근 經濟成長率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消費商品 不足難은 계속 심각한 상태이며 농업생산은 2년간 연속적으로 정체됨으로써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經濟改革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sup>

외채문제 역시 東歐諸國이 안고 있는 經濟問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東歐諸國의 외채는 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70년대 말에는 외채 총액이 1970년의 9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전체의 외채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며 주로 西歐銀行들로 부터

---

7) 노희목, 韓·東歐 經濟交流의 展望”, 1989. 8. 北韓經濟와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主題 論文. p.5.

도입한 商業借款이다.

東歐諸國의 외채가 이와 같이 증가된 것은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안고 있는 構造的 問題點을 解決하지 못한 조건위에서 外資導入에 의한 생산력 의 증대가 元利金 償還 負擔을 앞서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根本的으로는 社會主義 體制로 인한 經濟管理能力의 부족에서 유발 된 것이라 하겠다.

현재 東歐 國家들의 外債償還率(외채원리금 상환액÷수출액)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87년의 경우 헝가리는 47%, 폴란드는 71%로서 일반적으로 信用이 있는 國家들의 外債 償還率 25%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 임을 알 수 있다.

〈表 1-1〉 東歐의 外債 現況

(단위 : 억달러)

구 분	1974	1987	1988 (잠정)
불 가 리 아	17	63	73
체 코	11	54	57
동 독	36	199	200
헝 가 리	23	177	168
폴 란 드	49	393	373
루 마 니 아	24	60	40
동구6개국합계	160	946	911

자료 :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동구 국가들은 대부분 消費財 不足과 인플레이, 외채 증가 등 그들의 내 부 경제사정으로 인해 開放化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외채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는 東歐諸國이 1970년대 이후 合作 投資에 관한 法과 製圖를 꾸준히 정비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동구 국가들의 合作 投資에 관한 法律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 기업에 대한 國內 合作 投資 許容分野를 크게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最近 폴란드가 서방측에 經濟協力과 支援을 希望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合作 投資 이외에도 企業經營 支援 및 訓練은 물론 環境分野에 관한 事業도 포함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이미 國交를 樹立한 헝가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合作 誘致를 희망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 공작 기계, 농업과 식품가공 및 목재가공 기계, 일반기계 부품, 포장재 원료 및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전기·통신 서비스, 유전공학, 생명공학, 관광 시설물 건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一部 東歐國家의 경우는 技術水準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많으며 외형적인 국민소득 수준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많으므로 東歐諸國 모두가 모든 分野에서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一方的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長期的으로는 相互 보완적인 關係로 발전될 수 있다.

韓半島 統一여건의 改善이란 측면에서의 對東歐諸國 經濟協力 問題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對韓關係 發展을 늦추고 있는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기 위한 中間過程으로서 중요한 意義를 갖고 있다. 특히 이들 國家가 대부분 국내 政治改革을 급속히 推進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과거와는 달리 북한과의 理念的 紐帶關係 역시 크게 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經濟交流·協力증진은 쉽게 外交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서 우리의 主導的 統一環境 改善에 지대한 影

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第 2 節 美國과 日本의 立場

### (1) 基本的 立場

미국과 일본 등 우리의 傳統 友邦國家들은 최근 한국이 積極的으로 推進해오고 있는 北方政策에 대해 公式的으로는 지지를 表明하고 있다.

그러나 美·日의 東北亞 戰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對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接近政策이 그들의 國益에 반드시 利害가 일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對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對中·蘇關係의 발전은 이들 국가에 대한 美·日의 政策이나 戰略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을 희망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立場으로 될 수 밖에 없다.

天安門 事件 이후 西方諸國의 반응이 비록 그것이 短期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반응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를 立證할 수 있는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련은 그들의 대내 經濟事情의 惡化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어 西方의 協力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을 제외한 西方國家 특히 美國이나 日本은 사실상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注目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推進하고 있는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經濟協力과 北方政策은 美·日·中·蘇의 極東戰略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력이 중국의 經濟 建設이나 소련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에 결정적

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韓國이 이미 세계 10大 貿易國家라는 점을 고려하면 韓國의 對中·蘇 經濟交流·協力の 強化는 美·日의 立場에서 볼 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韓國의 北方政策이나 對社會主義 經濟交流·協力에 대한 美·日의 立場은 公式적으로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兩面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美國의 입장

1980年代 後半 蘇聯의 고르바초프 體制가 登場한 이후 美·蘇간에 INF 廢棄協定 체결을 바탕으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新데탕트時代로 進入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동북아시아에서의 中·蘇和解 그리고 蘇聯의 對日本 關係改善 努力 등 蘇聯 主導的 和解 움직임에 대해 이것은 蘇聯의 極東軍事力を 背景으로 亞·太地域 國家에 대한 影響力を 擴張하기 위해 積極적으로 太平洋 進出政策을 펴고 있는 전략으로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 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既得權과 利益에 대한 직접적인 威脅要因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盧泰愚 大統領이 한반도 및 東北亞地域의 平和와 繁榮을 겨냥하여 제기한 東北亞 平和 協商會議 構想에 대해서도 일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9年 2月 16日 부시 大統領의 訪韓을 앞둔 記者會見에서 클라크 副次官補는

“盧泰愚 大統領의 提議는 긴장완화를 위해 關聯 6個國이 韓半島 問題를 協議하자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그러나 平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한 提議는 더 이상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美國의 立場은 同 提議가 韓半島 緊張 緩和를 위해 합의한다면 그 어떤 제안이라

도 檢討할 容의가 있다”고 밝혔다.<sup>8)</sup>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1989年 2月 25日 訪韓을 앞둔 書面 인터뷰를 통해 盧泰愚 大統領의 6者 會談 構想은 『創意的이고 前向的인 提議』라고 논평하면서도 이러한 會議은 충분한 준비와 參加國들의 協調를 필요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그 實現이 時機尙早임을 示唆하였다.<sup>9)</sup>

美 行政部의 이러한 발언은 韓半島 주변 4강과 南北韓 關係에 대한 韓國政府의 이니시아티브가 자칫하면 蘇聯의 이 地域에 대한 影響力 強化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協力에 대한 美國의 입장도 우선 韓·美 經濟懸案問題와 관련하여 檢討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미국이 對韓 經濟政策은 根本的으로 美國의 財政 및 貿易赤字와 韓國의 對美 貿易黑字에서부터 出發하고 있다.

〈表 1-2〉 韓·美 貿易 收支

(單位: 억불)

區 分	1985	1986	1987	1988
美 國 的 財 政 赤 字	2,132	2,207	1,504	1,551
美 國 的 貿 易 赤 字	1,336	1,561	1,721	1,373
韓 國 的 對 美 黑 字	43	73	96	86

資料: 經濟企劃院

1988年度 美國의 財政事情은 年間 총1,551억불의 赤字를 記錄하였고 貿易

8) 金國振,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具現 方案, 1986. 6. 東北亞 平和와 安保에 관한 學術會議 論文. p.6.

9) 前掲書. p.6.

收支 赤字 역시 1,373억불을 기록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韓·美 貿易現況은 韓國이 86억불의 對美 黑字를 나타내었을 뿐만아니라 1982年 韓國이 對美 貿易黑字를 記錄한 이래 매년 黑字幅은 확대되어 왔다.

1988年 韓國의 對美 貿易黑字가 같은 해 美國의 貿易赤字 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貿易規模는 美國의 무역대상국 중 프랑스와 이태리에 앞서는 7위로 부상 하였다. 그러므로 韓·美 經濟關係는 美國의 國益에 매우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美國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 韓國經濟가 이러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駐韓美軍의 주둔에 의한 安保費用을 美國이 부담해 왔음은 물론 美國의 지원과 韓·美間의 긴밀한 經濟協力 結果에서 기인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최근 그들이 겪고 있는 財政赤字나 貿易收支 赤字를 改善하는 데 韓國의 보다 積極的으로 기여해 줄 것을 希望하고 있다.

그러므로 美國은 韓國이 蘇聯을 비롯한 對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經濟協力を 推進하기에 앞서 駐韓 美軍이 支出하는 동북아시아의 防衛費 分擔을 증대시키거나 對美 市場의 開放을 통해 美國의 貿易收支를 改善하는 데 협력하는 努力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對共產圈 經濟協力を 통해 電子·通信 등 社會主義 國家에 移轉 될 때에는 東北亞의 安保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協력에 대한 美國의 立場은 對象 地域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對 中·蘇 經濟協력에 대해서는 東北亞의 軍事 및 安保戰略上 否定的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日本의 입장

日本은 軍事戰略的인 側面에서는 한반도 問題에 덜 關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政治的, 經濟的 側面에서는 이른바 『2개의 韓國政策』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日本이 추구하고 있는 對外政策의 기본목표를 보면 첫째, 日本은 世界情勢에 順응하면서 政治的 役割을 증대하는 일, 둘째, 國際體制의 유지와 運營에 대하여서는 다른 先進工業國과 함께 그 費用을 분담하는 동시에 새로운 資本供與國으로서의 視角을 갖는 것이며 셋째, 安全保障에 있어서는 自助의 努力을 強化하는 길로 나가면서 極東에 있어서의 平和 維持에 기여하는 것을 現實的인 목표로 삼고 있다.<sup>10)</sup> 오늘날 日本의 外交政策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經濟關係를 통해 平和와 安定에 기여하는 일이다.

韓國이 推進하고 있는 北方政策에 대해서 日本 政府는 이에 協調할 用意가 있다는 것이 公式 立場이다. 日本 우노 外相의 1988年 10月 19日 盧泰愚大統領의 東北亞 平和協議會 構想 提議와 關連, “6者 會談을 위해 韓半島 關係國들과 긴밀한 連絡, 協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貢獻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다케시다 前 首相도 今年 1月 議會에서 행한 施政演說에서 “日本政府가 韓國이 推進하는 外交政策에 協調할 用意가 있다”고 밝혔다.<sup>11)</sup>

韓國의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協力에 대한 日本의 입장 역시 地域과 國家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日本 企業들은 매우 신중한

10) 尹正錫, “日本의 政策과 韓半島 統一”, 1987. 8. 제3회 在美學者招請 統一問題 學術會議 論文集, p.18.

11) 金國振,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具現 方案”, 1989. 6. 東北亞 平和와 安保에 關한 學術會議 論文, p.8.

姿勢를 보여 왔는데 특히 中·蘇에 대한 日本의 의도는 經濟力을 이용하여 中·蘇에 影響力을 行事하고자 하는 것이다. 日本과 蘇聯과의 關係에 있어서 日本은 2次 大戰 이후 蘇聯이 점령하고 있는 北方 4個 島嶼의 반환 문제와 關聯하여 對蘇 經濟協力問題를 그 戰略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적극적인 對蘇 經濟協力は 日本의 對蘇 協商카드의 效力을 減少시키는 결과를 招來하므로 日本의 國益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韓國의 對蘇 經濟協력과 關係協력과 關係改善은 美國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대한 蘇聯의 進出을 抑制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할 것이다.

韓國의 對東歐諸國 經濟協力 問題에 대해서는 日本은 우리와 競爭關係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今年 2月 韓國을 방문한 京都大學의 구다니 教授에 의하면 지금까지 日本은 동구제국에 대한 經濟進出에 다소 소홀한 態度를 취해 왔으나 韓國의 對헝가리 修交와 經濟進出 이후 日本 經濟系의 이 地域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日本은 韓國의 北方政策이나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進出에 대해서 肯定的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否定的인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第 3 章 對共產圈 經濟交流·協力이·統一與件 改善에 미칠 影響

한반도 統一은 民族 內部的 問題임과 同時에 國際問題로서의 性格이 강하다. 따라서 平和統一을 主導的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韓國 內부에 서의 統一力量이 蓄積되어야 하고 둘째, 南北間의 合意가 전제되어야 하며 셋째, 한반도 統一에 理解가 넓혀 있는 周邊 4強을 비롯한 國際社會의 協力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第1章에서 檢討한 바와 같다. 따라서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우리의 經濟進出 問題는 外交的인 側面과 軍事安保的 側面, 經濟的 側面 및 南北韓 關係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第 1 節 外交的 側面

우리의 統一政策은 우선 南北韓이 分斷의 現實과 南北韓의 實體를 相互 認定하는 데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주장은 韓國의 분단의 현실과 相互 實體를 認定하자는 것은 한반도 분단을 永久固着化 하자는 논리이고 우리의 統一問題를 外勢에 의존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姿勢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해 발표된 「7·7 大統領 特別 宣言」이나 北方政策의 기본 정신과 전략은 北韓을 國際社會에서 孤立化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北韓을 閉鎖된 社會로부터 開放化하여 國際社會에 責任있는 一員으로 끌어내기 위



한 것이다.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우리의 經濟協力 追求는 北韓을 除外한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에게 매우 肯定的인 反應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오히려 社會主義 諸國들은 韓國이 보다 積極的으로 經濟協力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第2章에서 檢討한 바와 같다.

따라서 蘇聯이나 中國은 韓國이 이들 國家에 대한 經濟協力 問題를 外交關係 樹立과 連繫시키고자 하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맞서 中·蘇는 韓國에 대해 政經分離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蘇聯이나 中國의 입장에서 볼 때 韓國과의 外交關係 樹立에 있어서는 그들의 同盟國인 北韓이 최대의 障礙要素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內面的으로는 北韓이 그들 國家에게 政治, 經濟, 社會의 모든 면에서 負擔을 주는 國家로 認識하고 있다.

天安門 事件 이후 中國은 強硬波의 得勢에 따라, 中國의 中央計劃經濟가 自由市場經濟에 빼앗긴 失地를 回復하고 左翼 性向의 黨書記들이 공장 經營자들의 權限을 다시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李鵬 國務院 總理는 各 鄉村 所在 工場들은 國營企業들의 부차적인 역할을 遂行해야 할 것이라고 強調 하므로써 지금까지 推進된 開放化의 趨勢가 다소 後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sup>12)</sup>

中國의 開放化가 後退할 경우 韓國의 對中國 投資나 貿易의 擴大는 불가피하게 制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中國에 대한 北韓의 입장이 強化되는 방향으로 影響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今年 10月 中國 政府樹立 40주년을 즈음하여 北韓은 다양한 記念 行事

---

12) 中國經濟日報, 1989. 9. 21.字 報道, 1989. 10. 12. 中國의 全國生產會議에서 행한 연설

를 개최함과 동시에 代表團을 中國에 派遣하고 中國과의 親善關係가 불변  
임을 強調하는 등 中國의 開放化 過程에서 나타난 韓·中國 접근 움직임  
에 제동을 걸기 위한 努力을 強化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西方國家들이 6·4 天安門 流血事態에 대한 抗議로 中國에 대한  
經濟制裁를 加함으로써 “中國은 최근 資金 不足, 에너지 輸送難 加重 등  
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李鵬 總理의 演說<sup>14)</sup> 로 미루어 볼 때,  
長期的으로는 韓國의 對中國 經濟協力이 韓·中 外交關係 樹立을 促進하는  
방향으로 作用할 可能性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對蘇聯 經濟協力は 韓·蘇 外交關係 樹立의 時期를 劃期的으로 단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今年 10月 19日 蘇聯 朝鮮工業部 次官 겐나디  
보로닌은 聯合通信 記者와의 會見에서 蘇聯은 빠른 시일 내에 韓國과 外  
交關係를 樹立할 것이라고 蘇聯 官僚로서는 처음으로 對韓 修交意思를 발  
한 바 있고 이 보다 앞서 蘇聯을 방문한 바 있는 鄭周永 現代그룹 名譽  
會長도 소련이 향후 6개월 내지 1年 안에 韓國과 國交를 열 것으로 본다  
고 전망한 바 있다.

蘇聯 官僚의 이러한 발언은 韓國의 造船所에서 이미 그들의 船舶을 수  
리하는 등 造船工業 分野에서 協력이 強化되어 왔다는 사실과 密接한 관  
계가 있으며 對蘇 經濟協력이 外交關係 改善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東歐諸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헝가리는 금년 2月 이미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고 폴란드 역시 11月 1日을 기해 韓國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13) 1989. 10. 10. 平壤方送 報道.

14) 李鵬總理 演說(1989. 10. 13. 聯合通信)

이상과 같이 韓國의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協力 強化는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外交關係 발전에 긍정적인 效果로 나타날 것임은 疑問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經濟가 社會主義 國家들이 要求하는 水準의 資本과 技術을 충분히 提供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은 향후 이들 國家와의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問題로 제기될 수 있다.

이미 東歐諸國이나 蘇聯, 中國 등의 共通的인 不滿은 이들 국가에 대한 韓國의 투자실적이 미약하고 지나치게 慎重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약 韓國이 이들 國家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韓國이 社會主義諸國의 積極的인 協力を 얻어내는 데는 限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우리 企業들은 西方企業들과 共同으로 이들 國家에 進出함으로써 社會主義 國家들의 전환기의 불안한 政治 狀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부담에 대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유 진영의 공동 안보 전략과 連繫되어 있어서 傳統 友邦國과의 긴밀한 協調를 必要로 할 것이다.

한편 韓國의 對社會主義諸國 經濟協力 및 北方政策의 強化는 서방제국의 對北 關係 改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 북경을 통해 북한 관리들과 4회에 걸쳐 접촉을 가진 사실이나 前 美 國務次官補 시거의 평양 방문, 前 蘇聯 外務次官 카피차의 한국 방문 등은 美·蘇의 남북한 교차 접촉이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이나 예상되는 외교관계의 변화는 韓國의 통일정책 기조에 부합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周邊 4強의 南北韓 交叉承認 實現이 한반도 統一時期를 반드시 앞당기는 方向으로 作用할 것

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北韓을 外交적으로 孤立시키는 것은 한반도 平和나 統一을 위해 도움이 되지 못하며, 周邊 4強의 交叉 承認은 한반도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肯定的인 방향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 第 2 節 軍事·安保的 側面

美國 해리티지 財團의 로즈 브룩스 아시아 問題 研究所長은 지난 10月 盧泰愚大統領의 訪美 頂上會談에 앞서 발표한 한 報告書에서 韓國이 對共產圈 關係 改善에 보다 慎重할 것을 促求한 바 있다.<sup>15)</sup> 同 報告書는

“韓國이 蘇聯을 비롯한 여러 共產國家들과 貿易 및 外交關係 樹立을 摸索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蘇聯이 아시아 自由 陳營 安保에 威脅을 가하는 한, 韓國과 다른 自由 陳營 國家들은 蘇聯 陳營에 投資하거나 借款을 擴大함으로써 蘇聯의 軍事力을 既定 事實化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여 주목되고 있다.

美國의 이러한 견해는 極東地域에서의 韓·美·日의 集團 安保的 側面에서 고려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蘇聯은 韓國과의 交流가 증진되고 있는 현실과는 별개로 北韓에 대해 Mig-29를 비롯한 最新 武器 供給을 증대시켜 왔음이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은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極東地域에서의 軍縮問題와 관련하여 蘇聯으로부터 보다 많은 讓步를 얻어내는 것이 必要하며, 蘇聯의 經濟問題가 어려울수록 美國은 對蘇 協商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성급한 對蘇 經濟協力 強化는 이러한 點에서 오히

15) 1989. 10. 6. 聯合通信 報道.

러 蘇聯의 입장을 強化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西方 諸國이 韓國으로 利轉해 준 先進技術이 韓·蘇 經濟協力を 통해 蘇聯으로 다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美國은 이미 그들이 韓國과 日本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여 개발한 武器가 外國으로 輸出되거나 輸出될 可能性에 대해 敏感한 반응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對社會主義諸國 經濟·協力は 단기적으로는 極東地域에서의 西方 軍事安保에 부정적인 影響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統一은 이러한 冷戰構造의 틀 속에서는 解決이 불가능한 問題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課題라 할 수 있다.

韓國의 對社會主義 諸國 經濟交流 協력이 이 地域에서의 軍事·安保의 側面에 미치는 影響은 美·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韓·美·日間の 보다 긴밀한 협력이 前提로 되어야 할 것이다.

### 第 3 節 經濟的 側面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經濟交流·協力は 韓國의 北方政策 推進을 위한 수단인 것과 동시에 韓國이 당면한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순수한 經濟的 目的으로 遂行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韓國의 經濟構造上 특징 중의 하나는 經濟의 對外依存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輸出入 貿易構造에 있어서도 특정한 국가들에 편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1988年 現在 韓國의 貿易依存度는 무려 66.5%에 달하고 있는데 地域別, 國家別 貿易構造를 보면 對美 貿易이 30.4%, 對日 貿易이 24.8%로 나타나 全體 貿易額의 55.2%가 美國과 日本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1-3〉 韓國의 對外貿易 現況

(單位: 億달러, %)

구 분	1980	1985	1986	1987	1988
수 출	175.0	302.8	347.1	472.8	607.0
수 입	222.9	311.4	315.8	412.0	518.1
무역총액	397.9	614.2	662.9	883.0	1,125.1
무역수지	-47.9	-8.6	31.3	60.8	88.9
G N P	603	837	951	1,186	1,692
무역 의존도	66.0	73.4	69.7	74.5	66.5

資料: 關稅廳, 韓國銀行

〈表 1-4〉 韓國의 地域別 貿易構造(1988)

(單位: 百萬弗, ( ) 내는 %)

	수 출 액	수 입 액	총 교역액	무역수지
아 시 아	22,915.4(37.8)	23,958.7(46.2)	46,874.1(41.7)	-1,043.3
( 일 본 )	22,004.1(19.8)	15,928.7(30.7)	27,933.0(24.8)	-3,924.8
구 주	9,657.1(15.9)	7,021.8(13.6)	16,678.9(14.8)	2,635.3
북 미 주	23,096.4(38.1)	13,953.5( 3.8)	37,049.9(32.9)	9,142.9
( 미 국 )	21,404.1(35.3)	12,756.7(24.6)	14,897.1(30.4)	8,647.4
중 남 미	1,601.4( 2.6)	1,444.0( 2.9)	3,045.4( 2.7)	157.4
대 양 주	1,120.2( 1.8)	2,173.8( 4.2)	3,294.0( 2.9)	-1,053.6
아 프 리 카 주	1,210.9( 2.0)	452.4( 0.9)	1,663.3( 1.5)	758.5
기 타	1,095.0( 1.8)	2,806.5( 5.4)	3,901.5( 3.5)	-1,711.5
합 계	60,696.4(100)	51,810.8(100)	112,507.2(100)	8,885.6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9를 利用하여 再作成

1987年 이후 韓·美間의 主要 懸案問題로 부각되어 상호 마찰요인이 되고 있는 원貨의 對美 달러貨 評價切上 壓力이나 韓國 市場의 對美 開放壓力, 各種商品의 輸入規制 措置, 駐韓 美軍의 軍事費 支出 分擔額의 增額 要求 등은 韓國의 對美 貿易黑字 持續과 黑字幅의 급격한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韓·美간의 深刻한 貿易 摩擦에도 불구하고 韓國이 이를 단기간 내에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과도한 對美 依存的 貿易構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美·日 등 傳統 友邦國家들과의 經濟的 摩擦을 解消하고 상호 對等한 協力關係를 유지하면서 韓國이 지금까지와 같은 高度成長을 持續해 나가기 위해서는 輸出入 市場의 多導化가 時急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蘇聯이나 中國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構造나 市場의 規模面에서 볼 때 원자재의 供給이나 最終製品의 販賣 등 韓國과의 相互 補完的 요소는 매우 크며, 특히 20世紀의 아시아, 太平洋 時代를 겨냥한 韓國의 海外市場으로서의 이들 國家가 가지고 있는 潛在力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이들 國家가 推進하고 있는 經濟開放과 改革 努力에 성공적으로 진전될 경우는 현재 美國이나 日本에 버금가는 有望한 市場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國家들과의 經濟交流·協力을 통해 얻을 수 있는 經濟的 利益은 韓國의 主導的 統一力量을 強化하는 데 直接的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經濟的 實利를 獲得하면서 統一의 對內外 與件을 改善할 수 있는 一石二鳥의 效果를 얻는 結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만, 現實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들이 希望하는 經濟協

력을 그 내용이나 規模 面에서 韓國이 이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力量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 第 4 節 南北韓 關係의 側面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經濟交流·協力이 南北韓 關係의 발전에 미칠 影響은 短期的으로는 否定的인 方向으로 나타날 것이나 長期的 觀點에서는 肯定的인 方向으로 作用할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外交政策의 基本 目標은 韓半島 共產化 統一을 위한 國際革命力量의 強化에 있다. 그러므로 北韓 外交는 政經一致의 原則下에서 첫째, 對共產圈 外交 둘째, 對第3世界 非同盟國 外交 셋째, 對西方外交의 순으로 優先順位를 부여해 왔다.

또한 최근의 國際情勢는 各國이 經濟的 實利를 우선적 目標로 추구하는 方向으로 外交政策이 變化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여전히 理念 指向的인 屬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半島에서 平和 統一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南北 當事者間에 진솔한 對話 및 協商의 분위기가 造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北韓이 追求하는 韓半島 赤化統一의 妄想을 拋棄시키는 길이 切要일 것이다.

韓國이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經濟協力を 強化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北韓을 軍事나 外交적으로 強力히 뒷받침해 오던 이들 國家와 外交關係를 발전시키게 될 경우, 北韓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國際革命力量은 그 기반이 와해됨으로써 赤化統一 전략의 포기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社會主義 國家들 역시 스스로의 經濟的 實利를 위해 韓國과 經濟



協力を 強化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南北韓 緊張 緩和는 물론 開放化의 길에 同參할 것을 보다 積極적으로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근 蘇聯이 東歐諸國에 대해 開放과 改革에 同參할 것을 慫恿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對社會主義 經濟交流·協力の 強化는 長期的인 側面에서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關係에서 現實的인 접근을 摸索하도록 間接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短期的으로는 北韓을 外交적으로 孤立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함으로써 南北韓 關係를 오히려 惡化시키는 方向으로 作用할 可能性이 크다. 특히 現在 南北間에 推進되고 있는 間接交易을 直交易으로 발전시키는 問題를 비롯한 經濟交流·協力の 推進을 위한 南北經濟會談 再開는 相當 期間 동안 期待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韓國의 對社會主義 關係 改善에 대한 反作用으로 北韓은 美國이나 日本과의 經濟協力과 關係改善에 積極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社會主義諸國과의 經濟交流·協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南北韓間에도 交流·協力の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이는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北韓 社會를 開放시킬 수 있는 가장 強力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當局間 合意에 의한 經濟交流·協력이 여의치 못할 경우 民間 次元에서의 經濟交流·協力を 먼저 시도해 보는 일도 바람직한 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第 4 章 要約 및 結論

韓半島 統一問題는 本質적으로 民族內部的 問題임과 동시에 分斷의 역사적 背景이나 韓半島의 地政學的 특수성에 緣由하여 國際問題로서의 性格이 강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른 分단국의 경우와 달리 國토 分단 이후 同族間에 치른 혹심한 戰爭으로 야기된 相互 不信과 精神的 被害意識으로 인해 南北韓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장이 첨예한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努力은 政治·軍事的인 접근으로 名分論爭을 展開하기 보다는 먼저 民族和解와 實利的 次元에서의 非政治的 交流와 協力을 통해 統一의 內的 環境을 造成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民族共同體 回復을 統一의 中間段階로 보는 이유도 이러한 現實的 與件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始終一貫 政治·軍事的인 統一接近 方案을 명분으로 내세워 赤化統一 妄想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韓半島의 統一은 지금까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打破하기 위해서는 北韓으로 하여금 統一問題의 本質을 認識하고 실질적인 통일접근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는 노력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외교적인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이 사회주의 제국에 대해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방정책 推進의 가장 效果的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북방정책은 統一을 위한 國際環境 改善에 先決的인 課題가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社會主義 諸國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本質的인 缺陷을 認識하고 改革과 開放을 통해 沈滯된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한 對變革期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理念보다는 實利를 選擇하여 西方國家의 資本과 技術協力を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立場에 있으므로 社會主義 諸國에 대한 經濟 交流·協力は 韓半島의 통일을 위한 國際環境 改善에 偉力있는 政策手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美·日 등 傳統 友邦諸國의 立場은 公式的으로는 韓國의 북방정책 및 對社會主義經濟 進出을 지지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으나 極東에서의 集團安保 戰略的 側面에서 內面的으로 이를 警戒하는 立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經濟的인 측면에서 볼 때 對社會主義經濟 進出은 輸出入 市場의 多變化를 통해 西方 先進國에 대한 經濟 依存度를 減少시키고 경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高度成長을 持續할 수 있는 輿件으로 作用할 것이다.

南北關係의 측면에서 볼 때 對社會主義經濟 進出은 北韓의 開放化를 促進하는 要因으로 作用함으로써 南北關係 改善이 肯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對社會主義諸國 經濟交流·協力の 追求는 韓國의 外交와 經濟的 自主性을 強化하고 北韓의 開放化를 促進시킴으로써 韓半島 統一의 內外的 環境을 改善하는 方向으로 肯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安保戰略的인 面에서는 否定的인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점 友邦國家들과의 긴밀한 協調가 前提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 第二部 南北韓 經濟協力を 통한 統一 接近

### 〈目 次〉

第 1 章 序 言 .....	45
第 2 章 北韓의 對外 開放化 政策 推移 .....	46
第 3 章 南北 經濟會談과 交易實績 .....	59
第 1 節 南北經濟會談 推移 .....	59
第 2 節 南北交流에 대한 政府의 基本 方針 .....	62
第 3 節 南北貿易 實績 .....	65
第 4 章 南北韓 經濟協力 有望 部門 .....	67
第 1 節 交易 有望 品目の 選定 .....	67
第 2 節 對北韓 搬出 有望 品目 .....	68
第 3 節 對北韓 搬入 有望 品目 .....	76
第 4 節 鑛山物의 共同 開發 .....	80
第 5 節 水産資源 部門의 協力 .....	82
第 6 節 觀光部門의 共同 開發 .....	84
第 5 章 北韓의 經濟改革과 開放 擴大 可能性 .....	85
第 1 節 經濟改革 .....	85
第 2 節 開放化 .....	89
第 3 節 改革과 開放化 展望 .....	93
第 6 章 南北韓 經濟協력을 위한 接近戰略 .....	96



## 第 1 章 序 言

一般的으로 未修交國家들間的 關係는 다음과 같이 段階化 할 수 있다.

第 1 段階 : 文化, 藝術, 體育을 통한 接觸, 交流段階

第 2 段階 : 第 3 國을 통해 商品을 交易하면서 점차 直接交易을 하는 段階

第 3 段階 : 政治的 關係正常化 段階

이러한 段階化 接近論에 立脚할 때, 南北韓間的 關係 正常化는 우선 經濟的 協力 關係의 改善·緊密化를 통해 政治的 關係正常化 또는 改善으로 進展된다면 이는 바로 統一로 向하는 經濟部門에서의 役割이라 할 수 있다.

이에 本章에서는 北韓의 經濟改革과 開放化 徵候와 推進을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南北韓間的 經濟協力 方案을 摸索하자 한다.

## 第 2 章 北韓의 對外 開放化 政策 推移

北韓은 對外 經濟政策에 대해

“제국주의 나라들은 겉으로는 상호간에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 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공작을 하며 협력과 협조를 표방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 김일성 著作選集 第3卷 418쪽에서 그 基本立場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金日成 著作選集 第4卷 574쪽에서는 對外貿易政策에 대해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맺어 대외무역을 발전시켜 나간다”

고 하여 一國 單位의 「아우타르키」 政策을 고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기본성격은 1975년에 金日成이 工業部門의 熱誠者大會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로 사회주의제국과의 무역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신생독립국과 자본주의제국과도 크게 무역을 해야 합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경제부문이 생기는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에 계속 의거하면서 자본주의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계와 설비를 수입해야 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對外經濟政策은 1971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



후에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경제의 對外關係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동안 추진한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期를 기점으로 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다.

6개년계획 이전까지의 북한의 對外經濟關係는 주로 中·蘇紛爭과 關聯한 社會主義國과의 關係로 규정될 수 있다. 1945年 解放以後부터 戰後復舊 3 個年計劃期까지는 北韓經濟는 소련에 一邊倒的으로 依存하는 政策을 推進하였다. 그후 1956年 2월에 열렸던 소련 共產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 소련 首相이 스탈린格下와 平和共存을 主唱한 것이 계기가 되어 中·蘇紛爭이 시작되고 1961年 11月 소련 共產黨 第22次 黨大會에서 알바니아 문제를 둘러싸고 中·蘇代表團이 격돌한 직후의 시기에서 북한의 對外經濟關係는 비교적 中立的인 태도를 취했다. 그후 북한경제는 1962년부터 1966年 8月 12日 自主路線을 宣言할 때까지 中·蘇 양국의 對立에서 中國과의 關係를 緊密히 하였다. 그 다음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소련과의 經濟關係를 긴밀히 하면서 中國과의 關係는 疏遠되다가 1970년부터는 中·蘇와 共히 等距離 關係를 맺어 왔다. 이와 같이 解放後 이 時期까지 北韓經濟의 對外關係는 社會主義圈의 範疇안에서 中·蘇와의 親交關係를 맺어 왔다.

그리고 이 時間중에서 1950年代까지는 對外 貿易을 自給自足的 經濟基盤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補助的 手段으로만 취급하였다. 그리고 貿易對象國도 社會主義國內 國家들에 限定시켰으며 그 協力の 內容도 대부분 소련과 中國으로 부터의 借款導入과 援助였다.

그러나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中·蘇紛爭의 여파로 이들 國家들로부터의 協力이 일시 中斷 또는 감축되면서 새로운 方案을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6個年計劃期부터 나타난 北韓經濟의 對外政策變化가

바로 그들이 講究한 새로운 變化였다. 이는 北韓經濟가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生産力을 높이고 内部指向的인 輸入代替政策을 펴므로서 自主的 民族經濟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온 종래 政策路線의 變貌하였다. 즉 北韓經濟는 韓國經濟의 비약적인 發展 특히 對外指向的 經濟成長戰略(outward-looking growth policy)을 통한 發展成果에 크게 자극받고 또한 7個年 計劃의 失敗로 인해 3年間 延長이란 調整期間동안 새로운 政策方向이 設定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고수해 온 “自立的 民族經濟”라는 經濟政策路線인 “主體思想”에 立脚한 指令型的 劃一的 經濟體制와 自足的 經濟政策 만으로는 그들의 目標達成이 不可能하게 되자 自立經濟原則을 公式的으로는 標榜하면서도 其實 實用主義的인 對外指向的 經濟政策으로 轉換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對外指向的 政策으로의 變化는 6개년 계획의 目標와도 그 脈을 같이 하고 있었다. 7個年計劃期間중에 생긴 不均衡問題를 시정하고 生産을 正常化하여 内部充實을 기할 것을 目標로 하였다. 이에 北韓經濟는 6개년 계획의 기본과제를 社會主義 經濟建設 分野에 있어서 工業化의 成果를 공고히 하고 技術革新을 새로운 段階로 進진시켜 社會主義 物質的 土台를 더욱 튼튼히 하며, 人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勞動者들을 힘든 勞動에서 해방하는데 두었다.<sup>1)</sup> 여기서 社會主義社會의 物質的, 技術的 土台란 社會主義 經濟가 기초하고 있는 生産의 物質的·技術的 手段들의 總體를 말하며 이것은 人的側面과 物的 側面을 포괄하는 生産力의 增大를 의미한다. 이는 곧 3大 技術革命을 뜻하는 것이다.

北韓經濟가 이러한 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한 政策이 바로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이었다. 이는 北韓經濟의 構造的 與件에서 보면 매

註 1) 金日成 著作選集 第5卷 p.447

우 適合한 政策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이러한 評價는 바라사教授(Bela Balassa)의 分析結果로서도 뒷받침 된다. 바라사教授의 分析에 의하면 韓國이나 自由中國과 같이 經濟規模가 크지 않은 國家들의 경우에는 對外指向的 經濟成長戰略을 채택함으로써 高度成長을 이룩한데 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의 경우는 1950年代에는 國內生産이 비교적 容易한 輕工業部門에서 輸入代替가 순조롭게 수행됨으로서 製造業 및 전체 經濟成長率이 높았지만 이러한 輸入代替의 容易한 段階(Easy Stage) 이후 高度의 技術製品, 中間財, 資本財 分野에서는 技術不足과 國內市場의 狹小로 國産代替가 지지부진하여 1960年代 이후부터는 經濟成長率이 相對적으로 鈍化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分析結果에 따르면 北韓經濟의 構造的 與件에서는 自給自足的인 經濟開發戰略 보다는 對外指向的 經濟開發戰略이 適切한 것이었다.

1960年度에 對西方貿易 比重이 3.7%였던 것이 1975년에 40.6%, 1980년에 45.2%로 대폭 늘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北韓經濟의 對外關係變化를 反映한 것이었다. 특히 北韓經濟는 1970년부터 西方先進國들로부터 積極적으

〈表 2-1〉 北韓의 對西方 貿易比重 推移

區 分	1960	1965	1970	1975	1980
西方圈	3.7	11.1	21.0	40.6	45.2
共產圈	96.3	88.9	79.0	59.4	54.8

資料: 國土統一院, IMF, JETRO

註) 西方圈에는 開發途上國들이 포함되어 있음

2) Bela Balassa, "Trade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1, March

로 借款을 導入하기 시작하여 1970년부터 1975년까지 導入한 對西方借款 導入額이 1,242百万달러로서 同期間중 共產圈에서 導入한 借款額 902百万달러에 비해 1.4배에 달했다는 것도 이러한 北韓의 종래 對外經濟政策에서의 대폭적인 變化였다.

〈表 2-2〉 北韓의 對西方 借款 導入 推移

期 間	合 計	共產圈	自由圈
1949~1969	2,043	2,043	-
1970	90	87	3
1971	267	250	17
1972	354	150	204
1973	484	109	375
1974	520	120	400
1975	429	186	243
1970~75年	2,144	902	1,242

資料：國土統一院，北韓經濟統計集，1986

北韓의 이러한 對外 經濟政策의 變化는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더욱 積極적이었다. 즉 北韓은 1980年 10월에 개최된 朝鮮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종래까지 추진하여 온 友好的인 資本主義 나라들과의 經濟關係 發展을 黨의 公式的인 方針으로 채택하고 또한 對外貿易規模도 1980年代 말까지 輸出을 4.2배나 증대시킬 것을 目標로 제시하였다.<sup>3)</sup> 또한 이러한 輸出目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對外貿易의 多邊化를 도모하며, 經濟 各部門에 걸쳐 輸

3) 「조선중앙연감」 1981, p.51

出을 生産하는데 우선을 두고 輸出商品 專門生産工場과 企業을 보다 많이 設置하는 한편 對外運送網을 強化하고 貿易港의 能力을 擴張하는 한편 信用 第一主義 政策을 貫徹하는 것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라고 강조했다.

北韓經濟가 이와같이 人民經濟發展 6個年計劃期 부터 西方先進國들로부터의 借款導入과 對外貿易擴大를 推進하였으나 그 結果는 外債累積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즉 日本, 西유럽 國家들로부터 계속 들어 온 資本設備은 北韓經濟에 外債累増만을 加速化 시켰다. 1970~1975年間 1,242百万달러의 借款을 西方先進國으로부터 導入하였는데 그뒤 利子償還 不履行 등으로 外債規模가 계속 증가하여 중국에는 北韓經濟가 對外債務 不履行國으로 烙印 찍혀 버렸다. 北韓經濟에 838百万달러의 債權을 가진 120個의 유럽銀行들은 1970年代 中盤부터 元金을 전혀 받지 못해 왔다. 그리고 1984年 부터는 利子마저 償還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이들 債權銀行國의 幹事役割을 하는 英國의 「모건 그렌펠 國際銀行」(Morgan Grenfell International Bank) 과 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銀行(ANZ Bank)이 1986年末에 비엔나에서 北韓當局과 元利金償還協商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다음 회담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결렬되어 버렸다.<sup>4)</sup> 이에 이들 債權團 銀行들은 西方에 있는 北韓의 資産을 凍結시키는 問題를 舉論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은 北韓으로부터의 債權償還이 어렵게 되자 이를 損費로 處理하기로 方針을 세웠다.<sup>5)</sup>

이처럼 北韓經濟의 外資導入을 통한 開發戰略(Foreign Capital Approach)은 北韓의 年間輸出規模(1987年 基準) 16.7억 달러에 비해 3배 이

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7 December, 1987, p.10

5) 日本經濟新聞, 1987. 3. 24

上 그리고 年間 GNP의 27%에 해당하는 52.1억 달러의 外債殘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北韓經濟가 内部的인 經濟體制의 改革을 통한 外資受容能力 (Absorptive Capacity of Foreign Capital)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서의 政策轉換이었다는 점에서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外資에 대한 受容能力이 결여되어 있는 북한 경제로서는 당연한 歸結이었다. 글하티(Ravi I. Gulhati)는 한 나라의 外資受容能力을 그 나라 自然資源에 비례하는 知識水準과 專門家, 經營者, 그리고 準熟練勞動者의 確保數 및 이들을 利用 및 稼動할 수 있는 經濟體制·投資計劃에 대한 國內均衡狀態, 政策樹立家의 開發計劃에 대한 決定能力 등으로 지적한 바 있는데<sup>6)</sup> 經濟改革을 斷行하지 않은 北韓經濟는 바로 이러한 條件들을 갖추지 못한 狀態에서 西方資本과 플랜트를 導入한 것이 바로 그 失敗의 構造的 原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對外負債累積과 國際信用의 下落到 따른 對西方 借款導入이 中斷되자 北韓은 第2次 7個年計劃을 추진하면서 向後 一部 先進技術은 導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外資導入 없이 同計劃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에 1983년에 金日成은 한 演說에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對外經濟協力 導入에 대해 批判的인 態度를 다시 표명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는 北韓經濟에 있어서 能動的인 政策의 復歸가 아니라 對外信用 墜落到 따른 對外經濟協力導入에 부진한데서 나온 不可避한 結果였다고 하겠다.

---

6) Ravi I. Gulhati, "The Need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ve Capacity and Debt Serving Capacity", paper for I.E.A Conference on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1965.

7) 「조선중앙연감」, 1984, p.71.

平壤에서 活動하는 唯一한 國際援助機構인 유엔開發計劃(UN Development Program)의 最近 報告書에서 지난 10年間 北韓의 工場設備 老朽化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生産은 沈滯狀態에 있고, 基本建設部間的 發展은 外國의 先進技術을 導入하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狀態에 있을 뿐만 아니라 生産性과 生産物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도 先進技術導入은 필수적이라고 強調하였듯이<sup>8)</sup> 北韓經濟의 構造的 與件에서는 先進國으로부터의 資本과 先進技術의 導入은 不可避한 狀態에 있다.

단지 元金과 利子를 償還해야 하는 借款 導入의 結果 생기는 負擔 問題를 回避할 수 있는 合作投資를 통한 外資·技術 誘致方法으로 그들의 戰略을 轉換시키는 데서 北韓經濟는 解決策을 講究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引用한 金日成의 演說內容인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예측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라고 한 것은 西方資本과 技術導入 中斷에 따른 糊塗的인 發言이었지 결코 北韓經濟의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根本的인 政策의 變化는 아니었다.

1984年 9月8日에 公布된 合營法이 바로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즉 소련과 中國으로부터의 經濟支援이 줄어들고 償還不能에 따른 西方先進國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이 中斷된 狀況에서 추진한 不可避한 次善策이었다. 1982年 9월에 金日成이 그리고 1986年 6월에 金正日이 그리고 1983年 8월에 姜成山 當時 政務院總理를 비롯하여 그외에는 北韓의 많은 關係者들이 中國의 經濟特區를 訪門하여 새로운 經濟協力 方式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4年 5月과 6월에 金日成이 直接 소련과 동구제국을 순방한 것은 北韓經濟가 合作投資方式을 통한 經濟協力方式을 具體化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

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 December, 1987, p.38

中國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事例를 導入했다고 볼 수 있는 北韓의 合營法은 全文 5章 26條로 구성되어 있는데 合營의 主要 對象業種은 電子 및 自動車, 金屬, 機械, 化學, 食品加工, 被服加工, 日用品製造業, 建設, 運輸, 觀光業, 기타 필요한 業種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資本金의 規模 및 出資比率에 대해서는 制限을 두지 않고 있지만, 中國의 경우와는 달리 經濟開放區는 설치 않는 것으로 하였다. 또 合營會社의 最高議決機關을 理事會로 하고 모든 것은 合營當事者의 合意로 決定하도록 하였다. 勞動者의 경우는 勞動行政機關을 통하여 雇傭 또는 解雇되며 賃金은 合營當事者가 정하도록 하였다. 合營當事者의 利益 送金에 대해서는 自由를 보장해 주고 所得稅는 純所得의 25%인데 減免制度도 두었다.

그후 1985年 3월에 이 合營法의 補完을 위한 後續措置로 合營法 實施와 관련된 施行細則과 外國人 所得稅法을 公布하여 合營法의 未備點들을 補完하였다. 그 內容은 出資比率은 合營當事者 相互間의 合意에 의하도록 했으나 100% 外國人投資는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合營會社의 運營期間을 5年으로 하고 延長이 可能토록 했다. 또 合作投資를 위한 商品輸入은 關稅를 免除하고 法人所得稅에서 會社設立後 3年間 免除하고 利潤이 적을 경우에는 2年 이후라도 免稅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補完하였다. 그 이후 1988年 11月 26日에는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設置함으로써 合作投資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法的,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先進國의 資本이나 技術들이 合作先인 開發途上國에 進出하는 것은 進出對象國의 市場을 노리거나(Market Oriented Motive) 또는 그 나라에서 生産되는 資源을 노리거나(Resources Oriented Motive) 또는 그 나라의 값싼 勞動力을 利用하려는 動機(Cost Oriented Motive)에서 이다. 그리고 또한 一般的으로 東西間의 經濟交流過程이 그러했고 또



한 우리나라와 같은 分斷狀態에 있는 東西獨間의 交流過程이 그러했듯이 初期段階에는 間接交易 過程을 거쳐 直接的 段階로 이행하는 가운데 信賴性을 構築한 후에 合作事業을 추진하는 것이 先驗的인 事例였다.

以上の 두가지 一般的인 貫行에 비추어 보면 北韓經濟가 最近에 추진하고 있는 對西方 合作事業 推進 接近은 매우 異例的인 것이었다.

北韓經濟가 合營法을 發表하기 이전인 1984年 1月부터 合作投資 誘致를 위한 對外交渉을 추진하여 日本, 佛蘭西, 西獨, 香港 등 西方 10餘個國의 企業들과 約100餘件의 商談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確認된 誘致實績이 中·蘇를 포함하여 53件 정도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나마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經濟가 力點을 두어 誘致하려고 意圖했던 電子工業을 비롯한 尖端産業部門에서는 誘致實績이 거의 全無한 狀態이다.

#### (樂園 百化店)

合 作 先: 朝日商社 및 류코商社(日本)

投 資 規 模: 未詳

投 資 比 率: 50:50

投 資 地 域: 本社(平壤), 남포, 元山 등 31個 地域에 支店 및 分店 設置豫定

取 扱 品 目: 衣類, 家具, 藥品, 工藝品, 日用品, 食料品 등

賣 場 規 模: 2,800㎡

事業開始日: 1985. 2. 18

(羊角島 國際 Hotel)

合作先: Bernard Campenon 建設會社(佛蘭西)

投資規模: 12,800萬달리(借款形式的投資)

投資比率: 50:50

投資地域: 平壤

事業內容: 觀光 Hotel(46層, 879個의 客室)

工事開始日: 1985. 2. 26

(蒼光 커피店)

合作先: 在日朝總聯系 僑胞商工人

投資規模: 未詳

投資比率: 50:50

投資地域: 平壤市內 蒼光山 Hotel

合營期間: 5年(5年 單位로 再契約 可能)

賣場規模: 90개 客席, 24人用 團體客室

事業開始日: 1985. 4. 15

(大同江 自動車組合 修理工場)

合作先: 在日 朝總聯系 大同自動車組合

投資規模: 未詳

投資比率: 50:50

投資地域: 平壤

事業內容: 各種 自動車 및 重機械修理, 一部 附屬品 生産

工場面積: 66,000m<sup>2</sup>

事業開始日: 1985. 4. 17

(金萬有 病院)

合 作 先 : 日本의 西新井病院

投 資 規 模 : 未詳

投 資 比 率 : 北韓側(土地, 建物)

日本側(醫療機器와 技術)

事業開始日 : 1986. 4

(운산 金鑛開發)

合 作 先 : 在日 朝總聯

投 資 規 模 : 500億円

事 業 內 容 : 閉鑛狀態의 金鑛 再開發

事業開始日 : 1987. 4. 3

(平壤 골프장)

合 作 先 : 在日 朝總聯系

事 業 內 容 : 골프장 建設(敷地總面積 30万坪, 18홀)

竣 工 日 : 1987. 4. 20

(印刷回路 機械設備 工事)

合 作 先 : 王氏港建設株式會社(香港)

投 資 規 模 : 300万달러

事 業 內 容 : 印刷回路機械設備 工場

契 約 日 : 1987. 6

또한 誘致先을 보면 在日朝總聯系 資本과의 合作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外資의 受容能力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北韓經濟의 與件에서는 一次

的으로 在日 朝總聯系 同胞資本 誘致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6年 8월에 朝總聯과 朝總聯系 資本의 對北韓 投資 및 情報 交換, 契約締結 등 合作事業에 관한 業務를 總括하는 國際合營總會社를 設立한 것도 이러한데 連유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北韓經濟는 1988年 12월에 合營工業部를 政務院 附屬機關으로 新設하여 進一步된 對外經濟協力體制를 갖추는 한편 政務院 傘下에 觀光總局을 新設하여 觀光開發을 통한 外貨獲得에도 새로운 進路를 찾고 있다.

### 第 3 章 南北經濟會談과 交易實績

#### 第 1 節 南北經濟會談 推移

北韓의 이러한 開放化 過程속에서 1984年 11月 15日 南北韓間에 經濟交流을 위한 會談이 本格的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長期間의 期間이 所要되었다. 즉 1971年 8月12日에 大韓赤十字社側이 이산 가족찾기 運動을 提議하여 同年 8月20日 北韓側이 이에 응해 온 이래 1984年 10月 10日 南北物資交換과 經濟協力을 實現하기 위한 南北經濟會談을 제의하여 南北經濟會談이 實現되기까지 주로 赤十字會談이 그 基盤을 마련하는데 主導的 役割을 했지만 其實 그동안 몇번에 걸친 對北 經濟提議가 있었다. 이를테면 1977年 1月 12日에 對北 食糧無償援助를 제의했고 1978年 6月23日에는 南北韓 交易과 資本協力を 위한 民間經濟協力機構를 構成함과 동시에 閣僚會談을 그리고 1982年 2月 1日에는 雪嶽山, 金剛山地域을 自由觀光地域으로 開發하고 또한 南北自由漁撈地域을 設定하고 自然資源을 共同으로 開發하고 利用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1984年 11月 15日 판문점에서 열린 南北韓 經濟會談은 이러한 過程을 고려하면 韓國側의 長期間에 걸친 지속적인 努力의 結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會談에서 韓國側은 매우 具體的인 交流案을 제시하였다. 우선 韓國側이 北韓으로부터 購入하기를 希望하는 品目으로 無煙炭, 鐵鑛石, 銑鉄, 鉛塊, 亞鉛塊, 硅砂, 古鐵, 명태, 누에고치, 팥, 옥수수, 피마자를 비롯한 農産物, 기타 漢藥材를 제시했다.

그리고 韓國側이 販賣possible한 品目으로 鐵鋼 및 同製品, 銅 및 同製品,

알루미늄製品, 家庭用 및 工業用 裁縫機, 耕耘機, 乘用車, 二輪車 등 機械類, 時計, 天然色텔레비전, 音響機器 등의 電氣製品, 電子製品, 纖維糸, 纖維原料, 纖維織物, 담요 등 纖維類, 고무벨트, 피아노, 黃酸, 커피錠劑, 錠劑그로세린 및 醫藥品을 제시하였다.

去來方式은 第3國銀行이 發行한 L/C에 의해 去來를 하며 去來價格은 國際價格을 基準으로 하며 決濟通貨는 달러貨, 마르크貨, 円貨, 파운드貨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외에도 共同漁撈 등의 事業, 合作投資, 技術協力 등에 대한 具體的인 案과 南北韓經濟協力委員會를 設置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한편 北韓側은 販賣希望品目으로 鐵鑛石, 石炭, 마그네샤크링카, 一般工作機械, 採取設備, 명태, 쌀, 강냉이 등을 비롯한 農水産物을 제시했고 購入希望品目으로 鑛鋼材, 重石鑛, 납사, 纖維, 南海魚族, 소금, 감귤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去來方式으로 物物交換을 제시했다. 또한 地下資源, 漁業, 農業分野 등에서의 合作을 제시했고 南北韓經濟協力委員會 設置를 제의했다.

이 會談에서 南北 兩側이 提示한 案중에서 共通된 案들로는 韓國側이 購入하기를 希望하고 北韓側이 販賣할 것을 希望한 品目으로 無煉炭, 鐵鑛石, 마그네샤크링카, 옥수수, 명태가 있었으며 韓國側이 販賣하기를 希望하고 北韓側이 購入하기를 希望한 品目으로는 鑛鋼材와 纖維가 있었다. 그의에도 自然資源의 開發協力, 南北韓 共同漁撈地域의 設定, 南北韓鐵道の 連結(京義線), 南北經濟協力委員會의 設置 등의 제의가 共通的인 案이었다. 이와같이 第1次 南北經濟會談에서는 兩側이 提示한 案중에서 一部 共通點을 찾을 수 있었던데 그치고 具體的인 成果는 맺지 못하고 第2次 會談을 1984年 12月 5日에 열 것을 合意하였다. 그후 소련靑年의 亡命事件과

「팀스피리트」訓練을 理由로 한 北韓側의 延期때문에 1985年 5月 17日에 야 第2次 會談이 열렸다. 이 會談에서 韓國側은 第1次 會談때 相互 提案한 交易 希望品目中 意見이 一致된 品目에 대한 交易을 비롯한 經濟協力과 交流에 대해 具體적으로 實踐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北韓은 副總理級으로 한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 후 1985年 6月 20日에 열린 第3次 會談에서는 韓國側이 2次會談때 北韓側에서 提案한 것을 包含·受容하고 실제로 交易을 實行할 수 있도록 南北間 物資交易 및 經濟協力 推進과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 設置에 관한 合意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提意에 대해 北韓側이 原則적으로는 合意하면서도 第2次會談 때의 立場을 고수하였다. 즉 韓國側은 物資交易과 經濟協力에 관한 共通意見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비해 北韓側은 槓構만을 設置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1985年 9月 18日에 열린 第4次會談에서 南北間 經濟交流 및 經濟協力 推進과 副總理級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合意書를 採擇하기로 원칙적으로 合意한 것을 내세워 이를 實現하자고 제의했으나 北韓側은 이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兩側의 立場만 開陳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1985年 11月 20日에 열린 第5次會談에서는 第4次 會談 때 兩側이 내놓은 合意書案을 놓고 討議했으나 아무런 成果없이 끝나고 말았다. 北韓側은 韓國側이 兩側이 提示한 共通交流希望品目を 合意書에 열자고 했으며 또한 30万屯의 無煉炭과 鐵鋼材를 서로 交換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拒否하였다. 다만 1986年 1月 22日에 第6次會談을 열기로 한데만 合意했으나 北韓側은 「팀스피리트」訓練을 이유로 내세워 이 會談이 中斷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進行된 經濟會談이 이렇게 中斷되고 있지만 이 過程에서

몇가지 事實이 發見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南北韓間에 提案한 內容중에서 經濟交流方法이나 協力에 대한 方法에 대해서는 意見차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들은 兩側의 努力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克服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事實이다. 이는 兩側이 提案한 案들에서 상당한 共通點들이 있었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또 다른 事實은 南韓側은 經濟會談을 實質化시켜 經濟交流를 實踐시키려는데 반해서 北韓側은 이를 統一의 政治的 側面과 지나치게 連結시키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南韓側은 계속 양보를 해가면서 實質的인 經濟交流를 추진하려 한데 비해 北韓側은 最初의 立場을 固守하면서 實質的인 交流를 기피해 왔다는 점이다.

## 第 2 節 南北交流에 대한 政府의 基本 方針

한편 政府는 1988年 7月 7日 大統領 特別宣言으로 對北韓認識의 轉換이 必要함을 強調하여 ①南北間 交易을 民族內部 交易으로 看做하며 ②南北 모든 同胞의 삶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民族經濟의 均衡的 發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非軍事的 物資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友邦들이 北韓과 交易하는데 대해 反對하지 않는다는 뜻을 表明하였다.

이러한 7·7宣言은 올림픽 開催와 國力の 伸張, 國際的 地位 向上에 따른 積極的인 對北統一政策의 推進力을 確保하고 아시아·太平洋 主要國家를 향한 民族의 自尊을 高調시키고 소련, 中國, 東歐圈의 改革, 開放政策에 따른 共產圈 國家들의 開放化물결이 閉鎖的인 北韓에도 波及되도록 하는 契機를 造成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더불어 北韓에 비해 經濟的인 面에서 優位를 確保함에 따라 對北韓競爭과 對決外交政策이 無意味하게 되고



韓半島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하여 孤立的인 北韓을 國際社會로 이끌어내는 積極적인 外交를 推進하는 것이 民族的 利益에 부합한다는데 그 推進背景이 있다.

이 7·7宣言의 特徵은 南北韓間의 交易의 門戶를 開放하고 南北交易을 民族交易으로 간주한다는 政府의 基本方針을 闡明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南北間의 交易은 現實的으로 實現可能한 것부터 段階的으로 推進하여 直接交易 및 協力の 擴大로 發展케 하기 위해서 우선 民間商社의 機能을 活用하여 間接交易과 直接交易의 方法을 開發하므로써 南北間의 直接對話 및 交易擴大를 위한 基盤을 造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民間商社가 軍需物資를 제외한 北韓物資에 대해서는 交易을 許容하며 ②民間商社가 北韓物資에 대해 中繼貿易을 하는 것을 許容하며 ③北韓物資를 國內에 搬入할 때, 原產地 商標表示를 부착하는 것을 許容하며 ④間接交易에 의해 韓國으로 直接 引導되거나 단순히 第3國을 경유한 北韓 原產地 物資는 內國間去來로 看做하여 關稅를 賦課하지 않으며 ⑤南北經濟人이 相互 接觸하고 訪問하는 것을 許容하며 ⑥北韓船籍의 船舶이 南北韓 또는 第3國의 交易物資를 싣고 國內에 入港할 경우 許容하며 法的·制度的 裝置가 마련될 때까지 南北韓間의 間接交易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南北經濟交流에 관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推進經過를 보면 1988年 10月 7日 南北韓間 物資 및 經濟人 相互 交流를 許容하는 對北韓 經濟開放措置를 했으며 1988年 10月 18日에는 對外貿易管理規定과 輸出入 別途公告를 改正하여 南北物資交易에 대한 指針을 制定하여 施行하였다. 그리고 1988年 12月 15日에는 南北韓 經濟人의 相互 訪問 및 接觸 節次를 마련하여 南北經濟人 相互交流制度를

制定·施行하였다.

이에 대한 具體的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物資交流 運營制度를 보면 첫째, 物資 搬入·搬出 承認은 對外貿易法에 의해 貿易業 許可를 받은 者로 했다. 둘째, 搬出入 承認節次는 對北韓으로부터 物資를 搬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入 承認 機關의 長에게 申請해야 하도록 했다. 그리고 承認 機關의 長은 輸出入 承認書上에 “對北韓 交易 對象物品”임을 確認해야 하며, 輸出入 承認機關은 輸出入 承認事項을 즉시 報告해야 하도록 했다. 셋째, 搬出入 承認 檢討基準으로 防衛産業物資, 軍需物資, 戰略物資 등 軍事物資는 承認 不許하며, 農水産物, 鑛産物 등 農漁民 및 鑛山勤勞者에 被害를 줄 우려가 있는 品目은 所管部處와 協議하여 決定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림, 書籍 등 反體制 性向을 띤 物品의 搬入 여부는 文公部 등 關聯部處에서 事前에 檢討하게 된다. 이러한 品目 以外の 경우에는 7·7宣言과 10·7南北韓 經濟交流 特別措置 精神에 立脚하여 南北韓間의 實質的인 利益이 되고 北韓側이 必要에 의해 開放을 加速化할 수 있도록 多樣的 窓口를 통해 많은 交易實現을 誘導하도록 하였다. 넷째 物品이 第3國을 單純히 經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移動할 때 國內港口間에 物品이 移動하는 것으로 看做하여 防衛稅와 關稅를 賦課치 않도록 했다.

또한 經濟人들이 相互 交流하는데 대한 制度를 마련하여 첫째, 經濟人이 北韓을 訪問하고자 할 때에는 訪問 3日前에 商工部에 申告하면 關係部處間的 協議를 거쳐 申告畢證을 交付해 주게 했다. 그리고 外國에서 北韓人을 接觸할 때에는 海外公館에 申告하면 該當 公館長은 本部에 申告하고 다음 關係部處의 協議를 거쳐 該當 公館에 通報하도록 했다. 이 경우 미리 計劃된 接觸은 商工部에 申告토록 되어 있다. 한편 北韓의 經濟關係者

를 招請하고자 할 경우에는 招請 3週前에 商工部에 申告하면 關係部處 協議를 거쳐 申告畢證을 交付하고 다음 被招請者에 대한 訪韓 申請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物資 交流 및 人的 交流를 통한 經濟交流를 推進하기 위한 推進體를 構成하였는데 첫째 南北交易 推進對策班을 構成하여 그 委員長으로 商工部 第一次官補를 補하고 委員으로는 關聯部處 局長과 關聯機關 專門家로 構成하여 輸出入 制限品目的 搬出入에 대한 承認·許容, 交易上の 隘路 打開 및 關聯對策을 推進하는 것을 그 機能으로 하고 있다. 둘째로는 商工部 商易局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靑瓦臺, 商工部 등 關係部處 課長級으로 構成된 南北交易推進實務會議을 設置하여 南北交易 運營事項에 대한 相互 意見 交換, 情報 交易 그리고 現實의으로 提起되는 實務事項에 대한 討議를 그 機能으로 하고 있다.

### 第 3 節 南北 貿易 實績

우선 南北韓間에 이루어진 物資交流 實績을 보면, 1989年 2月末 현재 商工부가 承認 또는 商工部에 輸入(搬入)을 申請한 額數가 56,820千弗이었다. 그리고 外換銀行에 搬入承認을 받은 額數는 2,443千弗이다. 즉 지금까지 北韓으로부터의 物資搬入을 申請 또는 承認 받은 業體數는 25個業體였고 額數로는 95,263千弗이다.

한편 우리나라 物資를 北韓에 搬出한 實績은 成人用 잠바 5,000벌(68.6千弗)과 水産物의 連繫貿易을 推進하고 있으며, 또한 칼라TV 部品 등 一部品目的 搬出이 商談中에 있다.

〈表 2-3〉 商工部 및 外換銀行 承認 및 申請한 對北韓 搬入物資 內譯

區 分	業體數	主 要 品 目	金 額
申 請 (商工部)	13個	無煉炭, 명태, 오징어, 人蔘茶, 담배 등 10 개 品目	53,529
承 認 (商工部)	4個	無煉炭, 명태 등 5個品目	3,291
承 認 (外換銀行)	8個	陶磁器, 麥酒, 工藝品, 소주, 비루, 電氣銅, 亞鉛塊 등 22個 品目	2,443

## 第 4 章 南北韓 經濟協力 有望 部門

### 第 1 節 交易 有望 品目の 選定

다음은 南北韓間에 交易이 可能한 品目を SITC 5 Digit 基準으로 하여 選定한 KIET 結果를 土台로 하여 보기로 한다.<sup>9)</sup>

여기서 北韓의 경우 對外貿易統計가 SITC 基準에 의해 記錄된 資料로 는 불가피하게 南北韓 공히 對OECD 貿易統計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南北韓 공히 對OECD諸國과 交易한 1987年度 資料를 基準으로 하였 다. 이 資料는 北韓 總貿易額이 20%에 不過하여 品目別 貿易 金額을 대 표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品目數로는 거의 망라하고 있다.

여기서 南北韓間 交易品目を 選定하기 위한 指標로서 ①顯示比較優位指數 ②輸入結合度 ③貿易特化指數 등을 利用하였다.

各 指數들의 計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顯示比較優位指數} = \frac{\frac{\text{南(北)韓의 對OECD } i \text{ 商品 輸出額}}{\text{南(北)韓의 對OECD 總輸出額}}}{\frac{\text{OECD의 } i \text{ 商品 輸入額}}{\text{OECD의 總輸入額}}} \times 100$$

$$\text{輸入結合度} = \frac{\frac{\text{南(北)韓의 對OECD } i \text{ 商品 輸入額}}{\text{南(北)韓의 對OECD 總輸入額}}}{\frac{\text{OECD의 } i \text{ 商品 輸出額}}{\text{OECD의 總輸出額}}} \times 100$$

$$\text{貿易特化指數} = \frac{\text{OECD의 對南(北)韓 } i \text{ 商品輸入額} - \text{OECD의 對南(北)韓 } i \text{ 商品輸出額}}{\text{OECD의 對南(北)韓 } i \text{ 商品輸入額} + \text{OECD의 對南(北)韓 } i \text{ 商品 輸出額}}$$

9) KIET,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 1989.

여기서 顯示比較優位指數가 100보다 높으면 輸出競爭力이 平均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輸入結合度는 100보다 적으면 輸入需要가 平均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貿易特化指數는 0보다 작으면 輸入에 特化한 경우이고 -0.9보다 작으면 輸入에 完全히 特化한 것으로 看做하였다. 그리고 0보다 크면 輸出에 特化한 경우이고 0.9보다 크면 輸出에 完全히 特化한 것으로 看做하였다.

## 第 2 節 對北韓 搬出 有望 品目

對北韓 搬出이 有望한 品目は 다음 基準에 따라 3가지 品目群으로 選定하였다.

우선 SITC 5單位로 分類된 細品目 중 北韓의 輸入額이 10萬달러 以上인 品目으로서 北韓의 貿易特化指數가 0.9000보다 작고 우리나라의 貿易特化指數가  $-0.9000$  보다 큰 品目들을 고려 대상으로 設定하였다.

그리고 商品群別 選定을 위해서 ①北韓의 輸入額이 50萬달러 이상인 品目인지 여부 ②北韓의 貿易特化指數가 0보다 작고 우리나라의 貿易特化指數가 0보다 큰 品目인지의 여부 ③北韓의 輸入結合도가 100이상인 品目인지의 여부 ④우리나라의 顯示比較優位指數가 100 以上인 品目인지의 여부, 以上 4가지 基準을 設定하고 네가지 條件을 모두 滿足하는 品目들을 (A) 群으로 하고 3가지 條件을 滿足하는 品目들은 (B)群으로 2가지 條件을 滿足하는 品目들은 (C)群으로 各各 區分하였다.

위와 같은 基準에 의해 選定한 結果 (A)群에 9個 品目, (B)群에 25個 品目 (C)群에 54個 品目이 選定되었는데 그 具體的 品目內譯은 다음 <表 2-4~6>과 같다.

〈表 2-4〉對北韓 搬出 有望 品目(A)

(單位：千달러)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65315	合成長纖維織物(合成長纖維 85% 以上)	124,629	364.9	0.3062	1,273	169.2	-0.8707
65342	合成短纖維織物(羊毛 또는 高級獸毛混紡)	21,425	194.2	0.3558	697	405.6	-1.0000
65751	纖維製線, 케이블, 로프	13,931	195.8	0.5143	1,870	2,771.1	-0.9979
65752	纖維製漁網, 網, 網紙	15,706	587.0	0.9699	2,608	6,619.3	-0.9521
66132	加工한 建築 및 記念牌用 岩石	187,689	630.0	0.9538	563	166.6	-0.8767
67492	其他 合金屬의 鋼板	3,871	102.8	0.8924	1,087	1,787.7	-1.0000
69311	鐵鋼製線, 케이블, 로프	128,136	570.3	0.8455	1,656	667.0	-0.9609
69979	달리 分類되지 않는 鐵鋼製 製品	78,081	111.7	0.4177	1,774	212.7	-0.9832
77886	달리 分類 되지않은 電氣式 機器 및 裝備	109,650	156.5	0.0926	1,232	152.9	-0.9919

〈表 2-5〉對北韓 搬出 有望 品目(B)

(單位：千달러)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26652	加工하지 않은 폴리에스테르	13,585	115.0	0.5706	170	154.2	-0.9883
58343	염화폴리비닐판, 필름, 박 및 스트립	24,921	70.7	0.3764	882	183.7	-1.0000
62599	분류되지 않은 타이어, 타이어 케이스 등	15,974	60.3	0.7691	575	153.9	-1.0000
65349	기타 섬유와 혼방한 합성단 섬유 직물	14,782	236.5	0.0661	233	240.3	-1.0000
65833	합성 섬유제 담요	2,485	117.9	0.9707	150	506.2	-1.0000
67324	스테인레스 또는 내열강의 봉(선재 제외)	22,284	223.3	0.5324	385	317.2	-0.8118
67453	스테인레스 내열강의 철강압연 중후판	15,931	156.1	-0.3664	1,187	1,074.6	-1.0000
67601	철강의 제조(체크레인 및 레크레일 제외)	3,341	86.5	0.0483	690	627.6	-1.0000
74411	단거리 화물운반 및 취화용 트럭, 트레일러	84,714	192.5	0.8787	577	92.6	-1.0000
77121	정진변환기, 정유기 및 제유장치	27,734	65.4	0.0992	708	185.0	-1.0000
77122	유도차	30,993	304.3	0.6167	166	153.2	-1.0000
77821	필라멘트 전구(적외선 및 자외선 제외)	69,262	291.0	0.8940	343	152.4	-1.0000
77884	축전지	71,082	186.1	-0.2227	1,685	283.2	-0.9988



〈表 2-5〉의 계속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81242	스위치, 전동홀더, 차량용 전등, 전기 또는 마그네트 등	34,516	80.0	0.5281	1,600	298.7	-1.0000
821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의 가구	6,842	28.8	0.7725	532	162.1	-1.0000
83101	헨드백(버들 세공 및 바구니 세공제품 제외)	305,304	857.5	0.9744	236	110.9	-0.6389
84219	인조섬유제 및 납자 및 소년용 양복(편직 또는 크로 세 제외)	177,704	1,059.3	0.9906	437	892.4	-1.0000
84243	면직물제의 납자 및 소년용 상의 및 유사제품	184,780	1,681.1	0.9998	483	1,245.4	-0.8757
84593	합성섬유로 된 기타 외의 및 의류 부속품	171,162	426.2	0.9978	244	138.8	-0.6000
84821	인조프라스틱 재료	15,747	367.1	0.7530	240	727.5	-0.9917
85102	고무제 또는 인조프라스틱 재료의 외장신발	2,335,897	767.7	0.9974	524	21.2	-0.2765
87489	분류되지 않은 전기식(비전기식) 측정검사, 분석 장치	47,184	83.5	0.4010	812	241.4	-0.9951
89811	피아노, 하프시코드 및 건반 현악기, 하프	120,991	1,359.6	0.9906	221	292.7	-0.7198
89831	소리 또는 유사 기록용 가공매체	334,497	391.6	0.7974	513	43.7	-0.6006
89934	기계식 라이터 및 유사 라이터와 그들 부분품	38,099	445.0	0.5851	127	102.9	-0.8406

〈表 2-6〉 對北韓 搬出 有望 品目(C)

(單位：千달리)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 合 度	貿易特化 指 數
11102	레모네이드, 향미광천수 및 향미탄천수 기타 비알콜음료	7,690	58.5	0.9861	197	108.8	-1.0000
32321	석탄의 코크 및 반성코크	1,760	9.5	-0.6666	1,242	440.8	-1.0000
51139	기타 탄화수소의 할로젠화 유도체	6,306	27.0	-0.6835	617	165.8	-1.0000
51213	부틸 알콜	1,949	45.7	-0.5467	666	1,740.1	-1.0000
51383	오소프탈산, 디옥틸	2,120	87.6	0.2970	235	451.2	-1.0000
58333	폴리스티렌 판, 필름, 박 및 스트립	2,019	24.2	0.2552	141	133.5	-1.0000
58342	염화폴리비닐 모노필, 무계목판봉 또는 프로파일	2,415	20.7	0.2458	289	180.8	-1.0000
64121	도포하지 않은 인쇄지(신문지 제외) 및 필기용지	4,396	4.6	0.1081	650	63.8	-1.0000
65148	합성단섬유사, 단섬유가 진중량의 88% 이상	41,545	227.8	0.1768	179	81.8	-0.7723
65167	양모 또는 고급수모와 혼방한 합성단섬유사	7,106	130.0	-0.6649	153	195.5	-1.0000
65759	기타 섬유, 끈, 로프 또는 케이블제품(직물제품 제외)	1,208	78.8	0.8949	125	654.8	-0.9531
657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워딩 및 워딩제품, 섬유출륙, 더스트	2,771	45.8	-0.4655	973	1,031.7	-1.0000

〈表 2-6〉의 계속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 合 度	貿易特化 指 數
66415	유리봉, 봉 및 관, 미가공의 것	6,032	118.1	-0.1153	141	184.1	-1.0000
67463	스테인레스 또는 내열강의 압연박판	19,397	98.1	-0.2468	1,333	321.5	-0.9488
67464	기타 합금강의 압연박판	3,264	196.1	-0.8001	373	386.8	-1.0000
67491	보통철강판, 가공한 것	131,536	148.6	0.1151	329	23.8	-0.8329
68423	두께 0.2mm 이하의 알루미늄박	3,236	11.2	-0.8653	942	204.9	-1.0000
68512	연합금을 제외한 정제연, 미가공 연 및 연 합금	1,057	16.2	-0.5982	4,692	6,645.0	-1.0000
68999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가공 비금속, 미가공 서미트, 그 부스러기	2,025	15.5	0.2228	253	323.4	-1.0000
693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알루미늄의 선, 케이블	746	66.7	0.7678	335	1,710.0	-1.0000
69351	철강의 보강제품	2,440	20.2	0.1375	213	128.7	-1.0000
69965	금속분무용 응집 비금속분의 선 및 봉	3,921	55.4	-0.6120	1,096	869.4	-1.0000
72342	기계식 삼 및 자체 추진식 굴착기	3,559	6.9	-0.6151	8,891	997.5	-1.0000
72431	재봉기	7,219	28.7	-0.6070	1,938	464.5	-0.0990
72453	편직기	5,546	40.0	-0.7428	1,615	542.8	-1.0000

〈表 2-6〉의 계속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72832	파쇄기 및 분쇄기	932	31.4	-0.6783	1,181	1,584.6	-1.0000
73613	금속 공작용 선반	21,703	85.1	-0.3808	562	140.5	-1.0000
74221	활차 및 호이스트 인치 및 캡스틴	1,489	20.3	-0.8626	536	444.5	-1.0000
74428	분류되지 않은 인양, 취급, 적하 및 하역 기계류	4,502	10.7	-0.8899	1,699	199.5	-1.0000
76381	텔레비전영상 및 음성용의 자기식 녹음기와 재생기	668,448	457.0	0.9725	500	25.6	0.2302
76388	구슬기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녹음기 및 재생기	350,904	595.7	0.5603	424	56.1	-0.9813
764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통신, 녹음, 재생 기기 부분품	480,027	292.1	0.1093	401	22.8	-0.7982
77118	기타 진력용 변압기	70,955	476.0	0.4282	116	54.0	-1.0000
77521	가정형 냉장고(냉동실 부착물분)	66,797	263.8	0.9749	285	78.5	-1.0000
77582	전기난방기 및 토양가열 장치	3,343	41.2	0.7484	109	120.7	-0.9818
77586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전열장치	618,922	1,001.1	0.9961	241	39.3	-0.9754
77812	축전지	26,773	119.8	0.3278	194	47.8	-1.0000
77822	방전전구(자외선 등 제외)	6,787	40.9	0.2073	373	167.4	-1.0000
77832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 전기조명 및 윈드스 와이프	7,002	20.9	-0.1953	535	122.1	-1.0000

〈表 2-6〉의 계속

SITC	品 目	韓國의 輸出			北韓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 合 度	貿易特化 指 數
791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도기관차 및 차량의 부분품	2,375	9.3	-0.6541	977	331.4	-1.0000
81241	조명 유리 제품, 신호등 유리 제품	8,491	87.3	0.6201	101	104.6	0.0734
82122	메트레스 지지물	27,826	169.5	0.7751	124	52.0	-1.0000
821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재의 가구	23,778	22.6	0.8781	563	37.8	-0.9720
83109	기타가죽, 재생가죽, 경화섬유, 인조프라스틱 판지	249,471	889.6	0.9788	100	54.6	0.2208
84399	분류되지 않은 기타섬유재의 여자, 소녀 및 유아용 외의	89,459	465.3	0.9873	107	40.4	-1.0000
84822	비경화 가황고무, 인조프라스틱재료	3,287	54.0	0.6423	104	218.4	-0.5407
85101	고무재 또는 인조프라스틱 재료의 외창 및 갑피의 신발	345,287	524.1	0.9961	243	81.3	-0.1627
87483	기타 전자측정, 검사분석 또는 자동조절기구 및 장치	23,846	16.6	-0.8198	3,454	176.8	-0.9421
88511	주머니시계, 팔목시계 및 기타 휴대용 시계	121,779	167.0	0.9459	210	20.9	-0.9444
89391	마루깁개용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판, 타일, 연화폴리비닐	8,045	62.3	0.7415	297	143.8	-1.0000
89399	분류되지 않은 중분류 58에 속한 재료의 기타 제품	221,192	144.0	0.5913	721	41.4	-0.7737
89472	체조 또는 경기용 운동 및 실외 게임용 기기·장치	181,178	226.4	0.8213	153	27.1	-0.6190
89825	전기악기	37,994	197.0	0.8735	217	73.6	-0.9035
89832	축음기판, 녹음테이프 및 기타 녹음매체	9,866	17.5	-0.4013	3,388	464.2	-0.9947

資料: KJET, 南北韓 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 1989. 4. pp. 143-149  
 註: 對 OECD諸國에 대한 數值임.

### 第 3 節 對北韓 搬入 有望 品目

對北韓 搬入이 有望한 品目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基準에 따라 3가지 品目群으로 選定하였다.

여기서는 SITC 5單位로 分類되는 品目중에서 北韓의 輸出額이 1萬달러 以上인 品目으로서 北韓의 貿易特化指數가  $-0.9000$ 보다 크고 우리나라의 貿易特化指數가  $0.9000$ 보다 작은 品目들을 우선 考慮對象品目으로 하였다.

그리고 商品群別 選定을 위해서 ①北韓의 輸出額이 10萬달러 以上인 品目인지의 여부 ②北韓의 貿易特化指數가 0보다 크고, 우리나라의 貿易特化指數가 0보다 작은 品目인지의 여부 ③우리나라의 輸入結合도가 100以上인 品目인지의 여부 ④北韓의 顯示比較優位指數가 100以上인 品目인지의 여부, 以上 4가지 基準을 設定하고 上記한 4가지 條件을 모두 滿足시키는 品目들은 (A)群으로 分類하고 3가지 條件을 滿足시키는 品目들은 (B)群으로 그리고 2가지 條件을 滿足시키는 品目들은 (C)群으로 區分하였다.

위와 같은 基準에 의해 選定한 結果, (A)群으로 分類된 品目數가 10 個, (B)群으로 分類된 品目數가 14個, (C)群으로 分類된 品目數가 18個였는데 品目群別 商品內譯은 다음과 같다.(<表 2-7~9> 參照)

〈表 2-7〉對北韓 搬入 有望 品目 (A)

(單位：千달리)

SITC	品 目	北韓의 輸出			韓國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21201	밍크 생모피	478	355.1	1.0000	83,488	470.4	-0.9944
21209	기타 생모피	312	244.1	0.5639	88,546	650.0	-0.9961
26142	견 부스러기	2,663	23,001.0	1.0000	1,196	370.7	-0.2986
28201	선철 부스러기	1,161	10,134.0	1.0000	4,644	405.5	-1.0000
28209	기타 철강 부스러기	584	250.3	0.4384	64,173	292.5	-0.9670
28793	물리브데늄, 니오븀, 탄타늄, 티타늄광석 및 정광	173	126.3	0.5446	10,401	120.4	-0.9055
29196	새껍질, 깃털, 슴털	1,300	1,978.5	1.0000	16,060	769.9	-0.7843
67251	고탄소강 또는 합금강이 아닌 철강의 블룸, 빌렛, 슬라브	512	223.8	1.0000	120,057	480.3	-0.6348
68511	미정제鉛	12,705	36,913.0	1.0000	24,501	613.5	-0.9991
76492	탈리 분류되지 않은 마이크로폰, 화성기 부품품	262	639.4	0.9055	17,403	520.3	-0.1086

資料：前表와 同一

〈表 2-8〉對北韓 搬入 有望 品目(B)

(單位：千달라)

SITC	品 目	北韓의 輸出			韓國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08111	짚 및 왕겨(가공하지 않은것)	229	2,143.2	1.0000	837	117.0	0.6915
08142	물고기, 갑각류 등의 가루(非食用)	160	165.2	1.0000	1,057	22.6	-0.4271
24721	제재용 및 베니어용 통나무(활엽수)	1,843	370.1	1.0000	1,057	22.6	-0.8271
27821	점포, 남정석, 홍주석 및 규선석	154	91.1	1.0000	23,752	199.9	-0.7470
27822	천연흑연	761	5,244.1	1.0000	2,518	547.6	0.4153
27824	마그네사이트	18,236	25,703.1	1.0000	8,629	83.3	-0.9515
29111	뼈 및 뿔속, 이들의 가루 및 부스러기	75	493.2	1.0000	1,811	203.3	-0.9631
29116	상어, 귀갑, 사슴뿔, 발굽 및 이들의 가루, 부스러기	22	298.0	1.0000	5,950	2,088.1	-0.9860
65352	재생 장섬유 직물	4,528	60,198.0	0.9895	47	10.7	-0.0682
67271	고탄소강 또는 합금강이 아닌 제압연용 철강코일	20,149	3,651.8	1.0000	150,439	235.2	0.3320
67441	보통 철강의 압연후판(두께 4.75mm 이상)	5,022	1,573.3	1.0000	133,714	373.4	0.1037
68915	마그네슘(미가공)	317	826.5	1.0000	2,190	43.2	-0.9589
84848	모자용 머리띠, 안감, 커버, 끈 등	55	2,645.2	1.0000	198	117.3	-0.0233
89471	낚시, 수렵, 곤충 채집용 용품	178	204.0	0.4297	10,832	228.7	0.8915

資料：前表와 同一



〈表 2-9〉對北韓 搬入 有望 品目(C)

(單位:千달러)

SITC	品 目	北韓의 輸出			韓國의 輸入		
		輸出額	比較優位 指 數	貿易特化 指 數	輸入額	輸 入 結合度	貿易特化 指 數
05461	야채(냉동하여 저장한 것)	198	104.5	1.0000	225	1.3	0.6160
098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食品調製品	624	142.1	0.3580	7,085	11.3	0.7121
112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정 및 증류알콜	204	106.1	0.7215	502	2.8	0.7469
26712	채생단섬유제조용 장섬사토우	12	44.1	1.0000	37,312	446.9	-1.0000
26851	말털 및 말털부스러기	15	465.2	1.0000	168	112.8	0.5073
27851	석영, 규암	295	2,371.1	1.0000	410	58.4	0.0012
27861	철강제조의 슬래그 등 찌꺼기	205	921.7	1.0000	165	16.0	0.8490
27893	천연동석, 활석	704	3,105.3	1.0000	1,095	54.9	0.2097
52324	탄산염 및 과탄산염, 상업용 탄산암모늄	36	77.7	0.2203	9,980	265.6	-0.5853
52325	시안화물 및 시안착염	121	809.9	0.2872	1,712	52.5	0.1809
54139	기타 항생제	111	56.3	-0.5941	21,920	134.1	-0.5123
65147	기타 합성 장섬유사	57	74.6	0.1515	9,975	149.6	-0.0405
65223	면파일직물 및 셔닐직물	333	603.3	0.9249	3,849	60.8	0.3564
67169	기타 페로 얼로이	781	252.8	-0.6139	9,300	81.3	-0.9998
68212	정제銅	592	88.9	0.8272	23,459	88.2	-0.6807
728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특수산업용 기계공구 부속품	10	15.7	0.5385	11,843	130.6	-0.8887
81241	조명용 및 신호용 유리제품	117	161.2	0.0734	1,991	33.9	0.6201
89604	우표, 수입인지	207	856.0	0.9904	41	1.6	0.2190

資料:前表와 同一

#### 第 4 節 鑛山物의 共同 開發

南北韓間 經濟協力 分野로서 北韓에 埋藏되어 있는 鑛山物 資源의 共同 開發을 고려할 수 있다.

現在 北韓에는 90餘個에 이르는 大型 炭鑛과 90餘個의 一般鑛山이 散在 되어 있다. 그리고 <表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에는 多樣한 有用 鑛物資源이 埋藏되어 있다.

이에 北韓은 소련, 中國, 日本에 年間 6억달러 以上の 鑛山物을 輸出하고 있는데 비해 韓國은 年間 10억달러 以上을 輸入하고 있어 이 部門에서 的 交易은 물론이고 共同開發도 有望하다. 北韓은 西獨과 프랑스와 1982 年에 交渉에 의해 亞鉛鑛山 開發과 石油探查 및 開發을 推進하고 있으며 핀란드와는 아직 着手는 하지 않았지만 金鑛광업연합기업소와 有色金屬 鑛山을 開發기로 合意한 바 있다.

최근들어 北韓은 침체된 經濟를 타개하기 위하여 既存의 炭鑛과 鑛山 등을 改建·擴張하며 특히 새로운 炭鑛을 開發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이 輸入하고 있는 天然鑛物資源을 北韓에서 合作·開發하여 國內로 輸入한다면 輸送費도 大幅 절감될 수 있다.

현재 北韓과의 鑛物資源 開發에 있어 合作可能分野는 亞鉛鑛, 金, 鐵鑛石 등을 기대할 수 있다.

亞鉛鑛은 樂淵, 檢德, 成川, 桂生, 龍雲, 承昌鑛山 등을 合作開發하면 年間 20萬屯 정도의 輸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合作開發에 의한

〈表 2-10〉 北韓의 鑛物資源 埋藏 現況

鑛物名	單位		埋藏量 千 M/T	北韓賦存量 / 南北韓總賦存量 %
	成分	%		
鐵	Fe	20~50	3,000,000	93.8
重石	WO <sub>3</sub>	65	232	55.7
輝水鉛	MoS <sub>2</sub>	90	1,200	5.8
니켈	Ni	3	200	84.7
망간	Mn	40	1	13.8
金	Au	100	5	66.7
銀	Ag	100	5.0	66.7
亞鉛	Zr	100	12,000	94.9
螢石	CaF <sub>2</sub>	70	200	7.5
滑石	Mg <sub>3</sub> C <sub>14</sub> O <sub>10</sub> (OH) <sub>2</sub>	30	600	50.0
石灰石	CaCO <sub>3</sub>	50	100,000,000	98.5
마그네사이트	MgCO <sub>3</sub>	45	6,500,000	100.0
重晶石	BaSO <sub>4</sub>	90	500	69.7
모나자이트	(Ce·Y)PO <sub>4</sub>	60	46	69.7
베리늄	Be	10	0.6	54.5
질코늄	ZrO <sub>2</sub>	50	50	71.4
우라늄	U <sub>3</sub> O <sub>8</sub>	0.3~0.5	26,000	31.7
無煉炭	C		11,740,000	89.0
有煉炭	C		3,000,000	99.8

資料：國土統一院，「北韓의 資源經濟」，1988

生産増加를 통하여 世界各國에 輸出도 고려할 수 있다.

金은 成興, 遂安, 笏洞, 雲山, 大楡洞 鑛山 등을 共同으로 開發하여 生産을 늘리면 年間 5,000~6,000kg을 輸入하고도 世界市場에 輸出이 可能하다.

鐵鑛石은 埋藏量이 豊富한 殷票, 下聖, 載寧 등의 鑛山을 合作開發하면 年間 500萬屯의 鐵鑛石을 輸入할 수 있다.

### 第 5 節 水産資源 部門의 協力

또한 南北韓間에는 水産資源의 共同開發 및 漁獲이 可能하다.

北韓海岸에는 530餘種의 물고기가 分布되어 있다. 北韓은 第3次 7個年計劃期間 동안에 水産物 生産量을 1,100萬屯 以上으로 計劃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물고기를 300萬屯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 北韓은 水産業의 現代化, 科學化를 推進하여 1萬4,000屯級의 大型加工母船과 3,750屯級의 선미트롤船, 1,000屯級 漁船의 製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바닷가 養殖生産을 800萬屯으로 增大하는 計劃을 세워놓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南北韓間에 共同漁撈網을 구축하여 현재 北韓이 漁獲하고 있는 오오츠크, 坎查카灣 일대에 進出한다면 韓國에 需要가 많은 명태, 청어, 가재미 등을 供給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雙方間에 共同漁撈作業을 위하여 鶯기, 나진, 연천, 어대진, 무수단, 김책 등 일원지역의 漁場을 擴大 開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雙方間의 協定에 의해 共同養殖場을 設立하여 養殖漁種開發에 다른 技術交流와 共同養殖生産이 可能하다.

〈表 2-11〉 北韓의 主要 水産資源

	主要 水産資源	主要 漁場
西 海 岸	조기 새우 민치 갈치 삼치 가지미 넙치 바스래기 숭어 굴 달재 방어	延坪島, 平北道 大和島 近海 全沿海  黃海道 沿海 全沿海  平北道 鴨綠江河口
東 海 岸	명태 징어리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자미 방어 오징어 갈치 게 해삼 고래 미역 굴	咸北, 咸南道, 江原道 沿海 全沿海  咸南道 以南의 沿海  江原道 以北의 沿海  全沿海 江原道 沿海

資料：國土統一院, 「北韓經濟 統計集」

## 第 6 節 觀光部門의 共同 開發

南北韓間의 觀光 部門에 대한 共同開發에 대해서는 1989年 1월에 韓國側 現代그룹의 名譽會長인 鄭周永과 北韓의 大成銀行의 理事長 겸 朝鮮亞細亞 貿易促進會 고문인 최수길간에 會意한 바 있다.

이 觀光共同開發 事業은 金剛山 一帶·元山の 명사십리, 동천의 시중호, 동정호, 총석정, 금란지구 등 金剛山을 잇는 全域을 世界的인 觀光地로 開發한다는 構想이다.

韓國側에서도 서울·束草間 東西高速電鐵化를 構想하고 있으며 이를 北韓의 東海 北部線을 連結하여 雪嶽山과 金剛山을 묶어 世界的인 觀光名所로 開發하는 것을 構想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會意에 의해 이 地域을 四季節 觀光地로 開發하고 이 地域에 進入할 수 있는 陸路, 海路, 空路를 開發하여 世界的인 觀光名所로 開發한다면 南北韓 共히 크게 利得이 될 것이다.

## 第 5 章 北韓의 經濟改革과 開放 擴大 可能性

다음은 北韓經濟가 과연 經濟改革과 開放化의 擴大를 계속 促進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判斷하기로 한다.

### 第 1 節 經濟改革

우선 北韓經濟 內部에서 일어나고 있는 經濟改革의 徵兆는 行政的 分權化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改革 過程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經濟도 經濟規模가 점차 커지고 產業構造 또 한 複雜해 감에 따라 中央計劃當局에서 모든 資產의 配分을 計劃指標에 의해 運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北韓經濟는 1970年代 이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限界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中央經濟機構를 改編하고 經濟管理의 專門性을 強化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北韓經濟는 1970年代 以後 經濟的 意思決定의 權限을 下部 行政單位에 부여하는 分權化 措置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分權化의 첫번째 試圖는 1972年 12月 27日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을 制定함과 동시에 出帆한 第五次 內閣에서 었다고 할 수 있다. 當時 北韓은 內閣의 名稱을 「政務院」으로 改稱하고 그 機能도 종래의 國家主權의 最高執行機關에서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으로 그 役割을 大幅 縮小시켰다. 이에 따라 1970년에 37個部處(31개성 6개위원회)로 절정을 이루던 中央部處의 數가 22個部處로 대폭 縮小되었다. 經濟部處는 특히 제4차 내각당시 세분화된 公業·운수·건설 등 경제부서를 통합함으로써 7個

委員會 9個部로 縮小되었다. 대신 北韓은 政務院 위에 最高 主權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를 新設하고 經濟政策決定에 관한 權限을 賦與함으로써 各 經濟部門間 統合과 調整을 圖謀하였다.

經濟機構의 두번째 改編은 1982年 4月 5日 出帆한 第7次 內閣에서 試圖되었는데, 이때 北韓은 第5次內閣 이후 統폐합과 분리, 신설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늘어난 政務院의 37個部處중 29個 部處로 拒大化된 經濟部處를 類似한 機能을 가진 部處끼리 委員會 形態로 統合하여 그 數를 26個로 縮小시켰다. 그리고 地方의 道級에 「經濟指導委員會」를 新設하여 종래 中央部處가 擔當하던 生産指導·監督機能의 一部를 移管하는 한편 中央部處로 하여금 企劃·調整業務에 注力하게 하는 措置를 취했다. 이어 1985年 5月에는 道の 行政機關과 經濟指導委員會의 二重的 生産指導構造에서 연유하는 非能率을 없애기 위해서 두 機構를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로 一元化 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10月 1日과 11月 19日에 두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機能을 가진 中央部處를 委員會로 改編하였다. 이러한 經濟機構 改編과 함께 北韓은 政務院의 總理, 副總理 및 經濟部處의 長을 經濟技術 專門官僚로 大幅 交替함으로써 黨性 爲主로 이끌어 오던 經濟管理에 專門性을 補完하는 努力을 기울였다. 1970年代 以後 政務院 總理에 任命된 6名 가운데 3名이 經濟專門家들로 任用되었으며 中央經濟部處의 長官도 새로운 專門官僚들로 大幅 交替되었다.

둘째로 나타나고 있는 經濟改革의 徵兆는 獨立採算制의 實施 擴大이다.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이 그러하였듯이 個人的 利益 보다는 全體의 利益을 人間行動의 動機로 標榜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特性에서 緣由한 道德的 補償制度(Moral Incentive System)를 實施한 結果, 北韓經濟도 勞動生産性이 極度로 低調하였다. 또한 특히 3次 7個年計劃을 2年 동안 着手하지



못할 정도로 北韓經濟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北韓側은 對外 宣傳用으로 10% 以上の 成長率을 發表했지만 先進國의 平均 成長率 보다도 낮은 3~4% 成長率 밖에 이루지 못했다.<sup>10)</sup> 이는 과거에도 北韓經濟가 中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計劃目標을 達成치 못한 경우 다음 計劃期로 넘어가기 以前 數年間의 調整期를 두었던 慣例에 비추어 볼 때에도 北韓의 經濟的 危機는 分명한 것 같다. 이에 北韓經濟는 종래의 道德的 補償 制度에만 依存하는 데서 脫皮하기 시작하였다. 즉 1984年 第2次 7個年計劃이 失敗로 끝난 해 12月 黨 第6期 10次 全員會議에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는 것을 強化하기로 決定하였다. 北韓經濟는 選別的이기는 했지만 60年代初에 非生産部門인 藝術團이나 公演團體에 自體收入으로 運營費 및 團員 生活費를 充當한 후 不足分을 當局에서 補助하는 半獨立採算制를 實施한 바 있다. 또한 70年代 初에는 公共部門에서 生産側面 즉 國營企業所의 單位에서 獨立採算制를 實施하여 國家의 財産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勞動을 기피하는 현상을 제거하여 企業의 收益性을 높이려고 試圖하였다. 그러나 일찌기 추진한 北韓經濟에서의 獨立採算制는 中央集權的인 管理方式을 分權化하는 經營形態이지만 결국 國家計劃의 一元化로 해서 限界가 있었다.

이에 1984年 6月 중순부터 事務機關을 제외한 非生産部門機關, 企業所들을 完全 獨立採算制 또는 半獨立採算制로 管理·運營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앞서서도 잠깐 言及한 바 있지만 半獨立採算制의 運營方法은 從業員들의 生活費의 一定한 몫은 完全獨立採算制下의 企業所와 같이 計劃遂行 程度에 따라 임금을 支拂하고 一定한 몫은 完全 豫算制機關에서와 같이 計劃의 遂行程度에 關係없이 定額 生活費를 支給하는 制度이다.

10)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 Pacific Review, Vol. 1. No.1, pp.1266~1267.

北韓經濟가 1984年 12月 黨 全員會議에서 獨立採算制 實施를 強化한 것은 豫算制 機關·企業所의 管理·運營方式을 改善하여 經營活動에 必要的 資金은 가능한 한 自體 收入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合理的이며 自主的인 企業管理·運營으로 誘導할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또한 獨立採算制를 1970年代까지는 주로 生活部門의 中央企業에만 실시하다가 1980年代부터는 地方의 産業部門까지 擴大·適用한 후 1984年 6月 中순부터의 半獨立採算制의 擴大 實施를 계기로 行政 및 事務機關을 제외한 非生産部門까지 擴大하고 이를 黨全員大會에서 적극적으로 實施시키기로 決定한 것은 西方과 의 合營을 擴大할 受容態勢을 갖추고자 하는데도 그 目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제로는 市場機能의 擴大 許容을 들 수 있다.

制限的 이기는 하지만 勞動者들이 退勤 後에 廢物을 使用하여 만든 日用品을 直接 販賣하는 直賣店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또한 25坪 程度의 터밭에서 生産한 農作物을 一週에 한번씩 自由로히 販賣하는 市場도 許容하고 있다.

勿論 이러한 自由市場의 機能이 退勤 後 廢物만을 利用하여 만든 製品 일 뿐만 아니라 週一日에서 月一日로 줄었으며<sup>11)</sup> 農作物 市場도 앞으로 廢止하려는 政府의 計劃이기는 하지만<sup>12)</sup> 限定的인 範圍內에서 市場의 機能을 導入하고 있다는 事實도 北韓의 經濟體制內部的 改革 徵兆라고 할 수 있다.

네제로는 傳統的인 社會主義 國家들에서의 重工業 優先 政策에서 輕工業 部門을 重視하는 政策의 變化를 들 수 있다.

1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3, 1987, p.36.

12) The New York Times, July 19, 1989.

이러한 産業部門間的 調整政策은 中國에서의 第1次 經濟改革이 推進되었다고 評價할 수 있는 調整期(1961~1965)에 農業, 輕工業, 重工業으로 投資優先順位를 變更시킨 것과, 1979年 以後의 改革過程에서의 變化와 그 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즉 北韓經濟는 1970年 2월에 全國地方産業일꾼大會를 開催하여 地方産業의 振興과 이를 통한 消費政策의 生産増大를 모색한 以後 重工業優先政策과 병행하여 消費財 生産을 増大시키기 위한 方案을 講究하였다. 이러한 努力의 一環이 바로 國家豫算을 重工業部門, 軍事費 등을 주로 擔當하는 中央豫算과 地方産業과 便宜施設를 擔當하는 地方豫算으로 나누어 執行하고자 1973년부터 地方豫算制를 導入한 것이다. 그후 北韓經濟는 輕工業革命, 人民奉仕革命을 推進하면서 地方豫算制를 계속 強化·促求하여 왔다.

이러한 모든 政策의 變化들이 他社會主義 國家들의 內部 經濟體制의 先例에 비하면 그 濃度는 미약하다고 하겠지만, 分明히 改革의 徵兆임을 엿볼 수 있다.

## 第 2 節 開放化

한편 北韓經濟는 이러한 內部的인 體制面에서의 改革과 더불어 對外的으로는 開放化를 推進하고 있는데 內部的인 改革에 비해서는 훨씬 더 積極的이다.

이러한 開放化의 現象은 첫째 對外貿易의 重要性을 強調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

13)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estview Press, 1982, pp.268~270.

周知하듯이 北韓經濟는 餘他 社會主義國家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우타르키 政策을 經濟政策의 基調로 하여 왔다. 그러나 經濟規模가 작고 소련과 같은 無差別的인 輸入代替的 工業化를 推進하기 위한 潛在的인 對內市場과 資源이 모두 不足한 東歐諸國들은 構造的으로 對外指向的인 政策을 推進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1960年代부터 東歐諸國들은 이미 西方先進諸國들과 交易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合作投資誘致를 위한 關係法을 制定 公布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 IBRD, GATT 등의 西方國際經濟機構에도 加入하였다. 그리고 1970年代부터는 西歐의 公共借款 및 民間借款을 本格的으로 導入하기 시작하였다.

北韓經濟도 알바니아와 더불어 가장 閉鎖的인 對內指向的 開發戰略(Inward-Looking Policy)을 固守해오다가 人民經濟發展 6個年 計劃期부터 西方 先進國으로부터 借款을 導入하기 시작하였다는 事實은 北韓經濟政策의 커다란 變化였다.

이와 더불어 北韓의 對外貿易에 대한 態度도 크게 變化되었다. 북한은 “대외무역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認定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84年 1월에 열린 最高人民會議에서 “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더한층 발전하는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1987年 4월에 열린 最高人民會議에서는 第3次 7個年 計劃期間중에 貿易規模를 3.2배 늘리기로 決定한 바 있다.<sup>14)</sup>

한편 北韓經濟는 이러한 對外貿易의 重視政策으로의 轉換에 따라 對外貿易機構도 改編·強化시켰다. 즉 1983年 4월에 政務院의 機構를 改編할 때 貿易委員會를 新設하였고 이어 1985年 11월에 있는 政務院 改編때에는 貿

14) 로동신문. 88. 10. 13.

易部門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다시 調整하였다. 그리고 1970年代 末까지만 하더라도 對外貿易을 擔當하는 商社數가 10餘個에 不過하던 것이 1980年代 에는 綜合商社, 輸出專門商社, 專門商社, 一般貿易商社, 特殊貿易商社를 包含 하여 100餘個의 貿易商社가 設立되었는데 이는 모두 北韓의 對外開放化政策의 反映이라고 할 수 있다.

開放化의 두번째 現象은 外國資本과의 合作投資 誘致 努力에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對外經濟政策의 推移에서도 記述한 바 있지만 1984年 9월에 26個 條項으로된 合營法을 制定·公布하였다. 北韓 當局은 外資 誘致를 위하여 合作先이 合作會社의 株式資本의 50%以上 차지할 수 있게 하여 經營의 自律性を 크게 許容하였다. 그러나 1985年 3월에 公布한 合營法 施行細則에서 合營會社 理事會의 決定을 在席 理事陣의 滿場一致를 要求함으로써<sup>15)</sup> 合作先에게 誘引作用을 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北韓 經濟自體의 外資受容能力의 缺乏으로 결국 朝總聯系 資本의 一部 誘致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北韓經濟의 종래의 主體思想에 立脚한 閉鎖政策에서 보면 커다란 變化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北韓經濟의 開放化 措置는 1986年 8月 「朝鮮國際合營總會社」의 設立을 들 수 있다.<sup>16)</sup>

이는 在日 朝總聯系 同胞들의 對北韓 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設立한 機關으로 副會長 二名中 한명을 朝總聯으로 한 것도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었다. 이 會社를 통해 北韓은 1987年 즉 設立後 一年동안에 15個의 合營會社를 設立하였는데 이중에서는 특히 1987年 4월에 운산合營

15) Chin Kim "North Korean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2, 1988~1989.

16) North Korea News, No.348, November, 17, 1986, p.4

天然鑛山을 設立하여 一年동안에 40톤(3억7,600萬달러)의 金을 生産하는 實績을 올리기도 하였다.<sup>17)</sup> 그리고 1988년에는 36個의 合營會社를 더 設立할 計劃을 세울 만큼 비교적 所期의 目的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 北韓當局은 1989年 2월에 北韓企業과의 合作이 아닌 合營業體의 100% 所有를 許容하여 同年 2월에 朝總聯系 業者들로 構成된 醫療機器會社가 單獨으로 設立되었다. 이는 곧 北韓經濟가 外資誘致를 위한 實用主義 開放化의 積極性을 反映하는 措置라 할 수 있다.

또한 北韓當局은 1988年 11月 26日에 政務院 傘下에 合營工業部를 設置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北韓當局은 從來 在日 朝總聯系 資本의 誘致에서 더 나아가 在美同胞들의 資本誘致에 努力하기 시작하였다. 北韓企業과의 合資가 아닌 單獨 在美同胞 企業으로서 500~1000萬달러를 投資하여 設立한 高麗商業銀行, 金剛山國際貿易開發會社, 金剛山 國際觀光會社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當局은 北韓經濟의 開發을 위해 積極적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세째로 北韓經濟가 推進하고 있는 開放化 政策은 觀光事業이다.

종래까지 北韓經濟가 開放化한 것은 주로 借款 導入 또는 合作投資 誘致 또는 直接投資 誘致에 限定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면 觀光事業의 推進은 各別한 義味를 갖는다. 즉, 外國의 資本과 技術 導入에 있어서는 북한의 閉鎖的인 經濟與件과 立場에서 볼 때, 思想汚染을 最小限으로 防止할 수 있었으나 觀光事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커다란 變化라고 할 수 있다.

---

17) North Korea Quarterly, No. 52~53, Spring-Summer, 1988, p.11.

### 第 3 節 改革과 開放化 展望

以上에서 列擧한 北韓經濟의 對內經濟體制의 改革徵候와 對外開放化 現象을 볼 때 北韓經濟의 改革, 開放化 可能性은 經濟的 變數만을 勘案할 때는 充分히 있다고 判斷된다.

이는 무엇보다 北韓經濟의 開發過程이 不振했다는 점에서 改革의 必要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北韓經濟는 1961년부터 1967년까지의 第1次 7個年計劃을 3年間 延期했으며 또한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人民經濟發展 6個年計劃과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모두 計劃目標를 達成지 못해, 調整期를 두었던 것은 모두 北韓對內經濟의 어려움과 問題點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不可避하게 能率과 效率性을 強化하는 對策이 要求되고 있다. 낡은 工業設備를 更新·改造해야 하며, 生産能力和 生産性的 大幅的인 向上 그리고 科學·技術의 向上을 北韓當局者들이 主唱하고 있는 것은 北韓經濟가 直面하고 있는 不振狀況에서 나온 당연한 歸結이다.

“오늘날 科學기술은 매우 빠른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科學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고도로 발전된 科學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는 것은 현시기 세계 경제발전의 기본 자세……”

라고 指摘한<sup>18)</sup> 金日成의 主張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北韓經濟는 科學·技術의 重要性을 더욱 重視하고 있다.

또한 北韓當局者들은 住民들의 衣·食·住 問題 解決 및 物質文化生活

18) 金日成, “사회주의와 완전승리를 위하여,” 1986. 12. 30

水準 向上에 대하여 絶실하게 認識하기 시작했다. 이는 만일 주민들의 이와같은 欲求를 長期間 充足시키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勤勞者들의 生産意慾에 影響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社會安定에도 影響을 미치게 때문이다. 金日成이 1986年 12月 第8期 第1次 人民會議에서 住民의 生活水準을 높이는 것이 解決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고 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야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유력하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 수 있다”

고 強調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1980年代 이래 北韓經濟는 輕工業革命의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輕工業革命을 위해서 수많은 輕工業工場을 세우는 동시에 郡마다 平均 20個以上の 地方産業工場을 세워 生活必須品 職場과 作業班을 大幅 늘이고 있는데<sup>19)</sup>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北韓經濟가 指向하는 새로운 政策方向을 示唆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韓經濟는 落後된 住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物質文化의 生活水準向上을 통한 生産性向上에 力點을 둘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經濟改革의 必要性을 切實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

先行的으로 經濟改革을 推進하고 있는 社會主義 國家들은 ①經濟成長率의 鈍化 ②資本產出量比率(Capital-Output Ratio)의 增加에 따른 投資效率性的 鈍化 ③生産目標量에만 執着한 結果로 나타난 質의 低下 ④道德的 刺戟制度에 따른 勞動生産性的 低下 ⑤自給自足的 經濟政策에 따른 大規模 生産을 위한 市場潛在力의 未開發 ⑥그리고 특히 經濟規模의 擴大에 따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限界性 등이 經濟改革의 背景으로 要約되고 있다.

19) 朝鮮中央通信社 報道. 1985. 8. 9.



따라서 社會主義 모든 나라들은 經濟改革의 目的을 ①勞動生産性, 資本效率, 資源, 에너지利用의 效率 등 經濟效率의 根本的인 向上 ②品質의 向上 ③國際競爭力의 向上 ④技術革新 등에 두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相互 依存的인 聯關性을 가지고 있다.<sup>20)</sup>

以上の 社會主義國家들의 經濟改革의 促進要因에서 볼 때 北韓經濟도 經濟的要因의 면에서는 改革을 위한 充分한 與件이 成熟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社會主義國家들이 60年代 以來 推進해 온 經濟改革의 過程에서 나타났듯이 政治指導者들과 「이데올로기」主義者들은 經濟改革을 抑制하는 役割을 하였다. 즉 이들은 市場·資本 및 土地使用料制度의 導入과 利潤獲得을 위한 生産 및 物質的 補償制度에 依存하는 것은 社會主義와 調和할 수 없다는 主張이었다. 이러한 見解는 특히 文化革命期에 中國에서 強하게 대두된 바 있었다.<sup>21)</sup>

또한 經濟改革의 國民經濟에 대한 黨의 統制力을 喪失하게 하거나 또는 經濟分野에서의 自由화가 文化社會 그리고 政治分野까지 波及되어 自由化를 要求하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도 抑制要因으로 作用하였다.

이러한 先驗的 事例에서 볼 때, 특히 中國의 天安門事件과 소련의 經濟改革에 따른 民主化 運動, 東歐諸國에서의 多黨制 등은 北韓當局者들의 改革意志를 弱화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이다.

---

20) 平泉公雄 “ソ連·東歐諸國における 經濟改革의 新たなるねり”, アジア經濟, Vol. 26. No.8. アジア經濟研究所, 1985. 8. p.5

21)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Growth and Structural Change-Westview Press, 1982, pp. 270~272

## 第 6 章 南北韓 經濟協力을 위한 接近戰略

지금까지 分析한 바와 같이 北韓經濟는 經濟改革과 開放化를 推進해야 할 切實한 推進要因과 抑制要因이 併存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北韓이 內部的인 經濟體制의 改革徵候보다는 開放化를 推進하는 現象이 더욱 뚜렷하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視點에서 본다면 南北韓間의 經濟交流는 北韓經濟의 體制改革에 따라 推進하기 보다는 北韓의 對外經濟交流 특히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擴大를 통한 인내심 있는 長期的인 經濟體制改革을 기다리는 戰略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立場은 7·7宣言의 趣旨와도 脈을 같이 한다. 7·7宣言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先制的 讓步를 통해서 北韓의 變化를 誘導하자는 意圖를 담고 있다. 즉 北韓이 段階的으로나마 開放化와 體制改革의 方向으로 나가게끔 刺戟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7·7宣言에서는 北韓을 競爭과 對決 그리고 敵對하는 對象으로서가 아니라 民族의 一部로 包容하여 相互 信賴와 和解와 協力을 바탕으로 共同繁榮을 追求하는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認識하였다. 이에 7·7宣言은 韓國도 北韓住民의 生活向上을 위해 함께 關心을 쏟아야 함을 強調했다.

이러한 理念과 原則의 土臺위에서 7·7宣言에서는 그 具體的 措置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南北同胞간의 積極的인 相互·交流 推進과 海外同胞의 南北 自由往來를 위한 門戶 開放

둘째, 離散家族들의 生死·住所 確認, 書信 往來, 相互 訪問의 積極 推進

세째, 南北韓間의 交易을 위한 門戶 開放

네째, 友邦國과 北韓間의 非軍事的 物資交易에 대한 不反對

다섯째,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의 自由로운 接觸과 協力

여섯째, 北韓과 韓國友邦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協助

그런데 이러한 具體的 措置를 통한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接近協力에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多面的으로 推進하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經濟的인 接近努力에 있어서는 ①自由貿易地帶(Free Trade Area) ②關稅同盟(Custom Union) ③共同市場(Common Market) ④經濟同盟(Economic Union) ⑤完全經濟統合(Compleat Economic Integration)으로 段階的 發展을 이루어 나가는 經濟統合 模型을 통해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에 있어서는 自由貿易地帶의 形成段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같이 南北韓間에 交易되는 모든 商品에 대해서는 相互間 關稅를 賦課하지 않고 交易을 促進하는 것이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이미 7·7宣言에서도 北韓으로부터의 輸入(搬入)商品에 대해서는 同一한 國內에서의 去來로 취급하여 關稅를 賦課치 않을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段階에서의 南北韓 交易商品에 대해서는 「南北經濟會談 推移」와 「交易有望品目の 選定」에서 이미 밝혔듯이 南北間 經濟力의 顯著한 隔差때문에 韓國側의 立場에서는 北韓으로부터의 輸入需要 對象品目과 그 額數가 크지 않다. 그러나 韓國의 立場에서는 對北韓交易이 經濟的 利益 보다는 이를 통해 南北間의 關係를 改善, 發展시켜 나가는데 主目的이 있는 만큼 收益性을 優先하는 接近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輸出商品에 있어서도 完製品보다는 中間財나 部品을 그리고 完製品의 경우도 北韓의 주문에 의한 OEM方式의 輸出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단 이러한 自由貿易地帶 形態의 交易이 活潑해지면 對外的으로도 共同 關稅政策을 實施하는 關稅同盟의 形態를 거쳐 南北間에 商品의 自由로운 交易뿐만이 아니라 勞動力과 資本도 制限없이 移動할 수 있는 共同市場의 段階로 接近하기 위한 努力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헝가리와 폴란드와의 關係改善의 推進 過程에서 借款을 提供한 바 있듯이 이 段階로 接近하는 過程에서 韓國側이 北韓에 借款을 提供하는 方案을 推進할 수 있다. 「北韓의 開放化政策 推移」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北韓經濟는 外資의 收容能力을 具備치 못한 條件下에서의 借款 導入으로 1987年 基準 GNP의 27%에 該當하는 52억달러의 外債殘高의 負擔을 안고 있다. 이로 해서 北韓經濟는 國際金融市場으로부터 信用이 하락하여 더이상의 借款 導入이 어려운 立場에 처하자 高麗商業銀行을 통해 北韓債權을 發行하여 駐美同胞의 對北韓 開發 投資를 誘導하고 있지만 所期の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規模는 거의 無視할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韓國側이 北韓側에다 그들이 必要한 資本을 提供해 주는 方案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이 경우 北韓側이 韓國으로부터의 直接的인 借款導入은 拒否할 可能性이 있는 만큼 北韓이 國際金融市場에서 借款導入을 試圖할때 그 支給保證을 韓國側이 해 주는 方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勞動力의 自由로운 移動에 있어서는 南北韓間의 資金의 顯著한 隔差때문에 北韓勞動力이 南側으로 移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北韓當局으로서는 許容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北韓勞動力이 南側으로 直接 移動하는 非現實的인 接近보다는 第3國으로의 移動을 誘導하는 方向에서 方案을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企業들이 海外에 進出해 있는 第3國의 現地 工場이나 會社에 北韓勞動力을 利用하는 方案이다. 이 경우에도 一次的으로는 우리나라 企業이 進出했거나 또는 앞으로 進出할 共產圈 地

域에서의 北韓勞動力을 雇傭하는 段階부터 시작하면서 漸進적으로 自由圈 國家들로 擴大한 후 이러한 過程이 成熟되면 國內로 北韓勞動力을 誘入하는 長期的인 段階의 接近方案이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이러한 共同市場의 形態가 成熟되면 南北間에 더 進陞된 經濟同盟 段階로 接近하기 위해서 南北韓間의 合作投資를 비롯한 直接投資까지도 推進하는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南北韓間의 單一經濟圈을 形成하는 次元에서 南北韓間에 特化할 수 있는 産業部門에 대한 重複投資를 回避함으로써 南北韓間의 經濟的 補完性を 強化하고 資源의 浪費를 防止하는 方向으로 南北韓의 産業政策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最後段階에는 南北韓間에 通貨, 財政, 社會政策 등을 統括하는 超國家機關을 設立하여 名實相符한 經濟單一體를 形成하는 統一의 經濟的 完成段階로 進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段階化 推進은 반드시 첫段階인 自由貿易地帶의 구축에서 부터 最終段階인 完全經濟統合으로 順次的인 過程을 거칠 必要는 없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分斷國間의 統一化 過程은 經濟的 側面에서의 進展만이 아니라 政治, 文化, 社會的 側面 등의 多面的인 接近·努力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政治的인 關係 改善이 急進적으로 이루어진다면 經濟統合의 順次的 過程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最終段階에 接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改革에는 促進要因보다는 抑制要因이 어느면에서는 더 강한 만큼, 南北韓間의 經濟協力을 통한 開放化 促進 및 統一로의 途程은 길고 험난한 길임을 認識하여 끈질긴 忍耐力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考資料

- 1) 金日成 著作選集, 第5卷
- 2) Bela Balassa, Trade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971. March
- 3) 조선중앙연감, 1981.
- 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7. Dec. 1987.
- 5) 日本經濟新聞, 1987. 3. 24.
- 6) Ravi I. Gulhati, The Need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ve Capacity and Debt Servicing Capacity, paper for I.E.A. Conference on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1965.
- 7) 조선중앙연감, 1984.
- 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3. DEC. 1987.
- 9) KIET, 南北韓 經濟交流 促進을 위한 中長期 發展計劃(案), 1989.
- 10)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 Pacific Review, Vol. 1. No.1.
- 1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 3. 1987.
- 12) The New York Times, July 19, 1989.
- 13) Chu-Yuan Che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Growth and Structural Change, Westview Press, 1982.
- 14) 로동신문, 1988. 10. 13
- 15) Chin Kim, North Korean Joint Venture Law, California Wester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9. No. 2. 1988~89.
- 16) North Korea News, No. 348, Nov. 17. 1986.
- 17) North Korea Quarterly, No. 52~53, Spr.-Sum., 1988.

# 第三部 韓國의 對共產圈 經濟協力 擴大를 통한 統一 接近

## 〈目 次〉

第 1 章 序 論 .....	103
第 2 章 韓·中 經濟協力の 增大方案 .....	106
第 1 節 韓·中 經濟協力 現況 .....	106
第 2 節 對中國 經濟協力에 있어서의 否定的 側面 .....	116
第 3 章 韓·蘇 經濟協力 增大 方案 .....	120
第 1 節 序 言 .....	120
第 2 節 蘇聯의 對外 開放政策과 最近의 經濟動向 .....	122
第 3 節 韓·蘇 經濟 交流 現況 .....	128
第 4 節 韓·蘇 經濟協의 分野別 增進 方案 .....	131
第 4 章 韓·蘇歐 經濟協力 增進 方案 .....	136
第 1 節 韓·蘇歐 經濟協力 現況 .....	137
第 2 節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案 .....	142
第 5 章 結 論 .....	160





## 第 1 章 序 論

韓國은 地域的으로 협소한데다 자원면에서 貧弱하므로 國際經濟活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成長, 開發, 産業化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이미 1962年 제1차 經濟開發 5개년 計劃이 처음 실시될 때부터 뿌리 깊게 周知· 認識되었던 사실이다. 그러나 韓國은 地政學的인 位置에서 볼 때 社會主義 國家와 대치하고 있는 最尖兵的 立場에 있기 때문에 國際經濟協力에 있어서도 최악의 條件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1959年 이후, 유럽이 歐洲共同 市場으로 통합되는 것을 비롯하여, LAFTA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CARIFIA (Carribean Free Trade Association), CACOM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등이 形成되고, 이어서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등이 結束되면서, 韓國은 말 그대로 四顧無親의 고립으로 經濟活動을 自活 開拓하여 나갈 수 밖에 없는 立場에 있었다.

더우기 이념 대립의 침예화에 따라 韓半島는 이를 實踐하는 결전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國防과 安保 때문에 經濟成長에 負擔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能動的으로 이러한 立地條件에서 탈피하고 또한 地政學的인 악조건을 개선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乾坤一擲의 北方政策 樹立이 불가피 하였다. 그동안 韓國의 成長에 寄與한 外國市場은 물론 西方國家 아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國際收支가 逆調되고 通商壓力이라는 새로운 形態의 긴장이 變造되면서 韓國의 對北方政策의 合當性은 더 크게 認識된 셈이다.

東歐 및 亞細亞의 社會主義 國家들 가운데, 人口 및 經濟規模로 보아 韓國을 능가하는 國家는 蘇聯과 中國 뿐이다. 이 두나라는 地域的인 위치가 韓國의 北方이 되기 때문에, 다른 社會主義諸國과 함께 韓國의 北方政策은 자연히 이 두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흔히 對北方政策이라 함은 廣意로 對社會主義 國家에 대한 政策을 의미하나 狹意로는 中國과 蘇聯을 그 集中的인 對象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未修交 國家들 사이의 經濟協力은 가장 원시적인 形態인 三角貿易 또는 間接貿易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對蘇, 對中貿易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間接貿易으로 시작되었다. 즉 홍콩, 日本, 오스트리아, 荷蘭, 스위스 등과 같은 제3국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례로 1980年代 전반기에 우리가 中國과의 交易을 위해 홍콩을 거쳐 間接貿易의 形態를 취한 交易量의 規模를 보면 <表 3-1>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積極的인 對北方政策은 서서히 이러한 間接貿易形態를 變化시켜, 直接貿易으로, 다시 直接投資와 같은 고차원의 經濟協力으로 그 形態를 바꾸어 나가고 있을 뿐더러, 현재의 趨勢는 그 規模마저도 擴大되고 있는 도정에 있다.

<表 3-1> 홍콩 經由 韓·中間 交易規模

(單位: 백만 달러)

區 分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한국의수출	45.2	145.0	55.7	45.0	160.7	335
수 입	33.3	73.8	93.7	115.4	184.8	249
계	78.5	218.8	149.4	160.4	345.5	584

資料: 홍콩 政廳統計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對中國關係에서 얻어질 수 있는 經濟協力の得失을 評價하고, 다시 그 可能性을 전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최근 中國訪問中에 觀察, 論議, 분석된 바에 基礎하여 이러한 의의를 다시 한번 確認시키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第 2 章 韓 · 中 經濟協力の 增大方案

### 第 1 節 韓 · 中 經濟協力 現況

1978年 中國共產黨 제11기 三中全會에서 始發된 中國經濟 近代化를 위한 開放의 意志는 中國經濟가 社會主義 經濟로서 갖는 한계들을 克服하고 中國經濟를 現代化하자는 목표의 設定으로 現實化 되었다. 社會主義 體制의 經濟는 中國經濟 뿐만 아니라 東歐 社會主義 國家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5年 蘇聯에서의 리베르만 改革이라든지, 1968年 헝가리에서의 新經濟機構 (New Economic Mechanism)와 같은 새로운 概念은 소위 社會主義 經濟가 어느 정도 후진성을 탈피한 狀態에 있어서 까지도, 成長과 開發에 있어서는 技術의 부족으로 所謂 外延的 限界 (extensive limit)를 當面하게 된다는 必然的인 事實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后진성마저도 벗어나지 못한 狀態에서 文化革命을 경험하게 된 中國은 理念에 까지 도 전을 받으면서 體制改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表 3-2〉에서 보여지는 中國의 經濟規模는 그 絶對的 規模에 있어 최근 比較적 빠른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어 그 成長 潛在力을 주목받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事實이다. 특히 GNP에 있어서의 과거와 최근 몇년의 成長率을 볼 때 최근의 높은 成長趨勢가 돋보이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比較해 보면 蘇聯 및 東歐諸國은 물론이고 美國 그리고 低開發 國家들과 比較가 되지 않을 만큼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3〉 참조).

〈表 3-2〉 中國의 主要 經濟指標

	1984	1985	1986	1987	1988
國 民 總 生 產 (10억 중국원)	865.1	1,037.0	1,118.0	1,223.0	1,369.4
1 人 當 國 民 總 生 產 (중국원)	836	991	1,054	1,132	1,231
인 구 (백만명)	1,035	1,046	1,061	1,080	1,105
輸 出 (십억달러)	23.9	25.1	30.9	39.5	47.6
輸 入 (십억달러)	23.9	38.2	42.9	43.4	55.3
經 常 收 支 (십억달러)	2.5	-11.4	-7.0	0.1	-5.5
消 費 者 物 價 上 升 率 (%)	2.7	12.2	6.7	7.3	20.0
外 債 (십억달러)	13.0	16.5	22.7	28.2	35.0
金 保 有 高 (십억달러)	15.1	12.7	11.5	16.3	17.5

資料: Business International, China, North Korea, Country Report No. 1, 1989.

體制改革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 가운데에서 經濟協力에 관한 부문에만 焦點을 맞추면, 우선 對外貿易에 대한 措置를 들 수 있다. 社會主義 國家는 先後進을 막론하고, 體制의 이념상 國際貿易을 소위 帝國主義的 特性的 전형인 不等價交換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하려고 하는

〈表 3-3〉 실질 GNP의 成長率 變化趨勢의 比較

(單位: %)

	中 國	蘇 聯	東 歐	低開發國	美 國
1961-1965	-	4.9	3.9	6.3	4.8
1966-1970	-	5.1	3.8	6.7	2.8
1971-1975	5.5	3.1	4.9	7.0	2.3
1976-1980	6.1	2.2	1.9	5.5	3.3
1981-1985	9.2	1.8	1.2	2.5	3.0
1984	12.0	1.4	3.6	4.1	7.0
1985	12.0	0.7	0.7	3.1	3.1
1986	7.8	3.9	3.0	4.1	3.0
1987	9.4	0.5	0.6	3.1	2.0

資料: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8.

本能的인 特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自立을 經濟建設의 基本目標로 삼거나, 필요한 경우 國際去來에 임하더라도 國家의 專擔機構에 一體의 業務를 위탁시키고 있으므로, 國際市場의 需給과 競爭에 따라 去來가 形成되는 것이 아니고, 制度的으로 그리고 政策的으로 실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貿易의 規模는 제한 縮小되고, 體화된 技術은 이전될 수가 없게 된다. 여기에 바로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 또 다른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

1979年 對外貿易에 관한 常任業務를 中央集權的인 形態로부터 분산되고, 소위 '中外合作企業法'이 공표되면서, 特別經濟區가 設定되고, 外資導入이 推進되자 〈表3-4〉에서 보듯이 中國의 對西方 經濟協力은 加速化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參與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제는 中國과의 經濟協력이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는 段階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對中 輸出入規模는 이미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增加一路의 趨勢를 보이고 있다.

〈表 3-4〉 中國에의 外國人 直接投資額 趨勢

年 度	認 可 基 準 件 數	契 約 基 準	實 投 資 基 準
		金 額(억달러)	金 額(억달러)
1979 - 1982	922	60.10	11.66
1983	470	17.32	6.36
1984	1856	26.51	12.58
1985	3073	59.32	16.61
1986	1498	28.34	18.74
1987	2233	37.09	23.14
1988	5945	53.00	31.90

資 料 : 中國統計年鑑(1989年度).

〈表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國과의 交易은 1979年 交易을 시작한 이래 비약적인 上昇趨勢를 보인다. 특히 1988年の 경우 兩國의 交易規模는 30억 달러를 넘어 서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一部企業의 合作投資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韓-中의 經濟的 協力關係는 長期的으로 긴밀화되어 가고 있는 뚜렷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정확한 統計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約 30~50個의 企業이 中國에서 投資가 進行되고 있으며, 80件 이상의 合作投資가 協商 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大字企業은 1988年 6月부터 냉장고를 製造하는 企業體에 香港을 통해 合作投資를 하여 中國에 進出한 최초의 大企業이 되었으며, 이밖에 三星과 럭키 金星이 TV브라운관, 철관, 라면 등을 生産하는 合作企業을 가동하고 있다. 韓國은 中國에

〈表 3-5〉 韓國의 對中國 貿易 趨勢

(單位：1백만 달러)

年 度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總交易量
1979	4	15	-11	19
1980	115	73	42	188
1981	205	148	57	353
1982	48	81	-33	129
1983	51	83	-32	134
1984	229	233	-4	462
1985	683	607	76	1,290
1986	714	680	34	1,394
1987	813	673	140	1,486
1988	1700	1387	313	3,087

出 處：大韓貿易振興公社

進出해 있는 合作投資의 規模는 全體의 48퍼센트, 約 12.5백만달러에 達하고 있다고 推測되기도 한다. 앞으로 中小企業協會 차원에서도 進出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合作投資의 規模는 더욱 擴大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最近 天安門 事態로 인한 이념상의 問題로 韓·中關係가 약간 이완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으나 根本的인 紐帶에 있어서는 變化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基本的인 姿勢에 서서 韓·中 經濟協力の 現況과 未來를 평가 한다면 우선 다음과 같은 當爲性으로 부터 出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韓國과 中國은 地理的인 접국이라는 이점을 지닌다. 北韓을 우회한다고 하여도 中國이 重點開發區域으로 구상하고 있는 瀋陽과 大連等地的 遼東省은 비행기로 두시간여 밖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上海, 또는 江蘇



省, 靑島地區 역시 그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거리로 보아서는 日本의 관동성 보다도 오히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中國 東北三省 지역에서 生産되는 다용적 상품으로서의 곡물, 有煙炭 등의 原資材 供給에 있어서 運送費의 절감 등은 根本的인 이점으로 存在하고 있다.

둘째로 韓國과 中國은 역사, 文化的인 結束關係가 있으므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흡사하기 때문에 모든 去來關係에 있어서 文化的 異質感이 거의 存在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東北三省은 우리의 古代史로 부터 最近세사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共存帶的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同胞들이 小數 民族으로서의 독자적인 생활로 關曠할만 하며, 經

〈表 3-6〉 中國의 主要 輸出入 商品(1987年)

구 분	품 목	규모(10억달러)
수 출	섬유류, 의류	5.8
	석유 및 관련제품	4.0
	채소 및 과일류	2.0
	기계 및 수송장비	1.7
	금속제품	0.8
	곡 물	0.6
수 입	기계 및 수송장비	14.7
	통신장비	1.5
	자동차	1.3
	사무기기류	0.7
	철 강	4.8

資 料: Business International, China, North Korea, Country Report  
No. 1, 1989.

濟協力の 強化는 窮極的으로 우리나라 동포의 經濟生活을 潤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資源의 供給源으로서의 市場과 우리나라 商品의 販賣市場으로서의 中國經濟는 거의 무한한 可能性을 지닌다. 中國은 纖維 및 의류, 石油 및 관련제품, 그리고 農産物 등 一次産物을 주로 輸出하고 있으며, 主要 輸入 品目은 電子 및 機械, 輸送裝備, 그리고 철강류 등이 있는데 우리와의 交易에선 <表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兩國이 1次 産品과 2次 産品 간에 뚜렷한 補完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中國 현지의 여행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광활한 農耕地는 農業에서의 基本商品으로서의 原料를 提供받을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露天 採掘되고 있는 有煙炭은 動力資源 供給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中國이 生産하고 있는 天然資源의 規模를 볼 때 이는 더욱 信憑性을 얻게 된다.

<表 3-7> 한국의 對中國 수출입 대상품목

(單位: 백만 달러, %)

품 목	1987年		1988年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농 작 물	8.73 (1.1)	252.90 (29.2)	7.24 (0.4)	385.09 (27.8)
석탄및광물	19.62 (2.4)	124.10 (14.4)	15.53 (0.9)	222.36 (16.0)
화 학 물 질	179.55 (22.1)	55.51 (6.4)	316.24 (18.6)	76.13 (5.5)
섬 유 류	181.16 (22.3)	374.10 (43.2)	194.89 (11.5)	468.04 (33.8)

〈表3-7〉의 계속

품 목	1987年		1988年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금 속 류	173.28 (21.3)	48.06 (5.5)	82.67 (4.9)	198.89 (14.3)
기 계 류	45.87 (5.6)	0.48 (0.1)	279.18 (16.4)	2.73 (0.2)
전 자 제 품	168.42 (20.7)	0.32 (0.0)	782.69 (46.0)	1.14 (0.1)
기 타	36.15 (4.4)	10.58 (1.2)	20.36 (1.2)	32.30 (2.3)
총 계	813.17 (100.00)	856.97 (100.00)	1,700.20 (100.00)	1,348.69 (100.00)

資 料 : 대한무역진흥공사(괄호 안은 각품목의 비중)

일부 研究結果에 의하면 中國이 어느 정도 工業化되면 이러한 資源은 自國의 需要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表 3-8〉, 〈表 3-9〉를 통해 볼 때 아직 시기적으로 상조한 判斷이라고 하겠다. 또한 中國의 주요 도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제 또는 소련제 자동차의 운행빈도로 보아 우리나라 製造業의 市場으로서의 可能性이 없지 않다.

일부 日本企業의 주장대로 中國에서의 企業經營이나 對中國貿易에 있어서 일본이 經濟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나 1931년 滿洲事變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日本이 中國, 특히 東北三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일본의 反應과는 달리 그 역의 可能性이 存在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재로 中國은 低廉한 勞動力의 무한한 供給源으로서의 利點을 우리에게

〈表 3-8〉 중국의 1차 에너지 생산추이

연 도	에너지총생산 (표준탄만톤)	석 탄 (만 톤)	원 유 (만 톤)	발전량 (억KWA)
1984	75,961.9	76,324.9	11,450.8	3,745.6
1985	83,539	84,409	12,472.0	4,072.7
1986	86,234	89,817	13,032.9	4,454.5
1987	89,200	83,893	13,403.6	4,933.5
1988	93,406	94,709	13,687.4	5,390.2

資 料 : 産業研究院, “共產圈經濟”, p.199.

〈表 3-9〉 중국의 공업총생산액 및 주요제품 생산액

(單位 : 億圓, 만톤)

연 도	전 국 공 업 생 산 액			粗 鋼	화학비료	시멘트
	총 계	경공업	중공업			
1984	6,984.2	3,454.8	3,592.8	4,336.6	1,482.6	12,107.8
1985	8,251.5	4,134.2	4,117.3	4,666.0	1,335.6	14,245.6
1986	8,957.6	4,470.5	4,487.1	5,205.1	1,425.8	16,156.2
1987	10,279.6	5,124.2	5,155.4	5,601.7	1,703.3	18,128.2
1988	12,135.6	6,127.6	6,017.5	5,917.5	1,767.5	20,337.2

註 ; 工業生産額은 1980년도 기준의 불변액임.

資 料 : 産業研究院, “共產圈經濟”, p.198.

시사하여 준다. 중국의 11억의 근면한 인구는 거의 生計費 水準線上的 賃 金으로 막대한 勞動力을 제공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表 3-10〉에서 보는 賃金水準은 중국의 賃金水準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低位인 가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임금상승의 추세나 다른 나라 의 임금수준의 비교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勞動集約的인 산업에서 絶對

的으로 우위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表 3-10〉 中國의 勞働者 月平均 賃金 水準

(單位: 中國 元)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50	54	62	62	65	68	80	93	108	119

資 料: 「中國統計年鑑」.

註 ; 職工資本總額을 職工人數로 나눈 것임.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선 先進工業國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露呈되었던 獰연한 歷史的 事實이다.

그러나 어느 經濟를 막론하고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勞働集約的 商品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위하여 海外勞働力의 輸入이라는 구상까지를 고려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러한 狀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中國의 좀 더 풍부한 勞働力을 직접 수입함이 없이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將來性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研究가 필요하겠으나 피상적으로도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 없지 않다.

다섯째로 中國이 政治, 經濟體制面에서 社會主義 國家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中國과의 經濟協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對社會主義 國家와의 交易 活性化를 위한 교두보로서 中國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게 하여 양국사이의 經濟的 利害增進은 물론 社會主義 國家圈 全域에 걸친 이익도 相互 確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緊張關係에 있는 對北韓 關係에서도 緩和의 실마리를 長期的으로 찾아 낼 수 있다.

西獨의 對東獨政策 가운데 하나가, 西獨은 현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독일인이 부모의 어느 한사람만 되어도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統獨

의 실마리를 間接적으로 東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統一의 방법을 直接的인 對北韓과의 관계에서만 찾지 말고, 社會主義 諸國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동포들과 積極적인 관계 설정을 통하여 間接적으로도 推進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對社會主義 經濟圈域과의 활발한 經濟協力の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利點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 第 2 節 對中國 經濟協力에 있어서의 否定的 側面

어느 나라의 經濟協力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것처럼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도 否定的인 측면, 애로 등의 問題點이 없을 수는 없다. 이미 여러 사람들의 觀察과 분석에서 經驗된 바와 같이 中國과의 經濟協力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과 불투명한 전망 등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우선 人的 資源의 資質이 同質的이라는 점에서, 또한 文化的 유산이나 생활양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오히려 還來效果(흔히 부메랑 效果라고 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의 公업화의 촉진에 중국적으로 크게 이바지하게 될 韓國의 對中國 經濟協力은 中國을 마침내는 經濟協力の 대상국으로만 存續시키는 것이 아니고 競爭國으로 부상시키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韓國經濟에 어려움을 주게 될 可能性이 없지 않다. 작금까지의 대만과의 관계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조망한다면 그렇게 還來效果가 奏效할 可能性은 더욱 분명하여진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점은 중국의 현재의 개발 상태가 아직 저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나 1997년 홍콩 합병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기의 도래가 크게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韓國과 中國의 體制와 理念의 상이성은 여러가지 예기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政治와 經濟가 분리되어 있어서 政治運營의 功過가 經濟運營에 미치는 影響이 심하지는 않으나 中國처럼 분리하지 않은 體制에서는 相互가 密着되어 있어서 거의 하나의 局面에서 左右될 수 있다. 본 방문단이 북경 소재 국무원 산하 經濟體制改革委員會를 방문하여 상호 經濟討論會를 갖는 기회에서 수차에 걸쳐 天安門 事態가 中國의 經濟開放에 미칠 影響에 대하여 문의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이 始終一貫으로 불변이라고 주장되었으나, 우리는 최근 진전되는 변화로 보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바를 바로 지적하여 주고 있다. 더우기 私有와 私營이 原則적으로 認定되지 않고 있는 中國의 경우는 경제운영상의 변화나 파오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 國民經濟 전반에 걸쳐 總體的으로 완충되어 흡수되나, 우리나라에서 처럼 개인의 經濟活動이 個人的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완충되지 않는 경우에는 情勢變化에 따른 예견치 못하는 變化가 우리나라 企業에 미칠 影響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個人的으로나 私的으로 감당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로 中國의 傳統的 관료주의는 스탈린식의 사회주의와 융합되어 중국 고유의 또 다른 관료적 非效率性 또는 專橫을 창출하게 되었고 따라서 바로 이 점이 각종 認·許可를 중국측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우리나라와 中國經濟協力 當事者로서 企業人和 管理人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봉착하게 될 애로가 될 것이다. 君主制下的 中國이 위계에 따르는 體面, 權威, 傲慢 등의 비효율을 낳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인지되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가장 教祖主義的인 社會主義가 도입되면서 中國共產黨이 갖는 위계질서는 더욱 강화되어 임무로 맡기어진 權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전권적인 행사

가 가능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형편이다. 따라서 이 점은 對中國 經濟協力에 있어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할 문제점일 뿐더러,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네째로 중국 東北三省의 경우에는 工業化를 效率的으로 지원하여 줄 社會間接資本의 시설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 運輸, 保管, 遞信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工業化를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즉 로지스틱이 결핍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교통·운수의 태반을 점유하고 있는 철도는 아직도 대부분이 재래식의 石炭 機關車에 의하여 運營되므로, 소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경우에도 路幅의 협소, 포장의 미비 등으로 그 效率性은 우리나라에 비교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신중한 고려없이 諸般 豫測이나 經濟計算이 正確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社會間接資本 未備의 問題는 經濟協力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政府나 國際機構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별도의 措置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다섯째로 현재의 中國의 産業化 정도로 보아 현지에서 연계될 수 있는 連關産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점이다. 곧 副資材를 비롯한 대부분의 物品의 供給을 中國國內에서 調達받을 수 있다는 保障이 없기 때문에 기초 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國外 調達되어야 할 것이라는 커다란 전제위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中國의 工業化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問題이므로 역시 장기적인 해결에 의존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여섯째로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社會主義 國家가 그러하듯이 중국에서의 모든 價格은 複數體系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外換의 부족 때문에 정부는 公正換率과 동시에 '外換調節센터'에서 通用



되는 換率을 運營하고 있으며, 암시장의 換率은 또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原價計算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중국의 公正 換율의 變動 推移는 <표 3-11>과 같으며 '外換調節센터'의 換率은 地域에 따라 다르나 통상 1달러=5~6중국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貨金이나 이자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貨金의 경우에는 單純 貨金率만을 고려하는 것은 커다란 問題를 일으키게 되는데, 住宅, 教育, 醫療 등에 대한 보수로서의 배려가 항상 뒤따라야만 된다.

끝으로 經濟改革 이전까지 만성적으로 政府가 보장하여 준 직장, 즉 '철반완(鐵飯碗)'과 '대와반(大鍋飯)'만에 길들여진 中國勞動者들의 職場에 대한 태도와 生産性에 대한 철저한 認識이 없이는 經濟協力에 있어서 成功을 確信하기가 쉽게 않을 것이다.

<表 3-11> 중국원貨의 對美 換率 추이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496	1.530	1.756	1.923	1.981	2.796	3.202	3.722	3.722	3.722

資 料 : 「中國金融」, 各號

### 第 3 章 韓·蘇 經濟協力 增大 方案

#### 第 1 節 序 言

그 동안 冷戰 論理로만 일관되어 오던 韓·蘇 關係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수년전만해도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던 사건들이 요즈음 韓·蘇 關係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양국간의 문화·스포츠 교류를 시발로 최근에는 양국간의 經濟分野 協力에 관한 논의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蘇聯은 韓國의 비극적 역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관계로 韓國戰爭 이후 蘇聯은 우리에게 敵性國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간의 交流에는 북한의 존재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곤란한 많은 제약 요인이 존재해 왔고, 따라서 韓·蘇 양국간 실제 交流의 폭과 질은 거의 무시되어도 좋은 정도로 미미했었다. 그러나 韓國 政府의 北方 政策 추진과 고르바초프 체제 등장으로 인한 蘇聯의 開放·改革 政策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점차 相互 協力を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현재 양국은 相互 國家 利益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非公式的이고도 소극적인 접촉의 단계를 지나 經濟的 實益을 추구하는 相互 協力の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가고 있다.

韓·蘇 交流 擴大의 직접적 요인중의 하나는 新世代의 기수로 등장한 고르바초프의 改革 政策이다. 우리에게 페레스트로이카로 더 잘 알려진 蘇聯의 再編 政策은 볼셰비키 革命 이후 最大의 社會 改造 作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蘇聯 權府의 頂點으로 부상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기본적으로 종래에 단속적으로 실시되곤 했던 과거의 개혁 정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改革 路線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침체를 거듭해 온 蘇聯의 經濟難 해소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하지만, 政策의 公開性(글라스노스찌), 民主化의 擴大, 對外 政策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思考(노보예 미슬레니예),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 정치·사회 분야를 포함한 包括的 改革 政策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改革에 대한 고르바초프 정권의 熱意와 推進力이 과거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임을 상기할 때 현 蘇聯의 改革 政策은 가히 革命的인 今世紀 最大의 社會 再編 作業으로 평가받기에 하등 손색이 없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그의 改革 路線은 蘇聯에 있어서 단순히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나 정책, 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뜻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르바초프의 權力 承繼는 그 스타일이나 知識, 歷史觀에 있어서 전임자들과 구별되는 새로운 政治的 世代的 登場과 革命的 新政策 추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 자체의 변화는 그들이 과거 資本主義 諸國인 美國의 從屬國으로 간주해 왔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수반하였다. 蘇聯은 開途國의 선두 주자로 그 동안 성공적인 經濟 開發을 이룩해 온 韓國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한국이 自國 經濟 活性化에 적합한 經濟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모색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韓國經濟는 중간 단계의 기술분야에서 매우 능률적인 經濟構造와 商品 生産 能力을 보유하고 있어, 소련은 현실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産業構造와 商品生産構造를 가진 西方 先進國과의 經濟 交流로 부터 얻을 수 있는 經濟 效果보다는 경제 구조상 補完性이 많은 韓國과의 協力を 통해 더욱 효

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韓國측의 입장에서 보면 蘇聯과의 交流와 協力の 增大는 韓半島를 위요한 國際的 緊張 狀態 緩和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향후 國際 舞臺에서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協力を 확대하여 이를 통하여 韓國의 國際的 地位 向上과 함께 韓半島 平和 統一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經濟的인 측면에서 蘇聯과의 通商과 協力の 증대는 美國과 日本에 편중되어 있는 交易 市場을 多邊化하고 또한 交易量을 增大시켜 점차 심해지고 있는 西方 先進國과의 貿易 摩擦을 줄이고 蘇聯의 막대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최근 資本과 技術의 輸出을 모색하고 있는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 이에 부합되는 잠재력이 풍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韓國의 北方 政策과 蘇聯의 開放·改革 政策의 추진으로 인하여 점차 증대되고 있는 韓·蘇 經協의 背景과 現況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兩國의 經協 增進에 관한 提案 및 향후 展望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 第 2 節 蘇聯의 對外 開放 政策과 最近의 經濟 動向

### (1) 改革 背景과 方向

고르바초프가 蘇聯 權府의 핵으로 등장한 직후인 1985년 4월의 蘇聯 共產黨 中央委 總會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되어 기본 원칙이 공식화되고, 1986년 2월 제27차 蘇聯 共產黨 黨大會에서 일반 정치 노선으로 공식 추진된 페레스트로이카(改革, 再編) 政策은 蘇聯 社會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출발점이었다. 1984년 黨 中央委의 蘇聯 社會 全般에 대한 평가에서

蘇聯의 상황은 심각한 社會·政治·經濟的 危機에 처해 있어 지체없이 혁명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러한 위기의 타개를 위해 黨과 政府는 전면적인 改革 政策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現 蘇聯의 改革 政策은 본질적으로 蘇聯型 社會主義 建設의 부작용을 제거, 社會主義 體制에서의 발전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 전임자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 구축되고 발전되어 온 黨機構, 國家體制, 社會制度, 文化類型 등 본래의 社會主義 理念에서 이탈된 제도적 유산 및 시행착오로 인한 諸 矛盾의 청산을 위한 노력이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으로 되고 있다.

블세비키 革命 이후 資本主義 國家의 市場經濟體制와는 相異한 國家主導의 計劃經濟를 통해 量的 經濟發展을 추진해 온 蘇聯 經濟는 과거 人爲的인 經濟 開發 政策에 의해 단기간에 급속한 成長과 工業化를 성취했다. 전통적으로 重工業 위주의 外延的 成長 전략을 추구해 온 蘇聯 經濟는 60년대까지 西方 先進國에 비해 높은 成長率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革命 당시 經濟的 後進國이었던 蘇聯이 社會主義 宗主國의 지위에 걸맞은 經濟力을 유지하며 西方 國家들과 體制 競爭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서면서 經濟 成長率이 급격히 둔화되어 經濟發展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고, 과거 15년간의 國民所得 增加率이 成長期에 비해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더구나 향후 經濟 狀況을 가름할 生産性, 商品의 品質 水準, 化學·技術의 발전 속도 등에 있어서 西方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다.

蘇聯은 이미 60년대 중반에 重化學 工業 주도의 高成長 戰略이 가져온 폐단을 수정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적 경제개혁 조치들을 단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經濟의 構造的 問題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70년 이

후 3차례에 걸친 5個年 計劃의 目標들도 달성하지 못했다. 蘇聯 經濟의 문제점으로는, ①지나친 中央 集權的 計劃 經濟의 非能率性, ②경직된 行政 體制와 經濟 部門의 타성적 官僚主義의 漫然, ③外延的 成長에서 集約的 成長으로 이행 지연, ④勞動力과 投資 財源의 부족, ⑤資源 開發上의 애로와 開發 코스트의 증가, ⑥生産財와 消費財 생산의 불균형, ⑦科學·技術의 정체, ⑧輸出 不振, 國際 原資材價 하락 및 外債 累增으로 인한 硬貨 調達의 어려움, ⑨農業의 낙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상기한 蘇聯 經濟의 구조적 문제들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危機의 認識으로부터 改革 政策이 출발하게 되었다.

蘇聯 經濟의 改革 方向은 분석 방법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다. 蘇聯 經濟는 이미 과거의 외연적 성장 단계를 지나 內包的 成長이 필요한 단계에 진입해 있다. 經濟의 質的 成長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조치는 生産 技術의 발전 및 經濟 管理 體制의 효율적 운용을 필요로 한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제27차 黨大會를 통하여 2000년까지의 展望을 설정, 향후 蘇聯 經濟의 재건을 위해 經濟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成長 戰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科學·技術의 發展 시스템과 經濟 메카니즘의 改善을 주요 과제로 삼아 經濟 分野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정부는 現 蘇聯 經濟의 문제점이 기본적으로 社會主義 經濟 體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蘇聯의 經濟 管理 方式과 機構 運營의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經濟 改革 基本 方向은 1)中央 計劃 管理 機構의 기능 변화와 간소화, 2)企業의 자주성과 창의성의 확대, 3)行政的 管理 方式에서 經濟的 管理 方式으로의 이행, 4) 經濟의 집중화, 전문화, 협동화를 위한 제도적 재편성, 5)관리의 민주화를 통한 책임제 확립 및 經濟 組織의 業務 明瞭化 등에 두어지고 있다.

## (2) 蘇聯의 最近 經濟 動向

70년대에 들어서면서 下降 局面에 접어든 蘇聯 經濟는 고르바초프 정권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好轉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經濟 分野를 제외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諸分野의 改革 成果와 비교하여 볼 때 經濟 分野의 개혁 성과가 아직까지 可視化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sup>1)</sup> 蘇聯의 경제 통계에 의하면 國民總生産(GNP) 및 生産國民所得(NMP)은 1986년 이래 제11차 5個年 計劃期(81-85)와 큰 차이가 없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89년 상반기에는 양자 모두 成長率이 둔화되고 있으며 계획치에도 미달하고 있다. 工業總生産 增加率은 4%를 전후한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89년에 들어서는 2.7%로 대폭 하락했다. 消費財의 生産 增大는 蘇聯 政府의 최우선 사업 분야인 관계로 生産財 생산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아직까지 국민의 需要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農業 生産의 정체는 86년의 일시적 회복을 제외하고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蘇聯 經濟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주민의 消費 水準을 나타내는 小賣 賣上額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消費 物價의 생산량이나 소비량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매 가격 인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상품 판매량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蘇聯은 勞動

---

註 1) Pravda, 1989. 2. 6. 아간베기안의 칼럼 「무엇이 개혁을 지체시키는가?」, 아간베기안은 蘇聯 경제의 개혁 성과 부진 요인으로 1)蘇聯 經濟의 退色한 비효율의 고리와 기득권층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력하며, 2)현재까지의 改革이 革命的이라기 보다는 改良的이었으며, 3)經濟政策의 정책결정 과정이 公開性和 民主化가 아직까지 初步 段階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生産性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名目 賃金 引上을 단행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반 소비 물자 가격의 앙등을 유발했고 消費財의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勞動生産性을 초과하는 급격한 名目賃金의 引上은 최근 그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재정 적자<sup>2)</sup>와 함께 蘇聯國家 經濟에 있어 심각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表 3-12〉 蘇聯經濟의 主要 增加率 指標

單位：%

	1981~1985	1986	1987	1988	1989	
	실 적	실 적	실 적	실 적	계 획	실 적 (상반기)
국민 총 생산 (GNP)	4.0	5.0	3.3	5.0	6.6	3.5
생산 국민 소득(NMP)	3.6	4.1	2.3	4.4	6.0	2.5
공업 총 생산액	3.7	4.9	3.9	3.9	3.4	2.7
생 산 재	3.6	5.3	3.8	3.5		1.8
소 비 재	3.9	3.9	4.2	5.1	10.3	5.3
농업 총 생산액	1.0	5.3	0.6	0.7		
노 동 생산액	3.1	3.8	2.4	5.1		
공 업	3.1	4.5	4.1	4.7		1.8
농 업	1.5	8.6	2.5	3.0		
1인당실질국민소득	2.1	2.5	2.0	3.5		

資料：蘇聯 東歐 貿易會, 「蘇聯 東歐 經濟 速報」, 1989. 2. 15. No. 776, p.2  
; 蘇聯 經濟 新聞, 1989 No.5, No.18; 프라브다, 1989. 7. 29

2) Pravda, 1989. 11. 1.

蘇聯 最高 會議는 總 歲出 4,899억 루블(7,544억 달러)에 달하는 90년 도 연방 豫算을 승인, 이 중 재정 적자 總當금은 600억 루블(934억 달러)이었음.



對外 貿易은 원자재 등 1차 產品을 주로 輸出하고 機械類를 비롯한 工 產品을 輸入하는 後進的 貿易 構造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5 년 이래 總 輸出入 金額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貿易 收支는 80년대 중 반 이래 油價 하락과 國際 原資材 가격의 약세로 인하여 石油와 原資材의 輸出 單價가 하락하고, 食糧과 消費 物資의 輸入이 급격히 늘어나 1989년 에 들어서는 赤字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최근 對外 貿易 分野의 활성화 조치로 企業에 대하여 직접적인 貿易權을 허용하고 消費財 購入에 대한 企業의 硬貨 使用 限度를 확대한 이후 이러한 개혁 조치가 輸出보다는 輸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蘇聯 企業의 國際 競爭力의 약화로 인하여 輸出을 크게 신장시킬 수 없는 現 蘇聯 經濟의 脆弱性을 반영하고 있다.

〈表 3-13〉 蘇聯의 貿易 收支

單位：100萬 루블, f.o.b.

	1985	1986	1987	1988	1989 1)
輸 出	72,664	68,343	68,142	67,115	33,100
輸 入	69,429	62,588	60,740	65,043	34,200
貿易收支	3,235	5,755	7,402	2,072	-1,100

資 料：Vneshnyaya Torgovlya SSSR, 各年號.

註：1) 1-6월간, Pravda, 7. 29에서 작성.

國內 生産 基盤의 擴充과 先進 技術 및 資本의 導入이라는 취지에서 활 성화되고 있는 外國人 直接 投資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제한 완화 조 치를 통해 1989년 10월말 현재 약 900개의 外國人 合作 企業이 蘇聯에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sup>3)</sup> 그러나 合作 企業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 규모가 100만루블 미만으로 小規模이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商業, 觀光, 호텔, 醫療, 保健 등 소비·서비스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第 3 節 韓·蘇 經濟 交流 現況

韓·蘇 經濟 交流의 확대 배경에는 兩國의 政治, 經濟, 社會的 諸般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蘇聯은 고르바초프 정권의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國際 情勢와 西方을 포함한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協力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노력은 軍費 競爭을 통한 美國과의 대결 정책을 종식하고 相互 依存과 항구적인 국제적 안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思考에 입각한 신축성 있는 對外 政策 전개를 통하여 이미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世界 戰略의 맥락 속에서 韓國에 대한 태도 변화와 經濟的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蘇聯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經濟 分野를 중심으로 아시아·太平洋 勢力의 일원으로서의 발판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 演說을 통해 蘇聯이 아시아·太平洋 國家임

---

3) 최근 産業 研究院(KIET)과 UNCTAD가 공동 주최한 韓·東歐 經協 증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蘇聯 대표 크라스노프 박사의 발표 논문 USSR: New management mechanism in foreign economic relation. 참조

을 강조하고 이어 1988년 9월 16일 그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sup>4)</sup> 통해 더욱 구체적인 아시아·太平洋 國家와의 經濟, 安保 協力 強化를 천명했다. 특히 이 연설에서는 韓國과의 經濟 交流의 必要性을 언급하였는데 종래에 그들이 취해 온 對韓 視覺의 중대한 방향 전환과 韓國 經濟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韓國은 이미 1973년 「6.23 平和 統一 外交 宣言」을 계기로 蘇聯과 間接 交流를 시작하였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점차 對蘇 交流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經濟 分野의 對蘇 交流의 확대는 經濟的 實益 이외에도 韓半島를 중심으로 한 東北亞 地域의 긴장 완화와 장기적으로 韓半島의 統一 問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韓·蘇間에는 兩國에 貿易事務所가 相互 開設되고 韓·蘇 民間 經濟協力委員會가 구성되었다. 金融 協力 분야에서는 兩國 銀行들간의 코레스協定이 이미 체결되었다. 이밖에도 부산-나훛가를 연결하는 直航路 개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兩國 航空機의 領空 通過 및 直航路 開設을 위한 航空協定 締結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兩國의 經濟 交流는 주로 交易分野에 한정되어 왔다. 이는 合作 投資나 資源 開發 分野에서는 아직까지 協力を 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韓國 企業들이 가장 손쉬운 經濟 交流 形態인 交易 分野에 관심을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의 對蘇 交易은 최근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對蘇 交易量은 1979년 輸出 740만 달러, 輸入 420만 달러였으나 작년의 경우 輸出 1억

4) Pravda, 1988. 9. 18.

그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은 아시아 정책 총론, 亞·太地域 經濟協力, 中小關係, 7개항의 平和 軍縮 提案, 多者間 協商(蘇, 中, 日, 南北韓) 등이 대외 분야에 있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음.

1,200만 달러, 輸入 1억 7,800만 달러를 기록하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88년의 한해만 해도 蘇聯과의 交易 增加率은 76.8%로 우리나라의 總 交易 增加率 27.1%를 훨씬 상회하였고, 79년부터 88년까지 9년 동안 對蘇 年平均 輸出 增加率은 35.2% 輸入 增加率은 51.7%를 기록했다. 韓·蘇間 交易은 초기에는 日本, 서독 등 제3국의 중계를 통한 間接 交易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直交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收支面에서는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出超를 기록했으나 84년부터 逆調 現狀이 나타나면서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交易 商品의 構造를 보면 韓國은 蘇聯으로부터 石炭, 魚類, 化合物, 펄프, 생모피 등 원자재와 반제품을 주로 輸入하는데 이 중 石炭의 비중이 36.1%로 가장 높고, 對蘇 輸出品目은 의류, 석유류, 내연 기관, 신발, 강관, 전기제품 등의 完製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 3-14〉 對蘇 交易 推移 및 展望

(單位:百萬 달러, %)

구 분	1987	1988	1989		1990
			상반기	전 망	전 망
수 출	67 (0.1)	112 (0.2)	85	190 (0.3)	278 (0.4)
수 입	97 (0.3)	178 (0.4)	187	296 (0.5)	369 (0.6)
총교역	164 (0.2)	290 (0.3)	272	486 (0.4)	647 (0.5)

資料:商工部 資料

註:( )안은 韓國의 總 交易에서 차지하는 比重

## 第 4 節 韓·蘇 經協의 分野別 增進 方案

### (1) 交易 分野

蘇聯은 1987년부터 종래의 國家 貿易 獨占 制度를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企業에 대해 對外 貿易權을 부여하고 1988년 蘇邦 閣僚 會議 議決로 對外 經濟 活動 促進法을 제정하여 1989년 4월부터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企業에 대해 對外 貿易權을 부여하는 對外 貿易權을 擴大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아울러 輸出入 業務의 원활화를 위해 貿易, 關稅 制度 改革 및 換率 調整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蘇聯의 對外 貿易은 빠르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sup>5)</sup>

蘇聯은 輸出入 構造上 韓國과 補完性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蘇聯의 輸出 主宗 商品은 原油, 石炭, 鐵鑛石, 木材를 비롯한 1차 產品인 原資材이며 韓國의 輸出 主宗 商品인 의류, 신발, 전자 제품 등을 주로 輸入한다. 따라서 韓國의 입장에서는 兩國間의 貿易의 補完性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輸入先 多邊化와 새로운 輸出 市場의 開拓이라는 차원에서 蘇聯과의 交易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심각한 消費財 不足事態를 겪고있는 蘇聯은 부족한 소비 물자의 수입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어 消費財 産業에서 국제 경쟁력이 강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 대한 輸出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蘇聯은 外債 累増과 輸出 不振으로 인한 만성적인 外貨 不足難을 겪고 있어 향후 급격한 輸入 擴大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韓國으로서는 蘇聯 輸出 擴大를 위하여

5) Pravda, 1988. 12. 3.

對外 經濟 活動 促進法: 貿易, 外換, 合作 投資에 관한 蘇聯 當局의 기본 구도를 천명한 법

주로 社會主義 國家간 圈內 貿易에서 成行하고 있는 求償 貿易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韓·蘇 交易 擴大에서 과거에 비해 정치적, 제도적 장애 요인으로 인한 애로점들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상호 외교관계가 없고 상이한 文化와 商去來 慣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直交易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間接去來의 비중이 커 수출입 商品의 코스트가 높은 편이고 輸出 代金 回收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장이 없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韓國은 對蘇 輸出에 있어서 美國이 주도하는 코콤(COCOM) 協定의 준수를 강요받는 입장에 있어 코콤 協定이 규정한 高附加價値 하이테크 商品의 對蘇 輸出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蘇聯과의 交易量 增大를 위해서는 相互 經濟 現實에 맞는 經濟性 있는 精確한 輸出入 品目的 選定, 다양한 求償 貿易을 통한 거래 방법의 개선 및 決濟 手段의 개발이 精實히 요청되고 있다.

## (2) 合作 投資 分野

蘇聯은 1987년 1월부터 西方 企業의 對蘇 投資를 허용하고 同年 9월과 1988년 12월에 法令 改定을 통해 外國人 投資家들에게 더욱 유리한 投資 環境을 제공하고 있다. 蘇聯은 外國人 合作 投資를 통하여, 外國의 先進 技術, 經營 方法 및 資本을 도입하여 淸약한 國內 生産 시설을 확충하고 수출 기반 강화와 불합리한 수입의 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1989년 11월말 현재 蘇聯내에 등록된 外國人 合作 企業의 數는 약 900개에 달하고 있으며 合作 기업의 設립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蘇聯과 國交 正常化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對蘇 合作 投資는 단기적인 收益性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觀點에

서 蘇聯內 市場 開拓 및 韓·蘇 經協 增進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投資환경은 제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윤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大規模 投資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韓國의 對蘇 合作 投資는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그 이유는 合作 投資가 비교적 投資 資本의 回收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蘇聯과의 經濟 交流의 경험이 적은 韓國으로서는 投資 保障 協定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며, 이윤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對蘇 合作 投資는 蘇聯의 內需市場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投資 擴大 方案으로는 對蘇 投資 經驗이 없는 관계로 초기에는 小規模 이면서 蘇聯 當局의 政策的 選擇을 받고 있는 基礎 生必品 生産 分野나 外貨를 절감할 수 있는 輸出 關聯 産業, 輸入 代替 産業 分野 등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投資의 安全性 確保를 위해 對蘇 投資 經驗이 풍부한 西方 企業과의 컨소시움(Consortium) 형성이 가능한 분야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他 分野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投資의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投資 保障 協定 및 二重 課稅 防止 協定 등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며, 루블貨의 非兌換性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蘇聯은 合作投資 誘致의 최우선 순위를 輸出 促進, 國內 産業 現代化에 두고 있는데 消費財 産業에 대한 투자가 진출 초기에 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볼 때 蘇聯 政府가 루블貨의 완전한 兌換性 확보를<sup>6)</sup> 지양하고 있고, 蘇

6) Pravda, 1989. 10. 26.

1989년 11월부터 外國人 여행자, 해외 여행 내국인들에게 루블貨의 換率을 1/10로 평가 절하하여 外貨와 교환함을 발표.

聯 內需 市場이 점차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蘇聯內 內需 市場 특히, 消費財 部門에 대한 投資는 앞으로 蘇聯의 消費財 부족 상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소비재 부문에 대한 투자는 經濟的 效果 이외에도 蘇聯 國民들에게 주는 可視的 效果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兩國間의 關係 改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3) 시베리아·極東 開發 分野

시베리아, 極東 地域은 石油, 천연 가스, 鑛物, 木材 등을 비롯한 각종 資源이 풍부한 지역이다. 蘇聯 産業 生産 施設과 人口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西部 地域에 편중되어 있어 이 지역의 각종 資源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 따라서 蘇聯 經濟는 새로운 자원개발과 균형된 국토 개발의 차원에서 현재 야심적인 시베리아·極東 開發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 開發 事業의 결과가 향후 蘇聯 經濟의 成敗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2000년까지의 極東의 長期 發展 計劃을 통해 이 지역의 풍부한 成長 潛在力을 개발하여 미래에 이 지역에 蘇聯經濟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개발은 점차 世界 經濟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太平洋 地域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韓國을 포함한 太平洋 연안국들에게 있어서 시베리아·극동의 開發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시베리아·極東 地域은 氣候가 극도로 열악하고 交通, 通信, 電力, 用水 등의 社會間接資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資源 開發에 앞서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나, 現 蘇聯 經濟는 자원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下部 構造에 대한 投資 餘力이 없는 실정이다. 蘇聯은 현



재 이러한 投資 資本 調達의 隘路로<sup>7)</sup> 인하여 西方은 물론 韓國에 대해서도 시베리아·極東의 資源 開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韓國측의 입장에서 보면 상기 개발 사업의 참여는 資源 導入의 多邊化와 안정적인 資源 供給先을 확보하는 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나, 그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현재까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약세로 인한 經濟性의 결여로 인하여 개발 사업에 참여 여부가 논의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시베리아·極東 지역에서의 資源 開發은 社會間接資本을 開發者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 자원의 가격이 국제가보다 비싸질 염려가 있으며, 불리한 자연 조건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特殊 工法과 特殊 裝備가 필요하고, 이 지역의 勞動力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勞動力을 조달하여야 하며, 정치적 이유에 따른 投資의 安全性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韓國으로서 이 지역의 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개발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개발된 자원이 수송비 등을 고려해도 국제 자원 가격보다 비싸지 않아야 하고, 상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美國, 日本 등의 先進 技術 및 資本 保有 企業과의 共同 進出 方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韓國의 입장에서 經濟性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附隨的인 投資費가 적은 水産資源 開發 分野와 수송 수단의 가용도가 높은 木材 分野이다. 이러한 자원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발 자원의 販路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 자원을 가공·처리하는 분야로의 合作企業 進出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7) 蘇聯 經濟 新聞, 1989. No.33, p.21.

1988년말 현재 蘇聯의 외채 총액을 425억 달러로 발표. 한국은 317억 달러.

## 第 4 章 韓 · 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案

東歐 諸國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초부터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經濟 政策 決定의 分權化 등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시도하여 왔으나, 정치·사회적 변화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 개혁이 중단되는 등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 현상과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심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동구 각국은 경제개혁을 재개하면서 대외 무역의 활성화와 서방에 대한 자본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對西方 經濟 交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난해 서울 올림픽 개최와 함께 政府의 7·7 특별선언 및 10·7 對北 貿易 關聯 措置 등으로 본격 진행되었던 우리의 對共產圈 交流 活動은 우리에게 北方 進出이라는 새로운 進路를 모색해 하고 있다.

더우기, 지난 1987년 이래 추진된 한·동구간 무역 사무소 개설 및 헝가리, 폴란드와의 정식 外交 關係 樹立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동구권과의 경제교류에 커다란 장을 여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구권 시장은 이제껏 서구 시장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서 모든 면에서 서구와는 전혀 다른 未知의 地域으로서 역시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점과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와 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에 상품교역 및 합작 투자 분야에 있어서 동구의 개혁 정책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우리의 對東歐 經濟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第 1 節 韓 · 東歐 經濟 協力 現況

### (1) 韓 · 東歐 關係 主要 日誌

우리나라와 東歐 諸國과의 關係 개선은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헝가리와는 1987년 12월, 1988년 3월에 각각 무역사무소를 교환·개설한 이후 상주 대표부 설치를 거쳐 1989년 2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폴란드와는 무역 사무소 개설 이후 곧바로 1989년 11월에 전격적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도 경제협력을 둘러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表 3-15〉 韓 · 東歐 關係 日誌

日 字	主 要 內 容
1973. 6. 23	한국 정부, 『6·23 선언』으로 對共產圈 國交 樹立  관심 표명
1987. 12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우리나라 貿易 事務所 설치
1988. 1	폴란드 官營 貿易 會社 서울 支社 설치
3	헝가리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6	유고 류브리아나에 우리나라 무역사무소 개설
10	유고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11	공산 국가 중 최초로 헝가리와 投資 保障 協定 체결
1989. 2	헝가리와 공식 수교
4	폴란드 바르샤바에 우리나라 무역사무소 개설
	불가리아 소피아에 우리나라 무역사무소 개설
8	폴란드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11	폴란드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노태우대통령 헝가리 공식 방문

〈表 3-16〉 國家別 關係進展의 段階와 內容

國 家	文化스포츠交流		經 濟 交 流			非公式關係 (民間協定)	公 式 關 係	
	初期型 (多者間 交流)	後期型 (雙方 交流)	間 接 交 易	과 도 기	直 接 交 易	貿易事務所	常駐代表 部 設 置	大使館 設 置
루 마 니 아	○		○					
東 獨	○		○			△		
체 코	○			○		△		
불 가 리 아	○			○		○		
폴 란 드	○	○			○	○		○
유 고	○				○	○		
헝 가 리	○	○			○	○	○	○

資料 : KIET 資料

註 : ○ 합의 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경우

△ 교섭이 진행중인 경우

## (2) 經 濟 交 流 現 況

### 1) 商 品 交 易

우리나라의 對東歐圈 交易은 1972년 무역 거래법의 개정으로 공산권과 교역의 길이 열린 이래, 서독, 오스트리아 등 제3국의 중개를 통한 간접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1988년도 한·동구간 교역 규모는 2억 1,490만 달러로 같은 해 한국 총 교역량의 0.2%에 불과하나 전년에 비해 44.6%로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동구간 교역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出超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1988년도에도 수출 1억 2,560만 달러, 수입 8,930만 달러로 우리

나라가 3,630만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동구권 중에서 폴란드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여 1988년에 수출 2,710만 달러, 수입 1,520만 달러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유고 등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동구권 교역 품목은 의류, 인조 섬유, 신발류 등 경공업 제품과 내연 기관, 철강 등을 수출하고, 수입은 석탄, 어류, 모피 등 1차산품이 主宗을 이루며, 황화물, 금속 가공 기계 등을 수입하고 있다.

〈表 3-17〉 韓國의 對東歐 交易 推移

(單位:千 달러, %)

區 分	輸 出			輸 入			交易量增加率(%)	
	'86	'87	'88	'86	'87	'88	'87	'88
폴 란 드	18,986	20,898	27,121	5,423	5,523	15,247	8.2	60.4
동 독	21,235	37,566	28,865	3,957	5,036	7,624	69.1	-14.3
형 가 리	7,316	14,985	20,692	2,515	7,697	11,438	230.7	41.7
유 고	9,668	15,982	16,631	1,059	2,182	17,321	69.3	86.9
불 가 리 아	1,092	1,281	5,543	2,585	2,115	3,621	-7.6	69.8
체코슬로바키아	7,090	8,556	23,367	3,313	5,366	11,177	33.8	248.1
루 마 니 아	2,152	3,084	2,763	784	18,278	22,889	727.6	29.1
총 계	67,539 (0.2)	102,352 (0.2)	125,573 (0.2)	19,636 (0.1)	46,197 (0.1)	89,317 (0.2)	70.4	44.7

資料: KOTRA 實査値, 關稅廳 統計

註: ( )안은 한국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比重

〈表 3-18〉 韓國의 東歐圈 輸出入 品目(1986)

(단위: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여자용 및 유아용의류	46,840	1	석	51,243
2	남 자 용 의 류	39,449	2	어	10,547
3	남 자 용 내 의 류	38,911	3	금 속 가 공 기 계	7,205
4	내 의 류	13,309	4	모	6,415
5	신 발 류	7,697	5	황 화 물	3,375
6	인 조 섬유 와 단 섬유	4,241	6	무수암모니아수와암모니아수	2,720
7	내 연 기 관	3,728	7	에 털 알 쿨	2,184
8	철 강	2,474	8	선 철	1,353
9	주 석 판	2,298	9	항 생 물 질	1,037

資料: KOTRA 實查統計.

〈表 3-19〉 主要 合作投資 推進事例

국 가	업 체	진 출 내 용	비 고
헝가리	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및 컬러TV플랜트 수출·합작 공장설립</li> <li>○ 케몰임팩스社와 화학제품 독점수입 계약체결</li> </ul>	투자규모: 500만 달러, 연산15만대 삼성물산
	대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제품 생산 및 자동차부품생산 공장건설 추진</li> <li>○ 부다페스트에 지사설치 및 세인트스티븐호텔 건설추진</li> <li>○ 헝가리 신용은행(HCB)과 합작은행 설립을 위해 5천만달러 규모의 해외 CB발행 예정</li> </ul>	5,000만달러 투자 대우증권

〈表3-19〉의 계속

국 가	업 체	진 출 내 용	비 고
헝가리	력키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헝가리측 1백만대 생산규모의 CTV TUBE 및 전자오븐 합작생산 및 기술 이전 요청</li> <li>○ 부다페스트에 지사설치 계획</li> </ul>	
	선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설치 계획 및 마그네틱테이프 부문 참여 계획</li> </ul>	
	코 오 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사복제조를 위해 50만달러투자 계획</li> </ul>	
	기아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0만대의 승용차조립공장 추진</li> </ul>	
	새한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550만달러 규모의 Audio용 PC BOARD제조 중 35%투자. 제의</li> </ul>	
	경덕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말제조를 위해 200만달러 투자 계획</li> </ul>	
	대한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깅복제조를 위해 100만달러 투자 계획</li> </ul>	
유 고	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러TV공장 설치추진 및 자그레브 박람회 참가계획</li> </ul>	
	력키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오그라드에 지사설치 계획</li> </ul>	
	선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그레브박람회 참가 계획</li> </ul>	
	효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그레브박람회 참가 계획</li> </ul>	
폴란드	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대표단 파견 및 포즈란 박람회 참가 계획</li> </ul>	
	대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사설치 계획</li> </ul>	
	선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폴란드 케미칼전문회사와 5~6개 화학제품 독점판매 계약</li> <li>○ 지사설치 계획</li> </ul>	
	한일라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니스라켓 및 테니스볼 생산·제조 계획</li> </ul>	
체 코	력키금성 상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코 모토코프社와 연간 150대의 트랙터 독점수입계약</li> </ul>	

〈表3-19〉의 계속

국 가	업 체	진 출 내 용	비 고
체 코	대 우	○ 체코산 섬유직기 수입권 확보	
	한일합섬	○ 아크릴사 수출	
동 독	삼 성	○ 동베를린에 지사설치	
	대 우	○ 동베를린에 지사설치	
	효성물산	○ 동독 WMW社와 국내공작기계 수입독점 계약	

## 第 2 節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案

### (1) 經濟協力の 基系政策 方向

첫째, 對東歐圈 무역은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短期的인 이윤 추구보다는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信義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인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東歐圈은 국가마다 改革과 開放의 정도, 사회·종교·문화적인 풍토, 하나의 단위로 보기보다 各國家別 특성에 맞는 경제교류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을 통한 經濟交流가 어느 정도 확대되면, 資本, 技術 協力 및 人的 交流를 추진하여 상호 유기적인 민간 협력 체제를 형성, 政治的 關係 개선과 國交 樹立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東歐圈 國家들은 외채누적에 따른 외화 부족으로 경화를 통한 무역보다는 求償 貿易 및 合作 投資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2) 分野別 經濟 協力 增進 方案

### 가) 商品 交易

#### ① 對外貿易制度 改革

東歐 各國의 對外貿易은 원칙적으로 國家가 獨占權을 갖고 있다. 즉, 閣僚會議內에 對外貿易省과 그 산하의 對外貿易公團 (FTO) 등 國家가 인정하는 機關만이 對外貿易 業務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하는 東歐의 改革 先導國들은 改革 및 開放 政策의 일환으로 國家의 貿易 獨占權을 分權化시켜 대규모 國營 企業 등 最終 需要 企業에 독자적인 무역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代金 決済 등 資金 造成 問題를 비롯한 諸般 業務들에 있어 國家의 지원이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對外 貿易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貿易 關聯 機構들의 自律經營體制와 獨立採算制로 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② 東歐의 對外 貿易

東歐 6개국의 1987년도 총교역 규모는 세계 총교역량의 약 4.2%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대단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7년 東歐 諸國의 무역 규모는 2,030億 달러였으며 38億 달러의 黑字를 기록하였다.

圈域別 貿易 構成을 보면 유고를 제외할 경우 社會主義 國家와의 交易이 총교역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西方 先進國, 開途國과는 각각 28%, 9%를 점유하고 있다.

東歐 제국의 수입 품목중 공업 제품의 수입은 79.7%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기계·수송용 기기의 비율이 높다.

〈表 3-20〉 東歐의 交易 理況 (1987)

(單位: 10億 달러)

세계 총교역	4,871.9	동구의 총교역	203.0
총 수출	2409.4	총 수출	103.4
총 수입	2,462.5	총 수입	99.6

자료: UN, ECE,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8-89.

註: 東歐는 소련, 유고를 제외한 CMEA 6개국

〈表 3-21〉 東歐諸國의 地域別 貿易構造

(자국화폐 기준, %)

	수출				수입			
	사회주의 국가	비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비사회주의 국가		
		선진국	개도국	계		선진국	개도국	계
불가리아	84.5	6.4	9.1	15.5	76.7	15.5	7.8	23.3
체코	79.0	16.3	4.7	21.0	77.9	18.6	3.5	21.1
동독	65.7	29.9	4.4	24.3	63.3	33.2	3.5	36.7
헝가리	50.6	40.5	8.9	49.4	49.0	43.6	7.4	51.0
폴란드	46.5	43.3	10.2	53.5	47.1	45.9	7.1	52.9
루마니아	45.7	37.9	16.4	54.3	57.5	30.9	11.6	42.5
CMEA 6국	60.7	28.5	10.8	39.3	65.4	27.4	7.2	34.6
유고	35.4	50.1	14.5	64.6	27.7	59.9	12.4	72.3

자료: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88-89; OECD, Economic Surveys 1987/88, Paris: OECD, 1988.

〈表 3-22〉 東歐諸國의 對OECD諸國 貿易의 品目別 占有率

輸 出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東歐 6 國
식료품·飲料	4.0	18.7	7.4	22.4	4.2	22.5	12.3
원재료·油脂	6.2	11.6	13.9	9.7	3.5	6.4	9.0
一次産品	10.2	30.3	21.4	32.1	7.7	29.0	21.2
鑛物性 燃料	13.8	22.2	11.1	10.0	32.9	21.0	19.1
工業製品	75.8	46.8	66.3	56.6	59.2	47.3	58.9
化學製品	17.3	5.9	9.8	11.7	9.3	9.5	10.1
原材料製品	25.4	17.6	29.3	17.8	18.4	19.0	21.1
機械·輸送用機器	17.8	10.6	13.9	10.7	6.5	6.7	11.2
雜工業製品	15.3	12.7	13.4	16.5	25.0	12.1	16.5
其 他	0.2	0.8	1.1	1.2	0.2	2.7	0.8

輸 入	동독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東歐 6 國
식료품·飲料	15.3	11.7	5.9	4.4	11.6	8.8	9.0
원재료·油脂	8.2	6.4	9.2	5.1	10.5	4.8	7.0
一次産品	23.5	18.0	15.1	9.5	22.1	13.5	16.0
鑛物性 燃料	0.7	1.0	0.8	2.1	13.2	2.9	2.7
工業製品	74.6	78.3	82.9	87.2	63.4	82.5	79.7
化學製品	13.7	20.4	19.9	22.6	16.2	14.7	18.7
原材料製品	18.5	19.4	15.3	24.9	21.7	18.9	20.0
機械·輸送用機器	35.2	32.4	39.8	31.1	20.9	42.4	34.0
雜工業製品	7.3	6.1	7.8	8.5	4.6	4.6	7.0
其 他	1.2	2.7	1.3	1.2	1.3	1.0	1.5

資料 :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Imports Vol. I, Exports Vol. II, 1988.

③ 우리나라와의 交易 可能性과 有望 交易 商品

지금까지의 한·동구간 교역 규모는 매우 미미한 상태에 있어, 앞으로 교역 확대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 헝가리, 폴란드와는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직교역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여타 동구 국가들도 개방 및 개혁 정책의 확대·실시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으로 대동구 교역은 당분간 급속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東歐 무역 교류 가능 품목을 우리나라의 比較 優位 指數, 交易 對家國의 輸入 結合度 및 貿易 規模를 고려하여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23〉 우리나라와 東歐國家別 貿易有望品目

國 家	輸 出	輸 入
헝가리	기타 유기화합물, 인너튜브, 벽지 및 핀크리스타, 면사, 폴리에스터장섬유, 면과일 직물 및 셔닐직물, 재생장섬유, 혼방 합성단섬유직물, 가공석면 및 동제품, 철강압연중 후판, 철강선, 주방 또는 식탁용품, 철강제 케이블 및 로프, 면직, 브래지어, 콜셋 및 유사제품, 직물제의 의복제품용 구성 약세사리, 연필, 크레용, 분필 등	폴리 부타디엔-스틸렌고무, 재생단섬유, 뼈 및 빨속, 새가죽 및 깃털, 왁스류, 크시롤, 프로필렌, 프로필 및 이조프로필알콜, 복소환식 화합물, 헷산, 불화물 황산염, 인산염, 질산섬유소, 금속표면처리용 조제 침적제, 가죽, 재생장섬유직물, 면제의 캠핑용품, 전등 또는 유사용 유리구, 제압연용 철강코일, 철강압연 후판, 기타 엔진 및 원동기, 응집 및 성형기계

〈表3-23〉의 계속

國 家	輸 出	輸 入
유고	방모사, 폴리에스터 장섬유, 양모 혼합한 합성단섬유사, 면과일 직물 및 셔닐직물, 혼합합성단섬유직물, 재생장섬유직물, 면혼합 재생단섬유직물, 셀룰로즈 유도체, 기타 구성 섬유제품, 기타 가공철판, 철강선, 강주물, 철강제가 단선, 구조관련제품, 전기교통통제장비	동물사료, 재생단섬유, 새가죽 및 깃 제품, 증류생산처리기구, 염화비닐 모노머, 기타 질소화합물, 산화티탄늄, 인조코런텀, 황산염류, 가죽제품, 재생단섬유사, 내화건설제품, 가공석면 및 동제품, 철강압연후판, 아연판 및 띠, 전동기 및 직류 전력용 변압기, 도자제 전기전열체, 전기열저항기, 전기교통통제장비, 계산 및 제도 도안기구
폴란드	버지니아종 엽연초, 식물성액 및 추출물, 키실렌, 기타 폴리에스터장섬유, 합성단섬유사, 면 혼방 합성단섬유직물, 재생장섬유직물, 철강봉, 철강제 단선·케이블·로프, 트럭 및 트랙터 부분품, 특설기계가 장치된 수송용 컨테이너, 특수 목적용 선박, 의복제품용 구성 악세서리	기타 생모피, 폴리부타디엔-스티렌 고무, 새가죽 및 깃털 부착품, 프로필렌, 불화물 및 불화규산염, 질산염류, 면제 직물제 캠핑용품, 고탄소강 또는 합금강, 보일러 및 보조장치 부분품, 교류발전기, 전로, 주괴주형기 및 주조기계
불가리아	엽연초, 키실렌, 염화플라비닐 연료형태, 기타 폴리에스터장섬유, 합성장섬유직물, 섬유 혼방한 합성 단섬유직물, 철강의 봉, 철강압연중후판, 보통 철강선, 가공동판 및 띠, 철강제	재생단섬유, 철강부스러기, 기타 일염기산 및 무수물, 과산화물 아크노니트릴, 기타 비타민C 및 그 유도체, 재생장섬유직물, 고탄소강, 재압연용철강코일, 철강의 압연후판, 전동기류, 리밍

〈表3-23〉의 계속

國 家	輸 出	輸 入
불가리아	가닥선·케이블, 로우프 및 유사제품, 트럭 및 트랙터 부품, 화물트럭, 전기식 기기 및 장치, 설계·도안기구 및 타이핑 기구	기 및 밀링기, 활차 및 호이스트 및 캐스틴
루마니아	키실렌, 면혼방 합성단섬유직물, 합성장섬유직물, 양모 혼방합성단 섬유직물, 재생장섬유직물, 콜셋, 콜셋벨트 등 유사제품, 직물제 약세사리 및 여자용장식물, 버튼류 및 압착파스너, 팬호스, 철강선 및 스테인레스, 가공한 철강판, 가공석면 및 동제품, 금속산의 염, 기타 탄화물	미가공 인조섬유, 아크릴 섬유 원료, 재생단섬유, 새가죽 및 깃털관련품, 다기염산 및 그 화합물, 아크릴로 니트릴, 크라프트지 및 판지, 폴리 아미드 장섬유, 재압연용철강코일, 철강 압연후판, 전동기류, 기어커팅기, 금속산의 염, 금속절삭기계 용구, 탄화염 및 탄산암모늄, 윤활유, 조제품 석유 및 역청유가
동독	식물성액 및 추출액, 키실렌, 합성 단섬유사, 철강의 압연박판, 기타 전력용변압기, 기타 화물선, 여자용 면코트, 가죽고무, 인조플라스틱재료의 신발, 아연 및 아연제품	생가죽, 재생단섬유, 광물성물질, 땀·뿔 가루 및 부스러기, 석탄류, 프로필렌, 초산 및 초산염, 기타 질소화합물, 염화물, 황산염류, 질산염류, 가죽, 고탄소강, 철강압연후판, 전동기류, 기어커팅기, 카팅선반, 금속절삭기 기계공구, 도자제 전기절연체
체코	오일 및 고온콜탈 종류 생산처리 기구, 면사, 양모 혼방	폴리부타디엔-스틸렌고무, 베니어용 통나무 및 침엽수, 소다

〈表3-23〉의 계속

國 家	輸 出	輸 入
체 코	합성단섬유직물, 가공석면 및 동제품, 철강선, 스테인레스 및 내열강, 가공동판 뜨는 띠, 아연, 우편요금계기 등 계산기구를 갖춘 기계, 전기식 기기 및 장치	및 황산처리 나무필프, 재생단섬유, 점토류, 천연탄산마그네슘, 새가죽 및 깃털 부착품, 기타 일염기산 및 무수물, 케톤류, 인조코런덤, 페놀수지, 유리섬유의 사 및 로빙, 재생장섬유직물, 유리구슬 및 모조진주 등 장식용 유리제품, 고탄소강, 재압연용 철강코일, 철강의 선재, 철강압연후판, 철강압연박판, 리밍기 및 밀링기

資料 : 産業研究院, 『우리나라의 對共產圈 交易 展望』, 1988.8.

④ 對東歐 交易 增進上의 問題點

첫째, 기본적으로 동구권 상품은 국제 경쟁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동구권으로 부터의 수입 가능 품목은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동구 제국은 전반적으로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입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역의 급격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구 각국은 만성적인 硬貨 不足으로 인하여 對外 貿易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國家들간에 성행되어온 求償 貿易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東歐 國家들이 輸入 代金 대신 제공하는 物資들중 原料와 半製品을 제외한 完製品은 그 品質이 組惡한 것이 대부분인 관계로 輸入 物品의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셋째, 對共產圈 戰略 物資 및 技術 流出을 규제·감시하는 美國 主導의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 規程

遵守 與否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⑤ 交易 擴大 方案

첫째, 韓·東歐間 貿易 交流은 東歐 諸國의 硬化 不足, 貿易 體制 및 貿易 順行의 相異性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로는 무역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求償 貿易 形態나 決裁 方式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東歐 國家들은 博覽會를 특히 중시하여 당지도자 및 고위 관리들이 찾아와 진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蘇聯 및 東歐 諸國은 COCOM에서 금지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東西間의 技術 隔差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COCOM 規程을 엄격히 준수하여 선진 우방국과의 무역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合作 投資 : 製造業 및 서비스 分野

##### ① 合作 投資 制度 改革

東西間의 합작 투자는 1960년대 이후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전통적인 中央 計劃 經濟에 대한 수정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간 합작투자는 무역이나 기술 이전 등과는 달리 동구 각국이 制度의 未備와 합작기업에 대한 경직적인 자세 등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들어서자 동구 각국은 國內外的 經濟 環境의 변화와 개혁 및 개방 정책의 확대 등으로 합작 투자 제도를 크게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東歐 各國은 1988年 下半期에 合作 關聯 法規들을 제정하거나 대



폭 개정하였는데 이들 法規는 그간 西方側 資本家들이 요구해 온 持分 限度의 撤廢, 經營에 대한 制限의 緩和, 利益 送金の 保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西方側으로부터 背定的인 反應을 받고 있다.

最近의 合作 企業 制度 變化에서 뚜렷히 보이는 特徵은 그것이 企業의 經營 環境을 포함한 全體 經濟 體制의 變化의 한 部分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合作 企業을 西方 資本이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두었던 여러 制限 條項(外國側 持分率의 限度나 主要 經營人의 自國人 就任義務 條項 등)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 ② 外國 企業 進出 現況

合作 投資 政策의 變化로 東歐의 合作 企業數는 최근에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8年 末 現在 東歐 諸國에 설립되었거나 이미 설립이 허가된 合作 企業의 數는 약 730개인데 이는 1987年의 480여개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숫자이다. 이를 國別로 보면, 유고가 370여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헝가리로 288개, 폴란드 55개, 체코 11개, 루마니아 25개 등의 순이다. 業種別로는 非金融 서비스와 生産財 産業에 合作 企業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헝가리는 機械, 精密 機械, 化學, 輕工業, 食料品, 金融 등 다양하며, 폴란드에서는 食料品, 醫藥品, 호텔, 電氣 등에 合作 企業이 많으며, 불가리아에서는 機械, 消費 物資 部門에, 체코에서는 호텔, 機械 部門에서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는 電氣 器機, 醫療 機器, 自動車 등 部門에서 合作 企業의 活動이 두드러지고 있다.

合作 對象國을 보면, 西獨, 오스트리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美國, 英國, 스위스 등의 순이다.

〈表 3-24〉 동구 제국의 합작 투자 제도

합작투자허용분야	승인관청 혹은 절차	외국측의 지분	경 영	이윤의 해외송금	과 세	면 세 조 항
불가리아	제한조항 없음 지방법원에의 등 록, 100% 단독출자 시 관계기간의 허가 필요	원칙적으로 제한없음 유한회사의 경우 49%, 주식회사의 경우 20% 초과 허가 필요	국내회사와 차이가 없음 고용은 국내 노동법에 고용계약에 따름	경화이윤 제한없이 송금 가능, 거래에서 발생한 현지화폐수입은 경화로 환전 가능	이윤의 30%, 단독출자의 경우 40%, 배당 등의 송금시 15% 추가 과세	국가평의회가 결정 한 첨단기술분야의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이윤세 면제
체코	해당기업 관련 중앙 행정관청	제한없음	특별한 따라서 체코인 사채	경화이윤 제한없이 송금 가능	이윤에 대한 50% 법인세, 배당금 등의 송금시 25% 추가 과세	국가의 결정에 따라 2년의 이윤세 면제 기간 부여 가능
헝가리	외국측 지분 이하인 경우 50% 미만으로, 초과시 대외 무역성과 재투성의 승인 필요	제한없음	국내기업과 동일함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 가능	40%의 법인세	중점사업의 경우 5년간 이윤세 면제, 6년부터 20%과세
폴란드	외국인 투자청	최저 20%		경화이윤 송금 가능, 단 수출로 회 전환 15%를 Zloty로 매각해야 함	40% 법인세, 배당금의 송금시 30%의 소득세 부과	3~6년의 면제 기간
루마니아	각료 평의회	최고 49%	이사회 혹은 행정 위원회에서 경영	조세납부나 사회적 기여의 기부금납부 후 이윤송금 가능	이윤의 30%, 해외이진소득에 대해 추가로 10%과세	이윤의 최소한 5년간 재투자되는 경우 25% 실질세율은
유고	해외경제관계 연방행정관청, 6월 1일 이후에 법원에 등록됨으로 설립이 개정될 때 특별이 개정될 예정	제한없음	국가평의회, 경영 위원회, 서반측 경영 지분에 따라 경영권 가진	경화송금 제한없음, 현지화폐송금 시 외환규정에 따라 부잡한 절차 처야 함	이윤에 대해 10%	

특히 새로운 合作 企業法이 발효하기 시작한 올해의 動向을 살펴보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에서 合作 企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6月 現在, 320個의 새로운 合作 企業이 등록되었으며, 폴란드에서는 203個의 合作 企業에 대해서 許可가 났고, 체코에서는 지난 해 11個이던 合作 企業이 21個로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난 合作 企業의 數에 비해 投資된 資本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헝가리에서는 320個의 合作 企業에 투자된 外國 資本이 7,000萬 달러에 불과하며, 폴란드에서도 2億 3,000萬달러가 투자되었다.

이와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現在 西方側은 東歐의 새로운 合作 制度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東歐에서의 合作 投資는 危險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이같은 현상은 서방 기업들이 小規模 企業을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으로 가동시켜 본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③ 投資 進出上의 制約 要因

#### ○ 合作 企業 設立 動機上의 差異 존재

東歐側은 대체로 낙후된 技術 水準의 向上 및 심각한 外債 問題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輸出 指向型 合作 企業의 設立을 바라는 반면 西方側은 東歐圈 市場 進出을 통한 硬貨의 利潤의 擴大를 꾀하고 있다.

#### ○ 利潤의 海外 送金 問題

원칙적으로 外貨 收入에 의한 送金은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폴란드에서는 여전히 外債 收入의 一定 比率을 賣却해야 하며 헝가리와

〈表 3-25〉 東歐 5個國의 合作 企業 分野別 分布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계
製造業	9	2	56	9	4	80
(生産財)	(7)	(2)	(37)	(6)	(3)	(55)
(消費財)	(2)		(19)	(3)	(1)	(25)
非金融서비스	6	1	46	4	1	58
金融서비스			4			4
農 業			4			4
계	15	3	111	13	5	147

資料: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ast-West Joint Ventures, 1988

註) 1987年 末에 등록된 企業 基準

〈表 3-26〉 東歐 5個國의 合作 對象國別 分布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계
오스트리아	3	5	40	4	—	52
덴마크	—	2	2	1	—	5
프랑스	1	2	5	—	1	9
西獨	2	1	41	8	1	53
스웨덴	1	1	4	1	—	7
스위스	1	—	12	2	—	15
英國	5	—	8	3	—	16
美國	2	—	11	2	1	16
日本	4	—	5	—	—	9
其他	19	—	22	5	1	47
계	21	11	150	26	4	212

資料: 〈表 3-12〉과 같음.

註: 1988年 末 現在 등록된 合作 企業 基準(社會主義國家間的 合作 企業은 除外).

유고를 제외하고는 配當金 등의 海外 送金에 대해서는 所得稅 등이 다시 부과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유고를 제외하고는 現地 貨幣의 換錢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合作 企業이 輸出業이나 外國 觀光客 대상 投資 企業이 아닐 경우는 貨幣의 不兌換性으로 投資 回收 및 果實 送金에 어려움이 있다.

#### ○ 運營上の 問題

東歐圈에서의 合作 企業은 일반적으로 公有 경제 체제와는 獨立적으로 運營되고 있으나, 불가리아와 체코 등에서는 國家에 의해 企業의 決定權이 매우 制限되어 있다.

또한 合作 企業의 經營에 대해서도 國家나 勞動者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는 루마니아가 가장 변화가 적었는데 명시적인 法律 條項은 없으나 最高 意思 決定 機關의 長이 自國人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 등에서는 勞動者들의 代表者를 理事會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雇傭 및 勞動力 問題

東歐 國家들은 대부분이 심한 勞動力 不足을 겪고 있고 社會 保障 制度가 잘 갖춰져 있어 企業主가 勞動者의 採用이나 解雇에 대해 완전한 權限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다. 管理職의 採用 問題에 있어 루마니아는 여전히 內·外國人의 採用 比率을 規定하고 있으며 체코와 루마니아에서의 雇傭은 여전히 제한적인 國內法을 따르게 되어 있다.

한편, 缺勤, 飲酒, 社會 保障費 支給 등에 따른 費用이 기대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 ○ 原資材 및 部品 調達 問題

東歐圈은 대부분 原資材 및 部品 供給이 國家 計劃의 指示에 따라 調

整되고 있기 때문에 納期日, 生産量, 현지 서비스 이용, 流通 등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投資 進出에 커다란 障礙 要因이 될 수 있다.

#### ○ 法律 體系의 整備 問題

최근의 法律 改正으로 合作法 體系는 상당히 整備되었으나,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며, 또 合作法이 현실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기에는 未洽한 상태이다.

헝가리의 경우 國有 企業 등이 株式 會社로의 轉換을 규정하는 企業 轉換法이 制定되었으나 필요한 關聯 法規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外國人의 資本 參與가 어려운 형편이며, 유고와 체코 역시 租稅 및 外換 管理에 관한 法律 體系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 ④ 投資 進出 擴大 方案

##### ○ 基本 方案

기본적으로 對東歐圈 進出은 民間 主導에 의해 運營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政府는 與件의 變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現 制度 및 法令 등의 側面에서 改善을 마련하는 데 重點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合作 投資는 현재 東獨을 제외한 모든 東歐 國家에서 積極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분야이고 앞으로도 合作 投資에 대한 東歐側의 努力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對東歐 合作 投資에 대한 기본적인 決定이 要求되는 時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對東歐圈 進出 經驗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더우기 최근 東歐 市場이 잇단 경제 개혁 조치로 急激한 變化를 보이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투자에 따른 현실적인 危險 負擔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對東歐圈 進出時 철저한 收支 計算에 의한 合理的이고

도 長期的인 東歐 進出 戰略 樹立이 進行되야 할 것이다.

○ 投資 對象國의 選定

對東歐 投資時 投資 對象國의 地理的 立地 條件에 의한 輸出 市場 및 內需 市場 規模를 同時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가리아는 對西歐 및 中東 進出을 위한 중요한 地理的 位置에 있으며, 폴란드는 덴마크와 유고는 아프리카 諸國과 傳統的으로 깊은 紐帶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內需 市場에 있어서 헝가리는 開放化의 폭이 넓고 市場 經濟로의 轉換이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소련과의 貿易을 硬貨 베이스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폴란드는 소련 다음으로 동구권에서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루마니아는 社會 間接 資本의 未備와 엄격한 中央 集權制 실시로 市場性이 상대적으로 뒤 떨어져 있고 東獨은 合作 投資보다는 生産·技術 協力 형태를 選好하고 있다.

또한 東歐 國家들의 運送, 通信, 電力 등 社會間接資本 施設도 西方에 비해 전반적으로 不充分한 상태이므로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유고, 폴란드, 체코 등은 비교적 優秀하나,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아직 未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投資 業種

東歐 諸國은 各 部門別 投資와 開發에 대한 優先 支援 順位가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 업종 선정시 投資 分野에 대한 各國의 支援 水準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重點 投資 誘致 分野를 國별로 살펴보면, 헝가리는 電子, 自動車 위주의 輸送 部品, 각종 機械類, 醫藥品 生産에, 유고는 에너지 開發, 食品

加工, 機械類, 交通·通信, 호텔, 建設에, 폴란드는 食品 加工, 製紙, 電氣 機械 및 器機, 電子, 醫藥品에, 불가리아는 電子, 生命 工學, 新素材 生産, 産業用 로보트, 發電 設備에, 루마니아는 産業用 로보트, 船舶, 重엔진, 金屬 機械에 그리고 체코는 機械類, 호텔 建設에 각각 합작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동구권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短期的으로 는 加工輸出 및 輸入 代替 産業 分野에 優先的으로 進出하고 長期的으로 는 內需 市場 및 域內 市場 進出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投資 有望 分野를 예시적으로 선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輸出 指向型 産業 分野: 纖維類, 鐵鋼 등 EC쿼터 品目, 컬러 TV, VTR 등 EC 輸入 規制 品目

-輸入 代替型 産業 分野: 鐵鋼, 合成 樹脂, 自動車, 建設 裝備, 電子 器機, 化學 肥料, 醫藥品 등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상 生産의 海外 移轉이 필요한 分野: 纖維類, 玩具類 등

-建設 分野: 호텔, 레저 施設 등 觀光 開發

#### ○ 契約書 作成

合作 投資에 의한 製品 生産의 경우 東歐 諸國의 合作 企業 設立 動機가 品質 向上에 있으므로 品質 및 애프터 서비스 등에 대한 契約書 作成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品質 管理에 대한 決定權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東歐 諸國은 輸入 貨金 以上の 輸出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合作 企業 運營上 필요한 一定 比率의 對西方 輸入을 契約時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合作 投資에 대한 保障

財産의 公有化 또는 國有化를 基本 原則으로 하고 있는 東歐 諸國과의 合作 投資에서는 合作 企業의 財産 保全을 위한 裝置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兩側 企業 次元에서의 保證 뿐만 아니라 政府間 投資 保護 協定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 第 5 章 結 論

모든 經濟協力에는 희망과 좌절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中國,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諸國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中國은 地域的으로나 인구의 면에서도 넓고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一律的으로 言及한다는 것은 바로 錯誤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보고되는 것은 中國에 관한 一般的인 觀望이나 연구분석 보다는 오히려 東北三省의 경우의 관망에 더 큰 기초를 두고 있다. 東北三省은 전술한 바와 같이 地理的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近接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小數民族으로서의 朝鮮族의 密集居住 地域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協力は 종국적으로 在外同胞의 經濟 生活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統一에 있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유리한 勢力을 形成시킨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전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있다.

經濟協力は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相互에게 분명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中國 東北三省의 經濟協力は 前述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을 때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도 長期的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最近 蘇聯의 改革·開放 政策과 韓國의 北方 政策이 상호 시기적으로 맞물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韓·蘇 交流의 확대는 그 배경이 기본적으로 東西 兩陣營의 和解 霧圍氣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蘇聯이 대대적으로 전개한 平和 外交 攻勢와 國際的 協力 霧圍氣 造成 노력은 東西 兩陣營의 新데탕트 時代를 앞

당기는 데 있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蘇聯은 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經濟 沈帶로 인하여 自國의 經濟 活性化를 위한 對外 開放 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東歐諸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蘇聯 및 東歐의 정책 변화와 對外 協力の 필요성은 그 동안 적대 관계로 간주되던 韓國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특히 성공적인 經濟 開發로 인하여 新興 工業國(NICs)의 선두 주자로 부상한 韓國의 존재는 현 經濟難에 처한 蘇·東歐諸國에 있어서 적합한 協力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韓國은 그들에게 산업과 무역 분야에 있어서 相互 補完성이 크고, 中間 段階의 기술과 산업 구조를 가진 韓國은 특히 蘇聯에게 協力を 위한 적합한 상대임에 틀림없다.

韓國측의 입장에서도 蘇聯 및 東歐와의 經濟 交流의 확대는 日本, 美國 등에 치중된 交流 및 對外 依存度を 분산하고 輸出入先의 多邊化와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기할 수 있다는 經濟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韓半島를 위요한 國際的인 緊張 狀況을 해소하고 나아가 韓半島 統一 問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政治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社會主義諸國과의 經協을 위한 學術 세미나들에서 특히 蘇聯側 관계자들은 현재의 韓·蘇 經濟 協力は 貿易 分野만 해도 兩國의 總 貿易量을 고려하여 볼 때 韓蘇間의 交易 規模가 너무 작고, 기타 合作 分野에 있어서도 논의만 활발할 뿐 별 성과가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향후 兩國의 經濟 協力は 더욱 加速化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對社會主義諸國 經濟 協力は 현재의 商品 交易에서부터 시작하여 求償 貿易, 資本 協力, 合作 投資, 資

源 開發 參與를 포함한 다양한 産業 協力 形態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經協의 過程은 互惠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의 資本, 技術 能力과 經濟的 必要性, 그리고 對象國의 開發 需要에 적합한 분야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상대국에 대한 상호 투자,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 3국간 거래 관계 형성 등 다양한 형태로 심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經協의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投資 保護 協定, 二重 課稅 防止 協定, 所有權 保護 協定 및 稅制와 金融 分野에서의 改善 措置 등을 포함한 制度的 裝置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對社會主義諸國 經濟進出과  
統一與件 展望

---

1990년 3월 10일 인쇄

1990년 3월 19일 발행

발행처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3연구관실)

전화 720-2426

연구책임 金潤煥, 尹錫範, 朴春三

인쇄처 웃고문화사 (267-3956)

---

國統調 90-3-19 (비매품)

